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40nB483

竺峰敏禪師語錄


清 幻敏說

性鉅·性湛·性珩·性濟等編

附後錄（依駒本增入並印）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目錄](#)
 - [請啟](#)
 - [郡侯楊公請啟](#)
 - [副府劉公請啟](#)
 - [闔郡眾紳衿請啟](#)
 - [闔郡四眾等請啟](#)
 - [闔郡紳衿士庶等請啟](#)
 - [住四川忠州敕建振宗禪寺語錄一](#)
 - [住四川忠州敕建振宗禪寺語錄二](#)
 - [小參](#)
 - [示眾](#)
 - [茶話](#)
 - [機緣](#)
 - [佛事](#)
 - [挂鐘](#)
 - [入關](#)
 - [慶忠老人起龕](#)
 - [入塔](#)
 - [首九設供](#)
 - [聚雲師翁設忌](#)
 - [塑慶忠老人真成安座](#)
 - [老人周年設供](#)
 - [慶忠老人圓塔](#)
 - [禮聚雲祖塔](#)
 - [慶忠老人設忌](#)
 - [禮佛日東明和尚塔](#)
 - [體如和尚起龕](#)
 - [下火](#)
 - [起骨](#)
 - [安座](#)
 - [繩若禪人下火](#)

- [天峰和尚下火](#)
- [石琦上座起龕](#)
- [下火](#)
- [起骨](#)
- [入塔](#)
- [笑傳禪人下火](#)
- [明心禪人起龕](#)
- [下火](#)
- [起骨](#)
- [入塔](#)
- [慎初禪人下火](#)
- [密行大德起龕](#)
- [下火](#)
- [起骨](#)
- [入塔](#)
- [常明大德起龕](#)
- [下火](#)
- [汾陽和尚應九](#)
- [喬松和尚設供](#)
- [眉山和尚設供](#)
- [紫垣上座起龕](#)
- [下火](#)
- [俱非上座起龕](#)
- [下火](#)
- [起骨](#)
- [安位](#)
- [起瓶](#)
- [入塔](#)
- [恒心禪德起龕](#)
- [入塔](#)
- [安位](#)
- [慈運和尚應九](#)
- [梵雲老和尚封龕](#)
- [起龕](#)
- [下火](#)
- [挂直](#)
- [起骨](#)
- [安位](#)

- [首九拈香](#)
- [百期設供](#)
- [惺中禪人下火](#)
- [白飯大德封龕](#)
- [起龕](#)
- [下火](#)
- [起骨](#)
- [安位](#)
- [滿足忍禪人下火](#)
- [燦旨禪人下火](#)
- [滿足禪人入塔](#)
- [玉溪和尚起龕](#)
- [下火](#)
- [安位](#)
- [起骨](#)
- [正庭居士下火](#)
- [蜜海禪德起龕](#)
- [下火](#)
- [寶月禪人入塔](#)
- [安土地](#)
- [靜禪禪人下火](#)
- [問答](#)
- [法語](#)
- [詩偈](#)
 - [贈劉郡侯](#)
 - [步劉郡侯韻](#)
 - [贈別劉鎮臺](#)
 - [祝楊郡侯](#)
 - [次朱檀越韻](#)
 - [題走馬燈](#)
 - [鼓燈](#)
 - [橘燈](#)
 - [贈雲空禪宿](#)
 - [贈劉鎮臺](#)
 - [祝黃守府](#)
 - [壽汪護法](#)
 - [祝武郡侯](#)
 - [示樂菴居士](#)

- [示唯慶居士](#)
- [示覺菴上座](#)
- [示鑑空禪人](#)
- [示張道人](#)
- [次荅胡公韻](#)
- [示允應禪人](#)
- [募修曲水菴](#)
- [復學正陶公](#)
- [示覺蔭居士](#)
- [示慈蔭居士](#)
- [示賢蔭居士](#)
- [示福蔭居士](#)
- [示恒覺居士](#)
- [示曇蔭居士](#)
- [步慶忠老人山居五首](#)
- [次韻荅寶善居士](#)
- [建新城有感](#)
- [中秋無月](#)
- [喜晴](#)
- [午日苦雨](#)
- [除夕](#)
- [午夜即事](#)
- [元宵](#)
- [步胡部院被執二首](#)
- [寄回參](#)
- [步韻](#)
- [新秋有懷](#)
- [寓石鼓和馬文學韻二首](#)
- [步涪陵陳先生韻](#)
- [贈余郡侯](#)
- [過白岩訪眾禪德](#)
- [祝楊郡侯](#)
- [和朱檀越韻二首](#)
- [步慶忠老人詠蓮六首](#)
- [初夏寓觀音菴苦雨感賦](#)
- [和官慰馬司君官亭韻](#)
- [步學正盧公韻](#)
- [重游方廡有懷](#)

- [秋日過觀音寺訪嵩璞耆德](#)
- [辭院出關感賦三首](#)
- [謝學正陶公元日惠念珠](#)
- [臨江八景總題](#)
- [吊恒心禪德](#)
- [瀟陵白塔](#)
- [詠梅兼柬圓森去文二座](#)
- [題燈](#)
- [贈別童兄和尚](#)
- [贈別李鎮臺](#)
- [祝官慰馬司君](#)
- [新秋有懷](#)
- [中秋無月有感](#)
- [步劉郡侯韻](#)
- [寓石鼓和馬文學韻](#)
- [贈余三護法](#)
- [贈吳郡侯](#)
- [祝嵩山居士](#)
- [示聞一上座](#)
- [示泰來上座](#)
- [贈睿珍上座](#)
- [贈馬司君](#)
- [祝武郡侯](#)
- [祝劉鎮臺](#)
- [祝黃守府](#)
- [壽汪三護法](#)
- [贈馬護法](#)
- [贈俗兄](#)
- [贈俗姪](#)
- [贈學正鄒檀越](#)
- [登重龍山](#)
- [再步重龍兼柬羅學正](#)
- [贈重龍住持](#)
- [即事偶占](#)
- [和學正能公](#)
- [五言](#)
 - [重龍山晚眺](#)
 - [臨江八景](#)

- [翠屏春曉](#)
- [紫極晚煙](#)
- [治平晨鐘](#)
- [巴臺夜月](#)
- [鳴玉浮沙](#)
- [西岩瀑布](#)
- [石臺照鏡](#)
- [五龍托寶](#)
- [平都山](#)
- [拈頌](#)
- [頌歌](#)
 - [華嚴三觀頌](#)
 - [十二時歌](#)
- [讚](#)
 - [慶忠老人直](#)
 - [慶忠老人半影](#)
 - [釋迦梅檀瑞像](#)
 - [送子觀音](#)
 - [祖峰和尚](#)
 - [徐見宇善士](#)
 - [徐孺人](#)
 - [松下達磨](#)
 - [觀音](#)
 - [面壁達磨](#)
 - [渡江達磨](#)
 - [白讚](#)
 - [見初禪人](#)
- [書問](#)
 - [復沈縣尹](#)
 - [候童真和尚](#)
 - [候嵩山馬司君](#)
 - [復杜瑞蘭居士](#)
 - [復童和尚](#)
 - [復別菴和尚](#)
 - [復體如和尚](#)
 - [復醒徹和尚](#)
 - [候嵩山馬司君](#)
 - [候黃星馬檀越](#)

- [候石司馬新君](#)
- [鏃可中馬檀越](#)
- [賀劉鎮臺壽](#)
- [候嵩山馬司君](#)
- [復千峰和尚](#)
- [復馬新君](#)
- [復學正鄒檀越](#)
- [復笑旨上座](#)
- [復海若眾座](#)
- [候武貞劉文學昆玉](#)
- [寄況盈冲昆玉](#)
- [上座](#)
- [候若石和尚](#)
- [復蓉城葉檀越](#)
- [復菴陳眾檀越](#)
- [復學正鄒檀越](#)
- [又](#)
- [聯芳偈](#)
 - [囑鑑堂上座](#)
 - [囑慶堂上座](#)
 - [代囑正幢禪座](#)
 - [囑覺堂上座](#)
 - [囑淨修大德](#)
 - [囑濟堂知藏](#)
 - [代囑繼堂上座](#)
 - [囑海堂藏主](#)
 - [囑永堂書狀](#)
 - [囑徹堂上座](#)
 - [囑碩堂上座](#)
 - [囑月堂知藏](#)
- [雜述](#)
 - [募鑄四十八願洪鐘引](#)
 - [新鑄鐘磬銘](#)
 - [募塑功德引](#)
 - [募重修普樂寺引](#)
 - [募慶佛誕引](#)
 - [募疏](#)
 - [募修萬聚山方廣禪院疏](#)

- [募修白雲菴疏](#)
- [法派](#)
- [住浙江嘉興楞嚴禪寺語錄](#)
 - [序](#)
 - [請啟](#)
 - [上堂](#)
 - [佛事](#)
 - [法雨和尚請師為鐵祖舍利高峰老和尚衣鉢護國童直和尚靈骨起龕](#)
 - [入塔](#)
 - [法雨寺高峰老和尚忌晨設供](#)
 - [震天禪座封龕](#)
 - [起龕](#)
 - [舉火](#)
 - [席紹芳昆玉為母沈氏請對靈](#)
 - [禮巫山慈祥和尚塔](#)
 - [禮慈常道兄塔](#)
 - [蕪湖護國童直和尚設供](#)
 - [聯芳](#)
 - [囑萬堂維那](#)
 - [囑遍堂書記](#)
 - [囑蔚堂藏主](#)
 - [囑杰堂堂主](#)
 - [囑豁堂聖僧](#)
 - [請讚](#)
 - [慶忠老人楞嚴](#)
 - [慶忠老人讚](#)
 - [高峰老和尚讚](#)
 - [紫柏大師讚](#)
 - [功德林讚](#)
 - [雲祖鐵祖高峰老和尚共軸](#)
 - [書](#)
 - [文](#)
 - [詩偈](#)
 - [和東坡蘇公遊徑山七言古](#)
 - [又步蘇公五言](#)
 - [巫山十二峰](#)
 - [祝法雨和尚](#)

- [過金山步蘇公韻](#)
- [寄懷載孺俗兄](#)
- [詠十姊妹花](#)
- [過湖口陰雨](#)
- [贈玉峰和尚](#)
- [贈臬憲于公護法](#)
- [贈佟太尊](#)
- [渡錢塘江](#)
- [和阿諾和尚韻兼贈之](#)
- [飛來峰](#)
- [普陀十二景](#)
 - [梅灣春曉](#)
 - [茶山夙霧](#)
 - [古澗潮音](#)
 - [龜潭寒碧](#)
 - [天門清梵](#)
 - [磐陀曉日](#)
 - [千步金沙](#)
 - [蓮洋午渡](#)
 - [鑪峰翠靄](#)
 - [鉢盂鴻灑](#)
 - [靜室茶煙](#)
 - [洛伽燈火](#)
- [贈香積祥和尚](#)
- [楞嚴八詠和同岑和尚韻](#)
- [龍亭](#)
- [紫柏院](#)
- [功德林](#)
- [書本經坊](#)
- [禪堂](#)
- [笠院](#)
- [土地靜室](#)
- [放生池](#)
- [渡湖](#)
- [豔潏堆](#)
- [宿巫山](#)
- [泊觀音洲](#)
- [登晴川閣](#)

- [望黃鶴樓](#)
 - [過小孤山](#)
 - [望大孤山](#)
 - [廬山](#)
 - [夜過虎丘](#)
 - [姑蘇紅蝦池](#)
 - [雞冠花](#)
 - [游湖](#)
 - [法雨晚步](#)
 - [法華洞](#)
 - [梵音洞](#)
 - [遲歸](#)
 - [乘興](#)
 - [語溪](#)
 - [大佛頭](#)
 - [西湖十景](#)
 - [斷橋殘雪](#)
 - [蘇堤春曉](#)
 - [平湖秋月](#)
 - [曲苑風荷](#)
 - [三潭映月](#)
 - [花港觀魚](#)
 - [柳浪聞鶯](#)
 - [兩峰插雲](#)
 - [雷峰西照](#)
 - [南屏晚鐘](#)
 - [岳王墳](#)
 - [寫意](#)
 - [晏坐](#)
 - [詠老少年](#)
- [後錄](#)
- [目次](#)
 - [再住四川忠州敕建振宗禪寺語錄](#)
 - [示眾](#)
 - [茶話](#)
 - [佛事](#)
 - [掛鐘板](#)
 - [禮鄂鄰聚雲師太舍利塔拈香](#)

- [禮灼然和尚並外祖祇園主塔拈香](#)
- [禮聚雲祖塔拈香](#)
- [禮九峰汾陽般若四維懋谷眾法兄和尚塔拈香](#)
- [鑑堂上座封龕](#)
- [起龕](#)
- [舉火](#)
- [挂直](#)
- [起骨](#)
- [常樂院入塔](#)
- [優曇院入塔](#)
- [安位](#)
- [正知大德起龕](#)
- [舉火](#)
- [安位](#)
- [起骨](#)
- [入塔](#)
- [觀井耆德入塔](#)
- [安位](#)
- [睿珍上座舉火](#)
- [起骨](#)
- [讚偈](#)
 - [高峰三老和尚讚](#)
 - [金山圖讚](#)
 - [鑑堂上座讚](#)
 - [又讚](#)
 - [祝郡侯金公大護法](#)
 - [寄郡侯朱公大護法](#)
 - [祝馬司君](#)
 - [示紫溪法姪孫](#)
 - [示胡先貴寰名璫號祥蔭](#)
 - [示劉朝佐漢卿名璫號碩蔭](#)
 - [示蔡永貴九鼎名玘號普蔭](#)
 - [示劉顯雲榮衢名璫號崇蔭](#)
 - [示黃起鳳騰霄名\[璫-品+其\]號緇蔭](#)
 - [弔悟徹耆德](#)
 - [弔冰壺上座](#)
 - [弔淨修大德](#)
 - [弔樂居士](#)

- [聯芳](#)
 - [囑祖堂監院](#)
 - [囑兆堂藏主](#)
 - [囑德堂上座](#)
 - [囑憲堂知眾](#)
 - [囑觀堂知客](#)
 - [囑曉堂書記](#)
 - [囑泉堂堂教](#)
 - [囑几堂知藏](#)
 - [囑燦堂上座住峨眉山](#)
 - [囑耀堂上座](#)
 - [代囑立堂法姪](#)
 - [代囑茂堂法姪](#)
 - [代囑容也法孫](#)
 - [代囑玉堂法姪](#)
 - [代囑果堂法姪](#)
 - [代囑體宗法孫](#)
 - [代囑覺宗法孫](#)
 - [囑朱曇馥居士](#)
 - [囑況栢衡廣化居士](#)
- [辭世](#)
 - [辭世別郡侯施公](#)
 - [辭世遺偈](#)
- [塔銘](#)
- [行狀](#)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竺峰敏禪師語錄序

西蜀自大隋、南堂、昭覺、楚山之後，山川寥落，殆將百年。俄有亞聖大人蘄然出於巴西汶水間，即吹萬師翁。翁少遊村落，獲《大慧杲禪師錄》，讀之，嘆曰：「此苦海之寶筏、照夜之明炬也。恨生非其時，與此老遊焉。」遂造朝陽，謁聯池禪師，扣出世法久之。循其源，池蓋杲十三世之的孫而鍊牛遠之高弟也。因請益不用音聲語話，未契心要，菴於郡之佛子山。三周寒暑，再見池于朝陽，拜而問曰：「畢竟如何現出？」池以手掩翁口，豁然大悟。乃囑曰：「禪林下衰，宗教異矣。唯子可起臨濟之仆，子其勉諸。」遂遍遊海內。當萬曆戊午間，翁乃一杖南來，開法于衡之湖東。未幾退院，欲投老西山，將為終焉之計。舟次浯江，會御史鍾衝田公，見而禮之，退謂鄉先生曰：「吾閱人多矣，萬師真僧中龍也。」遂勉留。建刹，于郡城之北開法焉，四方之學侶川輸雲委，宗風由是而興。越二十年翁化，云郡紳士以慶忠師聚雲家嗣請繼住持。不踰年，應平都之請。又明年，轉吟翁東明。所至法席更易，道大顯著，王臣貴人願見而不獲者，方之聚雲猶盛焉。從其遊者洗洗輩出，棋布名山，雖古積翠雲菴莫能過之。而其伯仲之秀拔者，乃復有治平敏公禪師焉。師自驅烏時，與予同學于慶忠之門。予以齒先、法先，師則以兄事予，故予以弟親之。當夫齟齬之間，聆其言辭，便爾超卓。苟非自性宗通、見道曉然，安能吞吐六合者哉？又十年，予遊東吳，南窮會稽，浩然，休於別山之下。慶忘老人以信衣耑東明、高峰二師，授予是年開法長龍。秋九月，老人坐化。郡人士並耆碩之先輩者，以治平之席未可空曠，輪師繼之。明春，衲子競傳新開法語。來詳味，其提唱宗脈雷砰電射，投卷嘆曰：「吾弟妙年之作，置之風穴、雪竇間，未知雌雄，矧而更十年？十年之外，又未知何如。」有師如此，寧畏法道寂寥哉？嗚呼！聚雲起佛日之道於凋零之秋，慶忠又大振於天下。諸先輩播而光烈之，師能撫而守之，可謂集諸老之大成者，安得不為法門之厚望哉？

時康熙辛亥中秋之吉晴川愚兄至善撰

目錄

- 序
- 請啟
- 卷一
 - 上堂

- 卷二
 - 上堂
 - 小參
 - 示眾
 - 茶話
- 卷三
 - 機緣
 - 佛事
 - 問荅
 - 法語
- 卷四
 - 詩
 - 頌
 - 歌
 - 讚
- 卷五
 - 書問
 - 聯芳
 - 雜述
- 卷六
 - 住浙江嘉興府楞嚴禪寺語錄

郡侯楊公請啟

伏以赤幟豎，臨江盛矣；曹源永潤；法席開，巴國儼然，鷲嶺長存。振獅音已有年，六通圓徹；駕車牛于無盡，四眾咸依。恭惟竺翁大和尚不違本誓，應運闍浮，祖印高提，大闡五宗之旨；慈心廣運，頻施六度之仁。誠哉！世出世間之能人。卓爾！雙徑聚雲之克肖。(藩)等雖刀宦海，恒為國命以奔勞，幸蒞雲根，且得民心而趨善，金湯有自，莫透玄要之關，敬啟無緣，敢親捧喝之益，率民渴仰，佇候雷音，臨啟曷勝懼忭之至。

法弟楊國藩 汪允吉 賀勳 黃華
程鼎等頓首

副府劉公請啟

伏以白馬西來，已成文字之案；一葦東渡，遂開棒喝之宗。悟徹飛鳶，提醒處扭轉鼻孔；妙演真諦，親切時點動石頭。欲掃一切野

狐，請推無上法寶。恭惟竺翁大和尚，派演臨濟，光啟慶忠，締造經營，肯構肯堂，輝鹿苑語言法象，即心即佛勝柳溪；注法雨于不二門中，覆慈雲于大千界內；飛錫二載，到處金鰲下釣絲；杯渡一朝，依舊鴛鴦留繡帶。(彪)等敬誦如來成道之日，奉為祇圓結制之期。雪意橫窗，嶺上梅花初漏白；霜威動地，階前芻草尚留青。伏願慈航普渡，花雨高飛，豎指天龍，說不盡一生受用，擊拳大藏，悉從此百棒皈依，則覺海長通，合老少智愚，各證面目，優鉢煥彩，舉山川日月，咸昭盛化休光矣！(彪)等臨啟，曷勝依皈，謹啟。

法弟劉 彪 黃世捷 張正茂 向 斌
陳奕世仝頓首

闔郡眾紳衿請啟

伏以燈派分來，久瞻翠屏山色；法幢擁處，豈同白社風流？有著即非，無因不在，恭惟竺翁大和尚，大慧遠孫，慶忠嫡子；闡宗旨于若存若亡，獨著苦心；開祖刹于為創為守，洪堅願力。況茲臨江之地，夙荷指南；若乃治平之區，實為祖院。孤塔高聳，語言文字，尚留鐵道人清風；眾卉爭妍，詩酒豪家，尤頌白香山遺跡。重榮衰柳，詎非人傑地靈；大振宗風，倍仰孫謀祖德。([多*卓])等自慚鈍根，莫聆上乘雲山舊雨，欲覓無從木樨新香，願聞誰指用是，拂彼松陰，整此法席，黑地窺明月，憑公指頭，青州大布衫，在誰身子？四眾望切，茫茫大海不知何處有慈航；三徑未荒，寂寂門庭應于個中宣祖意。雞犬迎故主，欲笑欲歌；草木沾新香，生榮生豔。伏願香樹常森，金城永峙，浮杯以渡，不愁鬼哭山空；方丈既歸，依然父堂子構；認佛將心心即佛，隨緣不變變隨緣；則山髻浮青，再現皈依之路；而村墟簇繡，咸生歡喜之心矣。([多*卓])等臨啟翹企，不勝頂禮。

法弟子黃 [多*卓] 黃 煒 周 鎬
同闔郡紳衿四眾等頓首拜

闔郡四眾等請啟

伏以派衍無疆，一滴曹源泓字水；薪傳不燼，千株大樹蔭屏山；法席新開于治平，道脈親承乎方丈；源流有自，繼述無差。恭惟竺翁大和尚岷峨鍾秀，灑瀕發祥；出本非常，馬簸箕今朝又見；生原不偶，勤巴子此日再來；為臨濟嗣法之遠孫，乃慶忠入室之真子；髻年祝髮，巾瓶提挈多時；記室操觚，墨硯研磨已久；如瓶注水，承

當處不論有言無言；似芥投針，應機時豈云或出或入？允宜光前而裕後，所應紹祖以承宗；付囑匪自而今，擔荷已曾在昔；值茲老人退席之後，正乃大師主法之時；公道可憑，咸推尊而不二；主張有定，實陰隙于無他。伏願猊座高登，獅音大吼，為玄為要，一番戈甲，重新立主立賓，隨處設施稱異，永傳聚雲之血脈，長光雙徑之門庭，法雨頻滋，宗風大展。(慶)等無任踴躍，懼忭之至。

法弟子羅燈慶 王燈用 郭燈道 彭燈澄
苟燈祥 何燈黎 吳燈皓 郭燈導
吳燈昆 張燈皎
衣末滿德 淨祿 慧堅 慧深
慧能 慧全全頓首

闔郡紳衿士庶等請啟(代理方廣禪院)

伏以杯渡江上，曾開西國之宗；飛錫峰頭，尚啟東林之寺。況此臨江之盛剎，舊衍法派于隆昌；一線孤懸，直溯西來印證；群情共仰，莫不北面皈依；人與天通，事從緣起。恭惟竺翁大和尚，道識九如，心通三昧；參宗旨于臨濟，掩關即是深山；創祇園于柳溪，隨處皆成淨土；緬茲東明古院，昔稱佛日紺宮；勝國綸音，特敕招提之美；桑田滄海，久渺衣鉢之傳；苟非法棟支持，能保精藍再盛。羅鈺、允貞等夙欽道力，敬迓雲輶；念此剎乃雲根名勝之區，惟和尚有慈航普渡之願；一肩兩荷，瓶鉢到處是生涯；五覺三皈，棒喝聆時皆龍象。伏願 猊旄夙駕，塵拂遙臨；鹿苑重新，亦是梅檀繼跡；雞林再造，挹茲青翠浮光；從此霜月鐘聲，盡人拈花之案；抑且樵歌牧唱，無非擊竹之機。四眾傾心，千秋奇遇。臨啟無任稽首翹望之至，謹啟。

法弟子羅 鈺 杜允貞 苟履端 劉大勳同
闔郡紳衿四眾等全頓首拜
竺峰敏禪師語錄卷之一

嗣法門人性(鉅 湛)等編

住四川忠州敕建振宗禪寺

康熙戊申十月朔一日本郡文武縉紳士庶諸山耆宿四眾等請師繼席。上堂拈疏云：「即此用，離此用，文彩全彰；離此用，即此用，點畫不露。去此二途，合作麼生？」喝一喝。維那宣啟畢，師陞座拈香云：「此瓣香，鷲嶺密囑傳來，索訶親承拈出，爇向爐中，敬

祝：當今皇帝萬歲。闔國公卿、本郡文武、縉紳、士庶、檀越，伏願元首明良，股肱昌茂，長為法海棟梁，永作擎天柱礎。此瓣香，非三非一，即一即三，爇向爐中，奉為現前諸位和尚、薙髮二位尊師、諸山耆宿、四眾等，用酬訓導，并謝匡扶。此瓣香，石峰院裏植根、靈峰座下發藥，而今焰露煙沖，爇向爐中，供養臨濟二十六世上鐵下壁先師老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就座。維那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論第一義，未舉足時早**已**踏碎了也，未開口前早**已**華擊了也。那堪登曲条木露醜張乖？山僧自入者個社火場頭，惟具一行鐵脊骨、一個不變心。至于禪道佛法，毫無些子留滯胸中、填塞肚裏。今日被檀越四眾等無端舉向人天眾前，睜眼看著、張耳聽著，畢竟道個甚麼，以為承先啟後底一句？」良久云：「溪頭柳映千春茂，樹裏花飄萬古香。」維那再白椎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師下座。

慶忠老人靈殖入塔。上堂：「一番景過一番新，梅綻香舒巧樣呈。惟有者些渾四序，都盧無變亦無更。作麼生是無變無更底道理？莫是寶塔重新、總持不動喚作無變無更得麼？錯。莫是舍利流輝、眼存青白喚作無變無更得麼？錯。莫是新長老搖唇鼓舌、重打葛藤，四眾等法誼如故、道念恒存喚作無變無更得麼？錯。若會得者三錯，堪報老人莫報之恩，可了老人未了之案。其或未然，再揚家醜一上。深願弘慈無縫罅，乘時撇下鐵榼[木*(天/非)]。惹得兒孫復效顰，道四拿三成話杷。」驀豎拳云：「四四三三，七七八八。」上堂舉南泉和尚為馬大師設齋問眾云：「且道大師來麼？」有道：「待有伴即來。」有道：「合取鉢盂。」有道：「真堂前更下一分飯。」師云：「今日承眾耆德亦為先老人週忌設齋，治平者裏不必問去問來、添鹽搭醋，但只因齋慶讚。」驀豎拄杖云：「此是老人全提作用句。」橫按拄杖云：「此是老人隨機普應句。」靠拄杖云：「此是老人罷釣收綸句。此日一週**已**滿，且道斬新條令一句又作麼生？」喝一喝云：「雖然舊閣閑田地，一度贏來方始休。」復卓拄杖一下。

說戒。上堂拈香云：「此是戒，處處圓成觀自在。」爇爐中云：「此是定，塵塵頓證毘盧印。」香煙四面拂云：「此是慧，一一從心皆三昧。三學圓恒沙，諸佛體同然。即今現前四眾作麼分解？」撫案云：「各人自掃門前雪，莫管他家屋上霜。」

佛誕。上堂，問：「淨法界身，本無出沒；大悲應念，示現受生。作麼生是應現受生一句？」師云：「昔日牽犁，今朝拽鋤。」進云：「年年此日，歲歲今朝。歷歷舉揚，重重利益。即今應機利物一句請和尚道。」師云：「且喜同參共贊揚。」進云：「恁麼則人人共沾法利，個個悉睹慈光。」師云：「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

色長威凜。」乃云：「指天指地何太忙，周行七步忒惆悵。只緣一點輕逗露，今古遺流作話揚。須知話裏有玄機，燕語鶯聲喚不齊。喚不齊，令轉移，順風吹，逆風吹。流水不腐樞不蠹，日輪香象自依依。斯迺闔郡檀越乘茲聖誕慶賀昇平，啟請山僧代為表揚，畢竟表揚一句作麼生道？」良久云：「佛日皇風欽永固，剎塵界海樂唐虞。」

佛成道日，師掩關，文武官紳請，上堂，問：「動靜不關情，此是道人真實句。如何是動靜不關情？」師以拄杖卓一卓。進云：「如何是真實句？」師云：「渡江拾得幾文錢。」乃云：「年來不欲施慧智，舌頭早已挂于壁。木石土塊發神機，拖泥帶水閒遊戲。剛擬憩息暫停樞，又被詞林相勉逼。轟動闔郡文武，悉檀一時霧涌雲興驟集。到者裏，一點明星是瞞頂，萬道文光射紫極。啟我登此曲糸床，開口令人成笑具。非醒醒，非寂寂。強中強，吉中吉。僧金吒，波羅密。」良久云：「揭諦揭諦，孫賓暫且收鋪。」

上堂：「祖師心印，壯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不去不住又作麼生？所以道，萬法本閒，惟人自鬧；鬧者任鬧，我國晏然。山僧年來隱靜天台，只見天台風景，牧唱樵歌，山鳴谷應，閒觀流水，靜聽松濤，于不睹不聞邊少露風規。今日復歸治平，風景如舊，禪室依然，四眾雲臻，人天交慶，復于無聲無臭裏略通消息。恁麼告報，且道住城廓，居山林還有優劣也無？」良久云：「繡帶鴛鴦留得在，金針知落阿誰邊？」復舉東坡居士參佛印禪師，印曰：「此間無學士坐處。」士曰：「暫借和尚四大作禪床。」印曰：「老僧有一問，如荅得，即借坐；如或不能，輸下玉帶。」士曰：「請問來。」印曰：「四大本空，五蘊非有。向甚麼處坐？」士無對，遂留取玉帶，永鎮山門。師云：「蘇公可謂有心無膽，印老卻也特甚張乖。今日護法諸紳士若向治平借坐，山僧即便兩手交付。因甚恁般快可？為應蒼生霖雨望，人人奪得錦標還。」

上堂，僧問：「鐘未鳴，鼓未響，和尚向甚麼處去來？」師云：「東家有西家有。」進云：「如何是祖師西來的大意？」師隨聲便喝云：「審。」問：「聲色全彰即不問，只今一句又作麼生？」師云：「屏山煙淡淡，字水月涓涓。」進云：「眉毛挂劍時如何？」師云：「默默閒閒語莫罄。」進云：「扭轉舌根時如何？」師云：「磊磊落落畫難齊。」僧禮拜。乃云：「一番雨過一番涼，一度逢齋一度飽。不向個裏嘴都盧，卻緣堂上生青草。報君知，曉不曉？昔日，龐公問馬大師：『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大師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大眾，大師吸盡西江水，

龐公深窮只到底。爭似金剛妙應堅，明月清風安可比？安可比？」

卓拄杖云：「薩多悉普吒摩尼杜嚕哩。」

佛誕，鎮臺劉公裝彌陀聖像成請，上堂拈拄杖云：「只者個，天得此以清，地得此以寧，王侯得此以貞，將相得此以佐，聖明，衲僧得此，符到奉行。」卓一卓云：「釋迦老子來也。百萬億光明雲、百萬億音樂雲、百萬億吉祥宮殿雲、百萬億繒綵幡蓋雲，所以道，昔曾處此菩提座，是故此處最吉祥。」復作接引勢云：「無量壽降生也。將軍身，宰官身，隨心應現；現在世，未來世，在處圓成。作麼生是圓成邊事？長至日，一線添，地雷復，柳含煙。一氣無私含有象，嶺梅獨自占魁先。蘭芳桂馥競時燦，松茂竹苞耐歲寒。三錫自爾邀天爵，五福榮臻益壽延。恁麼告報，設有個旁不甘的出來道：『茲乃鎮臺劉公表圓功德，慶祝佛誕，為甚麼露出如許葛藤？』」山僧但向道：『唯有衲僧渾四序，隨緣普化一聲雷。』」喝一喝。

臘八，說戒上堂，豎拂子云：「只者些子萬應靈丹，阿誰無分？總為不了目前，因之種類各別。故我大覺世尊于雪山午夜嘆曰：『奇哉奇哉！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皆因妄想執著而不證得。』」所以，法華會上獻珠，記八歲龍女；涅槃會中擲刀，可千數屠兒。人人鼻孔遼天，個個腳跟著地。」以拂子一拂云：「村歌社舞隨時樂，畦田水口自分明。」

郡侯劉公建蘭盆會請，上堂豎拂子云：「此是郡侯劉公一片和濟弘仁。」拂一拂云：「此是眾善信一段報本懃懇。」放下拂子云：「治平且自因齋慶讚，龍象騰騰，水雲楚楚，一輪紅日正當午。滿盆和樂任飽餐，一派清音信歡舞。五四三，三四五，返魂香，塗毒鼓。」喝一喝云：「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

上堂：「九十春光剛已過，欣逢初夏日偏長。擬為得遂翛然志，無端依舊為人忙。且道畢竟為著誰忙？」喝一喝云：「劍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

佛誕上堂：「毘嵐園裏曾現瑞，今古流傳話不休。豈是兒孫輕播弄，事到頭來不自由。」驀豎拂子云：「只這些子，目今一會，若男若女，乃真乃俗，各各圓成，各各具足。那裏是具足處？」良久云：「情因款洽情無限，話到投機話轉長。」

義卿陳居士表圓功德請上堂問：「治平重建，法席初開。且道即今有何言句為人？」師云：「堂前燈演月，嶺上樹吟龍。」進云：「此是為人一句，且道最上宗乘事若何？」師云：「的的問，的的答，信口隨聲阿喇喇。」進云：「年年正月半，家家燈燦爛。且道是神通妙用？是法爾如然？」師云：「還見月輪麼？」進云：「昔日聚雲三關，今請和尚答出。如何是腳掌掉後句？」師云：「適出

方丈忘卻了也。」「如何是鼻孔朝天句？」師云：「眉稜書七字。」「如何是腦後具眼句？」師云：「足底涌紅輪。」進云：「三關已蒙師指示，義卿善士若何酬？」師云：「指上南山秀，袖裏東海寬。」乃云：「第一義，難窺覷，棒打石人頭曝曝。論實事是何事響？古德云：『十五日已前水漲船高，十五日已後泥多佛大，正當十五日，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傾，祇得三千大千世界悉皆歡喜。』治平今則不然，十五日已前，火樹高懸，午夜銀花，燦爛中天；十五日已後，露地泥牛徵歌舞，空中石虎泛波濤；正當十五日，的的與歷歷，一文大光錢買得個油糝，合眾飽齣齣，圓滿波羅密。且道慶餘福遠一句又作麼生？」以拄杖畫○云：「百萬億座世界花，阿誰不在花光裏？」卓一卓。

佛誕。上堂：「昔日雲門意氣羸，欲將冷棒擊真如。誰知話說難收拾，今古人傳不丈夫。個中更有具丈夫氣概者麼？」良久復舉慶忠老人云：「世尊初生，一手指天，一手指地，張乖太甚；周行七步，目顧四方，著忙太甚；雲門要一棒打殺，不平太甚；山僧舉向人天眾前，揚惡太甚。」師云：「者般說話雖是就下平高，未免頂門著刺。治平則不然，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且道其中底又作麼生？」以拄杖畫○相云：「稽首皈依淨妙圓，千丈化身曾庇蔭。」

中元上堂問：「年年七月半，戶戶重打筭。夜來燒紙錢，白晝獻齋饌。此是在家報本底道理。今日和尚分中又當如何？」師云：「唯斯一滴水，四海潤群靈。」進云：「現前文武四眾慶賀中元，各各三世宗親，即今如何得超度去？」師云：「香煙飛白鶴，燭影閃金龍。」進云：「此是利益過去一句，現在一句又作麼生？」師便喝，進云：「即今有個本無生死亦無去來底人，座上還見麼？」師云：「既無背面，豈用安排？」問：「心佛眾生，三無差別。無差別法作麼舉揚？」師云：「祇園林下月橫秋。」進云：「我人壽者，四相皆空。四空相中作麼提唱？」師云：「吒膩峰頭都哆唎。」進云：「行住坐臥，範聖圍賢。四威儀中作麼行履？」師云：「一坐樓臺六處窗。」進云：「差別儀相蒙指策，幽顯齊資法若何？」師云：「不因前舉似，後話也難圓。」進云：「即今孟蘭會啟，郡主金湯，交互激揚一句作麼生道？」師云：「話頭既舉，註腳分明。」進云：「恁麼則仁風善政垂千古，法雨瓶傾灑萬民。」師云：「秋深眾寶登，慶餘千佛記。」乃云：「第一義，沒遮攔，星在秤兮不在盤。提挈群靈唯赤手，點惺枯骨有金丹。」以拄杖畫[○@人]相云：「此是覺法自性性意生身。于斯薦得，匪特天地泰濟，水火澤孚，文經武緯榮三錫，士民商賈慶九如。」復畫[○@]相云：「此是三昧樂正受意生身。于斯薦得，豈但冥陽普

滋、真俗均注，和羅香消渾饑寒，漏盡娑婆親故步。」復畫[十〇]相云：「此是種類遍現無行作意生身。于斯薦得，直下倒駕無首龍，橫跨不啞虎。溪山不換傲王侯，雲月無拘迭賓主。既爾恁麼應時納祐一句又作麼生？」復畫〇相云：「金甌允覆晶燈徹，冰鏡騰輝玉露濃。」

佛誕上堂舉：「外道問：『世尊，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外道讚嘆云：『世尊大慈大悲，開我迷雲，令我得入。』作禮而去。阿難白世尊云：『外道見何道理，便恁麼去？』世尊曰：『如世良馬，見鞭影而行。』古德頌云：『機輪曾未轉，轉必兩頭走。明鏡忽臨臺，當下分妍醜。妍醜分兮迷雲開，慈門何處惹塵埃？因思良馬追鞭影，千里神駒喚不回。喚得回。』本是無孔笛，何用楚歌吹？且道是重宣佛德、慶祝聖誕耶？還是表達眾誠、協應時節耶？」良久云：「簷聲不斷前旬雨，電影常連後夜雷。」喝一喝。

弇井眾善信建萬佛會請上堂問：「年逢正月半，燈光處處燦。瑞氣繞瓊宮，白鹿啣泉獻。未審是萬佛俱臨？是天官降誕？」師云：「鹿溪水映玉，鳳嶺石留雲。」進云：「人天聚會，四眾雲臻，且道有何法要指示？」師云：「杖頭有眼明如日。」進云：「有恒禪德誘眾檀建勝會，和尚如何利益檀那？」師云：「水中鹽味別，色裏膠青瑩。」乃畫[〇/(〇*〇)]相云：「三陽泰，品物亨。柳條舒嫩色，梅萼吐青英。燈火時方勝，芝蘭雅自馨。報恩恩普報，錫福福駢臻。千祥頻至止，萬佛悉雲臨。惟有拄杖迥然別，出入收放任縱橫。動應住，坐應行，一顆摩尼衣下親。在在常具足，法法總圓成。」復舉文殊思業禪師少為屠宰，一日戮豬次，洞徹心源，遂述偈曰：「昨日夜叉心，今朝菩薩面。菩薩與夜叉，不隔一條線。」師云：「只者不隔二字，從上聖賢、千佛萬佛，由斯而轉大法輪，由斯而成等正覺。即今一會，若文若武、乃真乃俗，莫不由斯從心自在。」畫〇相云：「一輪重應乾坤朗，大地山河總是春。」

佛誕上堂問：「昔日世尊初生時道個『天上天下惟吾獨尊』，那裏是他獨尊處？」師云：「明破即不堪。」進云：「既是獨尊，因甚雲門要一棒打殺？」師云：「山僧拄杖子未曾惡發。」問：「『不問有言、不問無言』，和尚作麼打當？」師云：「花簇簇，錦簇簇。」進云：「佛未出世時且道是那個降誕？」師云：「南地田兮北地陸。」進云：「且喜當年此日，此日當年。」師云：「者句道得恰。」乃云：「雲從龍，風從虎，聖人出而萬物睹。睹個甚麼？睹雲興，睹鶴舞，睹滿座文質彬彬，睹闔會象龍楚楚，睹山水之悠悠，睹星恒之[月*五][月*五]，睹在在慧炬長明，睹人人壽算莫數。逆數，順數，數到治平院裏，主中自有賓，賓中自有主，賓主

混融時，的的箭後路。」復舉老宿拈拄杖示眾云：「古人到者裏因甚不肯住？」眾無語，自代云：「為他途路不得力。」復云：「畢竟如何？」又自代云：「榔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師云：「者漢雖然就勢抽身，未免鋒鋸忒露。治平則不然。」驀豎拄杖云：「杖頭奉重已多年，撥著南邊動北邊。一撲只教三跳網，大千沙界一毫端。」卓一卓云：「關。」

中元上堂問：「越祖超宗即不問，如何是慶賀中元句？」師云：「露滴芙蓉濕，風吹菡萏香。」「如何是眾姓報本追宗句？」師云：「蓮開九品，光迓三菩。」進云：「眾生遇此日，眉稜俱打失，世尊稱為歡喜。且道佛又是甚麼心行？」師云：「還識佛面麼？」進云：「佛與眾生無二，因甚又有差別？」師云：「且退且聽。」乃云：「秋旭忒陽暉，群靈思溥澤。良哉傅大士，在在尋彌勒。彌勒真彌勒，分身千百億。時時度時人，時人不自識。那裏是分身濟度處？十纏融十智，十使應十通。十輪廝養卒，十地客作工。無厭斯飽滿，勝熟悉淘溶。滿目青黃憑薦取，一人行健萬事豐。且道因齋慶讚又作麼生？」良久云：「菩提果熟珠光燦，泡影雲開覺樹新。」

師誕說戒兼李公子啟名，上堂豎拄杖云：「山僧行年五十七，龍虎水雲今會聚。拄杖非是我同年，拂子予方長一歲。百千萬億數旋元，七八五十更增一。索我毘尼福田開，從予宗譜壽祿裕。百寶摩尼一顆珠，非俗非真非聖諦。赤手奪得錦標還，有意氣時添意氣。」乃舉：「乾峰上堂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天台來，卻往徑山去。』峰云：『典座明日不得普請。』看來二老一個深設陷坑，一個直透重圍，雖然不露鋒鋸，未免掠虛話墮。爭如治平今日百般俱舉，萬緣樂利，飽柴飽水，齋備茶備，啟名底五福駢臻，求戒底三學圓具。既爾如斯，且道阿膩吒天今日幾人作舞？電捲星馳休擬議，德山臨濟喝如雷。咄！」

佛成道，映、悟二上座請，上堂。問：「世界未成，佛未出世，畢竟是誰成道？」師云：「庭前風拂拂，寺後竹參參。」進云：「即今悟、映二師建設勝會，迎請陞座，還是因齋慶讚？是普利群生？」師云：「日輪正卓午。」進云：「殿閣重修，功德圓滿。人天聚會，凡聖同居。且道表圓一句又作麼生？」師云：「雲淡月涓涓。」進云：「即今薦拔兩諦宗親作麼生得超度去？」師云：「蓮花深夜一枝開。」進云：「恁麼則四恩已報，三有均資。承先啟後一句作麼生？」師云：「三三如九。」進云：「存者均沾德澤，亡者獲以超昇。五家宗旨，乞垂方便。」師云：「逐一問將來。」進云：「如何是雲門宗？」師云：「辣。」「如何是法眼宗？」師

云：「達。」「如何是為仰宗。」師云：「匪。」「如何是臨濟宗？」師云：「匪。」「如何是曹洞宗？」師云：「合。」「如何是君？」師云：「端拱無為。」「如何是臣？」師云：「贊勸治化。」「如何是臣向君？」師云：「丹心奉聖明。」「如何是君視臣？」師云：「金闕顯諸倫。」「如何是君臣道合？」師云：「元首明良，股肱昌茂。」乃云：「嘉平出隊陟山藍，霧釋雲開宇宙寬。聖瑞匪唯敷萬億，應身奚啻顯三千。明星十類迴超卓，道悟九幽徹本源。點綴華嚴淨土境，一圓一切普周圓。作麼生說個周圓邊事？」乃舉香嚴閑再參為山，山問：「聞汝在百丈先師處問一荅十、問十荅百，此乃聰明識解。父母未生前道將一句來。」嚴竟不能荅，將從前所習遍覓無對，遂乞山說破，山曰：「我若說破，汝翌日罵我去。」嚴乃曰：「畫餅不能充饑。」遂奮志住菴。一日刈茅拋瓦擊竹忽然大悟，遙禮為山曰：「和尚大慈，恩踰父母。當時若說破，焉有今日？」遂述頌曰：「一擊忘所知，更不假修持。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處處無蹤跡，聲色外威儀。諸方達道者，咸言上上機。」為舉似仰山，山曰：「須待某勘過。」問嚴曰：「聞汝有省，試道看。」嚴又頌曰：「昔年貧，未是貧，今朝貧，始是貧。昔日貧有卓錫地，今朝貧，錫也無。」仰曰：「如來禪許汝會，祖師禪未夢見在。」嚴又頌曰：「我有一機，瞬目視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曰：「且喜賢師弟會得祖師禪。」師云：「者話雖是從上師資敲激，手足唱酬，未免遭人檢點。爭如即今映、悟二上座，一味本分清操，百般方便接待；有為弗棄，無為不遺；生成恩、覆蔭恩，一誠表荅，歸于明月清風；如來禪、祖師禪，信手拈來，指點蒼松翠竹。者段素履行藏，且道與睹星悟道、擊竹明心還有優劣也無？」良久云：「定光金地遙招手，智者江陵暗點頭。」

黎貴之檀越就蕭公祠建預修道場請上堂：「仲冬望旦晨，應請白衣閣。談吐渾詞鋒，動止露頭角。借座蕭公祠，廟容何卓約。諦思此公因，咸向惠施獲。正直復公平，慈仁與利樂。襲爵封侯王，應身證妙覺。人向此中修，各從個裏作。一生陪百生，一著高千著。那裏是倍增高超處？古德云：『十五日巳前水漲船高，十五日巳後泥多佛大，正當十五日，面前迴壁立，更擬問如何，回頭日又出。』日出後又作麼生？一陽丁來復，梅開雪嶺生香；七日見天心，谷暖桂蘭燦秀。到這裏，泥牛含笑，石女謳歌。雖是恁麼人，始應恁麼候。候即不問，誰是其人？蕭君侯既彰前輒，黎善士今步後程。雖然聖凡杳隔，卻也借庇威靈。且神威作麼烜赫響？」良久云：「寶幢颯颯光昭漢，韶鐸鏗鏘應紫宸。」

上堂舉古德云：「二月陽春仲，山花任自開。丈中風掃地，天上月臨臺。露柱黃昏笑，燈籠曉夜哀。若問他家信，庚方向月歪。」師云：「治平則不然。二月旬初朔，心花叩我開。蘭芳香已播，桂秀喜新培。追先迎五福，裕後植三台。若問他家姓，繁英郁郁來。恁麼告報，與古人是同是別？若謂同，一溪楊柳一溪風；若謂別，千江有水千江月；也不別，也不同，泥鐘石磬齊敲拍，青牛白馬會心宗。」復卓拄杖：「瓶瀉酬庭柏，雲興指澗松。」

說戒上堂：「雪山六載蒲萄露，少室九年穀漏攢。付與兒孫勤守護，一圓一切普週圓。攝善法戒，諸惡莫作；攝律儀戒，眾善奉行；饒益有情戒，普度一切眾生。諸惡莫作，由之瑟奚為于丘之門。眾善奉行，升堂也未入于室也。普度一切眾生，謾說翻觔斗，徒勞撲鏡痕。雖然暫借東皇令，喚轉春風暖上林。桃李芬芳爭艷，麗象龍蹴踏長威寧。即今一會，優波離？肉身祖？高沙彌？斑斑濟濟。佛陀耶？達磨耶？僧伽耶？楚楚彬彬。且道斬新越例一句又作麼生？」良久云：「條分縷析匪驚眾，攫霧擎雲可萃倫。」

舉鑑堂上座秉拂兼囑慶堂上座上堂：「三十餘年泛釣舟，金鱗透網逐時收。而今破浪吞鉤也，正令堂堂露尾頭。尾即不問，如何是頭？鑑上座務須鉗錘毒辣，慶上座必欲手眼全周。全周一曲分明在，四海煙波任遨遊。」

白應聘居士裝地藏像成請上堂問：「今朝下元十五，堂中集眾打鼓。迎請陞座說法，石人跳出作舞。因甚石人作舞？」師云：「拄杖口似懸河，道個蘇嚕蘇嚕。」進云：「即今應聘檀越崇建紺殿，裝塑金容，未審有何利益？」師云：「拾金原是窖金人。」進云：「圓滿一句作麼生？」師云：「如是作，如是受。」師乃豎拄杖云：「只者個，量難窮。小陽節屆，大德攸宗。三元朗朗，九五重重。匪特解厄慶誕，實乃利濟功隆。坤道允宜厚載，[乳-孚+牛]惠自爾舍弘。唯有衲僧意氣別，一條拄杖活如龍。隨操縱，任迎逢，凡聖從教立下風。脫卻帽，卸卻籠，隨緣放曠任西東。不立有，不立空，鬚斗煎茶銚不同。」舉梁武帝問達磨初祖曰：「朕紹位已來，書經造像，建寺度僧，不可勝紀。且道有何功德？」祖曰：「實無功德。」帝曰：「以何無功德？」祖曰：「此是人天小果，有漏之因。如影隨形，雖有非實。」帝曰：「如何是真功德？」祖曰：「淨智妙圓，體自空寂。」師云：「如是功德，不以世求。檢點將來，武帝恰似鬥寶賽富，盡情搬出家珍。初祖卻乃漆圓方竹杖，蒙卻紫茸氈，致令佛心天子分疏不下。今日設有問應聘居士圓滿功德畢竟有何所示？但向道如是作，如是受，如是莊嚴，如是成就。協應人天，洪荒宇宙。筌籥有漏，木杓無漏。如是如

是，括囊無咎。」以拄杖畫[○@]相云：「寶輪金錫互旋元，山海綿綿恒庇佑。」

弟子性燦徒空(五 六)捐衣貲刊刻

老和尚語錄第一卷

竺峰敏禪師語錄卷之一終

住四川忠州敕建振宗禪寺

康熙丁卯佛成道日，闔郡文武、官紳、四眾等請師復住治平禪寺，結制上堂拈疏云：「應現妙圓身，錦繡任鋪陳。珠璣錯落處，維那誦分明。」宣畢，師顧座喝一喝云：「要逼生蛇化活龍，剔起眉毛看惡發。」遂陞拈香云：「此瓣香，光昭日月，焰覆乾坤，爇向爐中，奉祝當今皇帝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伏願紫極凝禧，日祝聖朝長有道；前星耀彩，同歸覺海永無疆。此瓣香，秉靈山之囑，顯妙應之威，爇向爐中，奉為滿朝文武、闔國公卿、本郡文武官宰、眾護法，伏願澤倍霖，股肱鹽梅，襄聖治功愈細柳，山河帶[礪-萬+勸]著徽猷。此瓣香，源同泗水，脈洽曹溪，爇向爐中，奉為闔郡檀那、本山耆宿，伏願永為法海津梁，恒作叢林山斗。此瓣香，分弗為兩，析不成三，爇向爐中，奉上高峰得戒和尚薙髮二位尊師，伏願三聚嚴明，法法心傳清白；五株挺秀，時時針下頂門。此瓣香，生于無影之墟，產于不響之谷，向推不開，卸不下處承當，無安排，莫可說處啟口，茲則二番拈出，爇向爐中供養傳靈山道脈六十三世上鐵下壁先師老和尚，用酬法乳之恩。伏願慶衍寂光，二株嫩桂行行秀；淵長道脈，雙燦新篁個個鮮。」**斂**衣就座。白椎竟。問：「聖明統御，萬國咸寧。道合君臣，河清海晏。正恁麼時，和尚又作麼生？」師云：「慣用靈蛇，勢赫赫萬層。」進云：「本郡文武官宰紳衿護法請開選佛場，有何利益檀度？」師云：「活捉生馬，威昂昂千里。」進云：「恁麼則壽如山，福如海，瓜瓞綿綿，簪纓藹藹。」師云：「諦當更諦當。」問：「聚雲心印，臨濟綱宗。如何是臨濟第一句？」師云：「前三三，後三三。」「如何是第二句？」師云：「七不成，八不就。」「如何是第三句？」師云：「茶斟三個棗。」進云：「恁麼不獨衲僧咸有慶，文經武緯盡恩榮。」師云：「且喜小出大遇。」問：「至道真乘，本無言說。應機接物，須賴激揚。至道真乘即不問，應機接物事如何？」師云：「曹溪有路人皆到。」進云：「嶺畔寒梅新發秀，山頭瑞雪鬥芳妍。未審是神通妙用？法爾如然？」師云：「信是誰人得得來。」進云：「恁麼從此治平揚法化，千邦萬國荷真風。」師云：「今日恰遇同參。」乃卓拄杖云：「恁麼恁麼，幾度頻臨江上望，寒梅花向雪中開。不恁麼不恁麼，嫩柳搖金線，且要應時來。試看釋迦老子，明星一點，奇哉三嘆，譬說喻說，論教論

宗，以至調跛驢、醫瞎馬，不過應個時節。又看歷代祖師，說什麼謹嚴高古、細密簡明、親切轉身、異類，末後拈塵柄，說脫空，不過應個時節。祇如現前護法四眾等請山僧開爐選佛，結百念期，致令他畫地為限，又令披五條、七條、二十五條，一皈依、二皈依、三皈依，路從平處險，人向靜中忙，且道是應時節不應時節？」復卓一卓云：「本是江湖一釣翁，自南自北自西東。」復舉波斯匿王問世尊：「聖義諦中還有世俗諦否？若言其有，智不應一；若言其無，智不應二。一、二之義，其義云何？」佛言：「大王，汝于過去龍光佛時曾問此義。我今無說，汝今無聞。無說無聞，是名一義二義？」師云：「看他波斯匿王意欲連科及第，世尊即將名覆金甌。今日眾中若有問一義二義，山僧但撫掌呵呵。何故響？自從舞得三臺後，拍拍原來總是歌。」結椎下座。

聞一上座請，上堂。問：「先哲道：『一喝分賓主，照用一齊行。』祇如兩堂首座未下喝時照用在甚麼處？」師云：「露聲風走葉，山色石留雲。」進云：「既喝之後，照用歷然。日午三更，何須點綴？」師云：「剎竿頭上仰蓮心。」進云：「恁麼賓主全收一句自道去也。」師云：「試道看。」進云：「掬水月在手，弄花香滿衣。」師云：「得便宜處失便宜。」乃舉洞山參雲門，門云：「近離甚處？」山云：「查渡。」門云：「夏在甚處？」山云：「湖南報慈。」門云：「幾時離彼？」山云：「八月二十五。」門云：「放汝三十棒。」明日，洞山復問云：「昨日蒙和尚放三頓棒，不知過在甚麼處？」門云：「飯袋子，江西、湖南便恁麼去？」山于言下有省，作禮起，乃曰：「他日向孤峰頂上盤結草菴，不蓄一粒米，不栽一莖菜，接待十方衲子，盡與伊抽釘拔楔，脫卻赤脂帽子，卸卻滑臭布衫，令他脫灑灑地作個慶快衲僧，好不俊哉！」門云：「汝身如椰子大，開如許大口。」師云：「恁麼說話，恰似大虫戴紙帽，好笑又驚人。若不是治平約法三章，未免被他瞞預一上。今日聞一禪人遠來辦供，山僧亦不問渠過所郵程，但道逢著家中人，便說家裏話，六月賣松風，恐其難定價。既是價值未定，再示一偈以酬志誠。衝開桃浪展綸絲，燒尾無容淹別壘。鱗翼養成隨奮勇，雷轟電掣應當時。」喝一喝。

傳晉美居士祈嗣請，上堂。問：「赤帝乘權，一片椒花現瑞；朱明司令，滿園桃實敷榮。睹物興慈即不問，應時及節事如何？」師云：「日永風和善慶優。」進云：「即今晉美檀越啟請和尚陞座，如何是箕裘有托一句？」師云：「桂子應時發，心花次第開。」進云：「恁麼則彩鳳駕祥雲飛出，石麟隨吉夢迎來。」師云：「快須領取問頭。」乃云：「夏日長，屈麥秋，雨暘若，萬象優。海印重光徵兆瑞，山悠悠自水悠悠。三杯濁酒娛歲月，一炷心香注聖流。」

平息了，萬事周，一顆摩尼衣下收。既是衣珠在掌，不免主賓酬唱一上。」昔有一官人參南堂和尚咨決心要，堂使其好處提撕，適入廁，俄聞穢氣，急以手掩鼻，豁然自省，即呈偈曰：「從來姿韻愛風流，幾笑時人向外求。萬別千差無覓處，得來原在鼻尖頭。」師云：「者漢得之雖易，不無鼻孔心酸。爭似晉美居士無二乃性，恒一其心？但述一偈以酬來意：桂栽自是英華起，九九還能喜香波。目下有枝榮輔弼，玄仍臺上鴈行多。」

浴佛解制上堂。問：「天上天下，惟吾獨尊。如何是獨尊底一句？」師豎拄杖云：「還見這個麼？」進云：「恁麼則丹鳳引雛朝帝闕，江魚帶子躍龍門。」師云：「八棒對十三。」問：「雲淡山增翠，風輕柳弄絲。雲月溪山即不問，濟上家風事若何？」師云：「忤逆聞雷不等閒。」進云：「如何是第一玄？」師云：「撲碎大光錢。」「如何是第二玄？」師云：「中間沒半邊。」「如何是第三玄？」師云：「榴火帶雪鮮。」「如何是第一要？」師云：「閃電光中覓朕兆。」「如何是第二要？」師云：「情殷事急卻難道。」「如何是第三要？」師云：「眉稜角上露七竅。」進云：「玄要已蒙師指示，轉身脫體一句作麼生？」師云：「江畔何年月？江月照何人？」乃云：「九龍洗未盡，五分卻綢繆。一年澆一度，慙慙不記秋。奉祝乾矢橛，心香滿石樓。結束布袋口，飽參無所求。太平寰宇定，何用覓封侯？解開布袋口，趁起水牯牛。山中水草足，市上米鹽稠。米鹽稠，甚風流。碧池雙鴈舞，驚起睡魚遊。治平今日若欲就機打劫，未免累及當人。只饒劈筭奪窩，甚是難為作者。畢竟如何是護末慎初，全始全終一句？」良久以拄杖畫



相云：「來朝更有新條例，七珍八寶一齊收。」上堂：「唯之與阿，相去幾何？善之與惡，相去何若？濕紙裏狻猊，單絲控麟角。為山牛一頭，楊岐驢三腳。潘閔倒騎歸，顛殺黃潘綽。一錯二錯三錯四錯，還有不錯者麼？」舉：「石頭和尚問龐居士曰：『汝日用事作麼生？』士云：『若論日用事，卻沒起口處。』乃呈偈云：『日用事無別，唯吾自偶偕。頭頭非取捨，處處勿張乖。朱紫誰為號，丘山絕點埃。神通并妙用，運水及搬柴。』茲晨乃江南善信啟請山僧演說般若，領最上乘，因甚一味打他葛藤？不見道，借婆帔子拜婆年，火裏蓮開朵朵鮮。燕語鶯啼渾不顧，倒騎鶴舞膩吒天。」復喝一喝云：「停機佇思，釘錠膠黏。」上堂：「春雨連霄澤有餘，清明已過衫絺綌。到來不用潛頭角，堂堂必表而出之。且道有何所表？」舉：「龐居士云：『難，難，十石油麻樹上攤。』穿釘靴，拄拐棍。龐婆云：『易，易，百草頭邊祖師意。』脫卻籠頭卸卻駝。靈照云：『也不難，也不易，饑來喫

飯倦來睡。』簷前鐵馬信風敲，室內塵埃倩誰掃？檢點將來，龐老一家大似同行不同步、同志不同巧。爭似滄井一會，善信各各信念恒嘉，歲歲檀施不少。所謂昔曾播此菩提果，今復慙慙伸禮覲。索鹽奉馬妙機先，山海悠悠時衍慶。」喝一喝云：「吼遍吼，等遍吼。震遍震，等遍震。」

千日鐘會圓滿上堂。問：「東風解凍，春色鼓上林之機；率土流輝，天官賜悠寧之福。如何是慶賀上元句？」師云：「憇忱通帝座，香煙滿石樓。」進云：「選佛場開，幽明兩利。于中透頂透底，東湧西沒，且道是甚麼人？」師云：「風暖鳥聲碎，日高花影重。」進云：「如是則天上獨尊去也。」師云：「恁麼中卻不恁麼。」問：「鴻鈞聿轉，蘭箭舒香。景物維新即不問，當機覲面事如何？」師云：「榕樹增新藹，翠竹拂晴雲。」進云：「銀花發焰，滿月照臨。混融其間，有何分別？」師云：「紫宸以降，帝星賁臨。」進云：「金聲遠徹，玉振遐聞。幽顯咸沾，獲大利樂。圓滿後又作麼生？」師云：「大扣大應，小扣小應。」乃云：「專持一藏真詮，生受三年木鐸。六道四生釋漏纏，三賢十聖卸籠絡。任他遲駑馳駘，休話俊鷹俊鶚。明鏡撲翻理事融，翛然驀直長安過。過不過，牛過窗櫺，蟻旋空磨。夫如是，則知過去貴賤存亡、真俗男女、有情無情、人非人等決定成佛，未來貴賤存亡、真俗男女、有情無情、人非人等決定成佛，現在貴賤存亡、真俗男女、有情無情、人非人等決定成佛。既爾各各成佛，在在滿圓。即今闔會諸仁者轉功就位、透體逍遙一句又作麼生？」良久云：「無不住兮無所住，四方八面總金剛。」

康熙三十五年五月廿八日，師受闔郡文武紳衿護法、諸山耆德四眾等公請，住萬聚山方廣禪寺。入院，三門：「登斯方廣門庭，具斯威德自在。等閒撥動機關，永獲旋元三昧。那裏是旋元處？」入門云：「日月照臨，乾坤覆載。」

接引天王殿：「拈舉捧垂，是一是二？兩順風調，不三不四。大家會聚一堂，都盧談甚妙義？是何義？百般神用總昭彰，一曲無生親的歷。」

韋馱：「三洲感應，百劫修營。六六數足，九九功成。都向個裏應用，從教護法安僧。」良久叩齒云：「唵嚙[口*臨]唵部[口*臨]。」

佛殿：「丈六身，一莖草；一莖草，丈六身。乾屎橛，麻三斤。琉璃盞，破沙盆。將來縛作一束，重教法令斬新。畢竟如何斬新？」

展具云：「慶喜剎竿再扶起，飲光色笑益轉忻。」

祖師：「西天四七，東土二三。分燈續焰，遞代開山。都向此中煅煉，更教莫受人瞞。作麼得不瞞去？謾云珠在淵而輝自媚，須令冰

寒于水青出藍。」

方丈：「丈短尺長，矩圓規方。拈弄自在，縱奪靡常。聖凡魔外潛伏，悲智願行揮彰。若何彰？」良久云：「然諾千金，佇思百棒。即于是日請。」

上堂拈香畢。問：「座上燭影輝煌，爐內檀煙縹緲。東明勝境即不問，佛日三關請師宣。」師云：「大坐當軒八萬門。」進云：「石礪溪煙波洶湧，峻急流白浪翻空。學者欲登彼岸，從何處過得？」師云：「漁人泛遠浦，燕子舞新巢。」進云：「方廣山奇峰絕頂，峭壁巖險峻崎嶇。鳥道不通，學人從甚麼處進步？」師云：「踏穿波底月，搗破水中天。」進云：「幽僻山房夜明簾，煙霞靄靄鐵門闌。紫霧重重，縱千手眼，覷亦無門。參玄道者從何處相見？」師云：「一聲款乃曲，漁父起滄浪。」進云：「三關今已蒙師指，四眾雲臻事若何？」師云：「鐵船現瑞，寶鼎呈祥。」進云：「古人道：『夫說法者，須應時及節。』如何是應時及節處？」師云：「千人共睹，萬姓同瞻。」進云：「恁麼則緇素咸承般若力，佛日堂前顯祖風。」師云：「掀翻舊案，整理新條。」乃云：「建法幢，立宗旨，黏帶齒牙，拖拽泥水。翻舊案，整新條，佛祖歡騰，人天忻喜。作麼生是人天忻喜處？良因此院傳燈失緒，萬事灰頽；適當剝而云復，否極泰來。今一旦而感郡侯大護法起再造之深仁，闔郡紳衿檀越興惻憶之厚德，諸山耆舊懷不忍之盛心，啟請山僧兼主斯院，演最上乘。山僧只得順水行船，隨波鼓棹，塗胭抹粉一上，任般酬酢。且道是翻舊案、整新條耶？是建法幢、立宗旨耶？是酬檀信、表護念耶？」良久卓拄杖云：「皇風廣沛輝朝野，佛日重輪耀祖燈。」

慶堂上座為嚴師入塔請上堂。問：「威音劫外，父母未生。這點靈光，從何處發？」師云：「風雨逐時節。」進云：「既生已後，大限若窮，又向何處去？」師云：「日月應昇恒。」進云：「建法筵，設勝會。報師恩，表檀信。圓滿後又作麼生？」師云：「蓮開九品，桂蔭雙株。」乃云：「策杖崔嵬興趣賒，穿雲透霧澤交加。圓因圓果理全備，覺已覺他事靡涯。報德應須弘法利，酬恩尤意燦心花。我來徵驗主中主，始信風流足富家。阿那個是風流足富邊事？」舉：「曹山問紙衣道者：『如何是紙衣？』者云：『一裘纔挂體，萬法悉皆如。』山云：『如何是紙衣下事？』者應諾諾，便爾趨寂。山遂撫之曰：『汝只解恁麼去，不解恁麼來。』者開目問曰：『一靈真性，不假胞胎時如何？』山云：『未是妙。』者云：『如何是妙？』山云：『不借借。』諸仁者，倘于這裏親證一回，匪特恒心耆舊脫體逍遙，慶堂上座全身擔荷，致令過去底秘密圓覺證入圓覺，現在底具足圓覺住持圓覺，未來底荷擔圓覺守護圓覺。

即今一會，乃真乃俗，若存若亡，情與無情，人非人等，莫不具斯圓覺之體，發斯圓覺之用。雖然，設有個不屬圓覺，不屬過去，不屬現在，不屬未來，作麼與伊打當？」豎拄杖云：「揮如意，墜天花。撫箜篌，飛雪霰。一輪燦爛影婆娑，婆舌婆心巧方便。」卓一卓。

倚天山千江化土募眾裝普賢聖像成請，上堂豎拄杖云：「鼎構名山勝境，鑿鋤獨斧務要鋒銳；開鑿人天正眼，智劍慧刀必須猛利。紅爐經鍛煉，鈍鐵頑銅悉爾銷爍；裁成歸巧手，布漆沙泥咸放光明。所以古人云：『我以普賢殊勝行，無邊勝福皆回向。普願沉溺諸眾生，速往無量光佛刹。』」恁般說話，須是順硃填墨。山僧今日卻與抹粉塗胭：『我以普賢殊勝行』，在菴斯案創伊始，千江厥果功甫備；『無邊勝福皆回向』，高低嶽瀆，共轉根本法輪，大小麟毛，普現色身三昧；『普願沉溺諸眾生』，長者長法身，短者短法身，拾金原是窖金人；『速往無量光佛刹』，應以宰官、將軍身得度者，即皆現之而為說法，應以婆羅門、居士、婦女等身得度者，即皆現之而為說法，應以比丘、比丘尼身得度者，即皆現之而為說法。況值天官錫福，適當火樹燦煌。在在莊嚴毘盧性海，頭頭共證普賢勝行。因甚又道『善財童子過不可說不可說世界而猶不知普賢一毛孔中事』？試問即今在會諸仁者，還知普賢毛孔中事也麼？」良久云：「刹那閱歷億千劫，彈指圓成八萬門。」

送慶忠老人舍利下江南，辭院。上堂：「三十餘年前住此腦門著地，三十餘年後去此腳板朝天。腦門著地，竹木土石盡發光明；腳板朝天，山水煙雲悉增耀麗。所以道，去是住之因，住是去之果。去住果因周，萬物備于我。備于我，卒未休去住；返觀我，縱橫得自由。作麼生說個去住自由底道理？昔釋迦如來雙樹煙飛之後，收取舍利八斛四斗，後為鐵輪天子役諸鬼神造成八萬四千寶塔，遂問耶舍尊者安置之方，尊者乃豎五指，放八萬四千光，隨光盡處各安一座，我震旦國中只落九所。吾師舍利不減其數，幸值金輪現瑞，象寶呈祥，不欲震威乃服，遣使歸降，直令望風順化。夫如是，匪特草木沙礫咸獲禎嘉，則河山界海在在遍滿。雖然，且道響應在甚麼處？」良久云：「修篁萬個沖霄斗，嫩桂千株蔭滿庭。鳳閣龍樓頻指顧，皇圖佛日永昭熒。」

普陀法雨和尚齎敕黃到寺，改治平為振宗，名祖塔為妙光。謝恩上堂，拈香畢，僧問：「皇風浩蕩，四海謳歌。今幸普陀和尚光輝祖室，奏請御額。和尚如何報稱？」師云：「波斯鼻孔吼如雷。」進云：「聚雲門庭，四代丕興。忽遇上上人來時如何？」師云：「龍庭俯坐展宸恩。」進云：「中下人來時如何？」師云：「探花仍作探花郎。」進云：「猶有一人呵呵大笑，和尚作麼生接？」師震威

一喝，進云：「恁麼則天上天下稱尊去也。」師云：「遙祝萬壽以無疆。」乃拈敕黃云：「天書頒自九重城，敕下咸令六合清。二諦嵩呼輝梵苑，三生應感沐鴻恩。金輪鞏固重輪美，玉葉榮敷奕葉芬。法雨頻滋無限意，須彌壽量衍昇恒。茲乃法雨和尚一段輝煌祖室，惇誠報本榮親之至誼。致令法院獲振宗之美，罕堵顯妙光之譽，報慈有添籌之懿。即今敕黃遠降，光賁山林，闔郡文武宰官紳衿四眾雲集振宗，(臣)僧幻敏畢竟謝恩讚祝一句又作麼生道？」安敕黃云：「祖佛忻騰蘭桂永，地交天泰海山銘。」

豐之周居士啟法名請，上堂問答畢，乃云：「佛法在世間，不離世間覺。離世覓菩提，恰如求兔角。兔角杖，龜毛拂，運用施為無不足。無足足處快承當，壽者壽兮福者福。云何為壽？甚麼作福？」喝一喝云：「豐之性任聖賢心，曇蔭芬芳馨永馥。」

佛誕眾姓供燈啟名請，上堂豎拄杖云：「一華百億國，一國一釋迦。各坐菩提樹，一時成佛道。斯乃證道邊事，即今降生又作麼生？不計程途，寧列功課。比玉之無瑕，若金之試火。梅雨灑群靈，曇花飄寶座。事事靡由他，頭頭唯在我。一我二我萬億我，恒河沙數莫能窮，微塵刹土咸安妥。」舉乾峰上堂公案，師云：「古人雖是機扣乘時，怎如振宗權實雙具？啟名底樂利亨嘉，誘引底壽祿齊備。若文若武，真諦俗諦，個個歡欣，行行溥濟。」喝一喝云：「各各長明智慧燈，人人永證菩提記。」

小參

審戒小參，舉古德云：「有二比丘犯姪殺，波離雲光增罪業。維摩大士為指陳，猶如赫日消冰雪。」師云：「古人恁麼道，雖是截長補短，然而捨重從輕。治平今日又且如何？有過須應改，無功勿妄陳。功過兩不立，衣鉢自繩繩。恁麼批判，與古人相去多少？」喝一喝云：「龍蛇易辯，衲子難瞞。」

乾一禪人對靈小參：「幼而離塵，壯則參師，得失無關，智行頗齊，性直言直，終始如之，此是禪人生平踐履處。來不占天，去不占地，三昧水中，一場遊戲，此是禪人臨行撇脫偈。且道不終不始，無來無去一句又作麼生？」畫○相云：「此夜一輪隱，清光何處無。」

微明上座對靈小參：「祖室維新，至願未已，遽爾云歸，似憂似喜。作麼憂？法門涼薄孰與儔。作麼喜？樂邦勝友尋芳侶。芳侶相逢話轉長，一曲無生樂未央。」喝一喝云：「蓮胎切忌頻耽著，還期點雪貴當陽。」

桂輪和尚應九小參。昔九峰乾為石霜和尚侍者。霜入滅，眾舉首座以繼住持。峰云：「待驗過方可。」乃云：「先師道：『休去，歇去，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一條白練去。』未審明甚麼邊事？」座云：「明一色邊事。」峰不肯，座云：「裝香來。香煙起處某坐脫不得，則不會先師意。」裝香來，首座遽爾坐脫。峰乃撫背云：「坐脫立亡即不無，先師意未夢見在。」師云：「九峰雖是逼生蛇化活龍，致令首座連棗匄圖吞，怎似我桂輪和尚執侍聚雲老師翁，又侍慶忠先老人，可謂高起前哲，獨步先賢，一念萬年，恒久不變。茲乃首九之期，治平到來無以為念，且道畢竟親承入室一句又作麼生？」良久畫○相云：「流水不翻金碧浪，一輪孤朗海中樓。」

石砮宣慰沈太夫人仙遊，司君馬公請對靈小參。拈拂子畫○相云：「還見麼？治平月，南濱水，兩兩相將，互映終始。作麼生說個終始互映底道理？如我司君大護法慈母沈太夫人，具大福德，發大信心，皈依三寶，敬重大乘，數十年來，一毫無間，于我法門可謂世叨弘護，歷荷檀施。條聞一旦仙遊，是以山僧踏雪登山，拖泥帶水，特特到來，畢竟有何叮囑？昔日七賢女遊逝多林，一女曰：『屍在者裏，人向甚麼處去？』一女曰：『作麼作麼？』諸姊諦觀，各各契悟。感帝釋散花，欲留供養。諸姊曰：『我家四事七珍，悉皆具足。唯要三般物：一要無根樹一株，二要無陰地一片，三要叫不響山谷一所。』帝釋曰：『一切所須，悉皆供給。若三般物，我實無有。』諸姊曰：『汝若無此，爭解濟人？』者個公案至今誠為不了，山僧特為表出：無根樹蔭無憂瑞，無陰陽地最堅牢；不響山谷無虛應，始信圓通顯現饒。恁麼告報，且道太夫人一靈真

性，與諸賢姊脫體逍遙，穩步蓮階去也無？」良久復畫

劉將軍對靈小參：「補天浴日勳愈著，福國裕民澤倍殷。自是龍圖親帶礪，森森蘭桂享芳榮。此是我劉公大將軍生平血力，精忠冠世處。且道即今一靈真性又向甚麼處安身立命？」良久撫棺三下云：

「謾戀蓮胎親八德，早承佛記悟三生。」

審戒小參，舉古德云：「心地無貪自性戒，心地無嗔自性定，心地無痴自性慧。不增不減白金剛，身去身來常三昧。如鳥空中只麼飛，無取無捨無憎愛。觸境但似水無心，在世縱橫有何事？若會應處本無情，始得名為觀自在。」師云：「這話只解順水推船，未識逆風把柁。不見三祖啟二祖曰：『弟子身患諸苦，乞師懺罪。』二祖云：『將罪來與汝懺。』三祖良久曰：『覓罪了不可得。』二祖云：『與汝懺罪竟。』于斯領略，更有甚麼輕垢難遮？倘或遲疑

再示一偈：罪福俱空空亦空，無心繩子繫虛空；凍嶺梅英香噴鼻，從教雪火一爐紅。」

太皇太后哀詔至，設供小參：「大根大器大力量，荷擔大事不尋常。一毛頭上露消息，遍界明明不覆藏。那裏是不覆藏處？所謂聖量如空不可思議，聖德如空不可思議，聖智如空不可思議，聖慧如空不可思議，聖肯如空不可思議，聖徹如空不可思議，聖慈如空不可思議，聖澤如空不可思議。既叨荷如斯不可思議覆幬之德，即今太皇太后哀詔遍聞，(臣)僧雖屬方衣，畢竟以何報荅？」良久，焚香爐中云：「慈靈乘願歸安養，蘭桂永馨蔭索訶。」白雲菴在旦耆宿對靈小參：「憶昔南濱初邁時，溫風和氣已深知。別來青黃猶未紀，烽煙火燧幾奔馳。惟有素履常不變，古道古心恒自持。因思本源歸故里，如幻幢幡在處起。剎竿相望仰興隆，振起本地舊家風。誰知一旦西風急，摧殘木葉歸根息。歸根得旨復何言，嚴華法界總現前。來我治平酬夙願，樓閣門開是幾年。既爾華藏莊嚴，樓閣門開，且道善財童子與白雲比丘，共履一百一十遊城，參禮五十三員知識，今日畢竟以何為驗？」良久云：「在在圓成華藏海，頭頭頓證毘盧印。」

覺菴上座披剃小參：「丈夫氣慨，決烈堅剛。一塵不挂，直下承當。且道承當後又作麼生？」良久云：「自度度人度一切，還期界海作津梁。」

應真法兄和尚對真小參：「祖室維新悲願周，餐風沐雨建徽猷。到頭雲月清光靄，結角松蘿素影浮。古觀峰高潛白鷺，珍珠簾捲臥泥牛。我來欲問抽身句，雨灑山花淚點頭。恁麼告報是表法誼耶？全鄉曲耶？」良久云：「分燈續焰勿忘囑，雲根积水一毫收。」

審戒小參：「假借四大以為身，心本無生因境有。前境若無心亦忘，罪福如幻起亦滅。此是先佛為汝等示出百尺竿頭，山僧今為汝等更進一步：『假借四大以為身』，離婆離婆帝；『心本無生因境有』，求訶求訶諦；『前境若無心亦忘』，陀囉尼諦尼訶囉諦；『罪福如幻起亦滅』，毘尼揭諦真寧乾諦娑訶。雖然進步竿頭，山僧再為汝等洗雪一上。」乃舉：「僧問長沙岑和尚：『如何轉山河大地歸自己去？』岑曰：『如何轉自己成山河大地去？』僧曰：『不會。』岑曰：『湖南城下好養民，米賤柴多足四鄰。』僧無語，岑示偈曰：『誰問山河轉，山河轉向誰？圓通無兩畔，法性本無歸。』汝等于斯領略，有何罪福犯持？其或未然，當初只道茅長短，燒了方知地不平。」

含波禪人為大川和尚畢九設供請小參：「地水火風，均名四大。機思稍遲，未免滯挂。若一念不疑，地不能礙；若一念不愛，水不能溺；若一念不瞋，火不能燒；若一念不喜，風不能飄。如此即是無

依道人。佛從無依生，若悟無依，佛亦不立。者般說話，可謂稱水和泥，治平今日更須泥裏洗土。何也？大川和尚于無方一時四大分解，師資遠隔，含波禪人特到治平，欲詣報惠酬恩，遽爾四大乖和，弗獲從心，值茲畢九之期，恭就祖堂，耑設清供，禮請山僧代為表荅。且道師資會聚，祖孫一堂，畢竟有何話會？」良久云：「依離聚散了無關，親炙遙陳總一般。悲願勿忘勤祖室，烈焰爐中涌雪團。」

輔爵昆玉薦嚴請小參。化人詰陽燄。谷響荅潮涼。一切法如幻。罪福本來空。既是罪福皆空諸法如幻。且道孝士周輔爵昆玉這段報本哀悃。何所表荅。山僧代為以空拶空以幻立幻去也。那裏是以空拶空響。居官一品未為榮。食粟萬鐘奚足富。去住亨貞功德齊。丈夫意氣迥超卓。那裏是以幻立幻森森蘭桂滿庭芳。斑斑玉筍沿階聚。哭送斜陽欲恨誰。男兒各具冲天志者些且置。試問諸人即今鳳宇居士音容儼在。且道一靈真性在甚麼處。諸人若于者個關頭諦當分明。匪特先靈有據孝悃得伸。目前在會諸人乃宗乃祖若冤若親一時普薦作麼普薦響。良久云石人含笑覓知音。木馬遊程不記春。遺澤孝慈津濟遠。應時納祐蟄雷轟。喝一喝。

文學佑臣薦嚴請小參。師豎拄杖云大道在目前。水是水山是山。玄機超物外。佛非佛凡非凡。恁麼薦得。一味生擒活捉。百般大用。天然去住迴離回互。生死了不相關。任爾奴呼十聖。從教婢喚三賢。其或未然山僧述而不作。信而好古。竊比于我老彭。乃舉陸互大夫問南泉和尚。弟子家中有片石或時坐或時臥欲鑄作佛得否。泉曰得。大夫曰莫不得否。泉曰不得。雲巖晟拈云。坐即佛。不坐即非佛。洞山价曰。不坐即佛。坐即非佛。天童覺曰。轉功就位轉位就功。雖是洞山父子始得。且南泉意作麼生直是鍼錐不入。師云洞山父子轉功就位。致令天童路見不平。只得南泉針錐不入。即今文學范佑臣父子轉位就功。山僧未免敷演伽陀。重宣斯義。追感先靈意志慙。思酬罔極啟無生。月中丹桂和雲拔。火裏青蓮帶露擎。七日喜聯七夕巧。九品協應九階瑩。泥牛木馬咸歌唱。遺澤餘光蔭滿庭。雖然如是。且道不涉功位一句又作麼生。良久卓拄杖云。唵摩尼莎發吒度嚕伽多嚩。

宣慰司君馬公對靈小參。六十年前先師以無上心印一印印定。我公大護法即以如幻三昧兩諦親承。赤肩擔荷是以六十年來。用斯三昧忠君孝親存篤敬。逃禪味道適慙慙。用斯三昧操觚染翰珠璣落。酌酒敲詩星斗零。用斯三昧蔭子榮孫芳世澤。老安少敬樂亨貞。用斯三昧植梨蘭桂斑斑美。河帶山銘在在新。者是我公如幻履踐。目今六十年後。治平越歷關山。特特到此畢竟如何以表來意。良久云法

源世誼兩相關。帶水拖泥詎等閒。海印金章頻煥發。嘉聲千古播人寰。

止水禪人小參。畢一生行苦功勤。值終身方袍圓頂。胡期一旦遽亡羊。真俗惶惶心未泯。山僧今為爾攸分。慎勿抱鏡而狂騁。謂爾為擲錫騰空不見鐸聲振醒謂爾為人石穿山遍覓茫無隱。疹幽邃寒霜謾棲其。荒林埜吹須猛省。生死罪福等空花。去住因緣如電影。止歸方寸戒珠圓。水淨寒潭孤月炯。既是珠現月明。今日山僧更有甚麼叮囑畫[○@水]相云。相空空相兩忘緣。纖塵涓滴歸予艇。復作撐篙勢云。渡來渡來。審戒小參。假有原非有。真空本不空。空假齊坐斷。雪火一爐紅。紅爐雪點快乘機。正是梅香噴鼻時。噴鼻梅花香九九。應時及節頗相宜。作麼生是應時及節。昔僧參一尊宿纔展臥具宿云。不用通時暄。還我文彩未彰時道理來。僧云某甲有口啞卻。即得苦死。覓個臘月扇子作麼。宿作打勢。僧把住拄杖云。還我未拈棒時道理。宿云隨我者隨之南北。不隨我者苦住東西。僧云隨與不隨且置。請師拈出南北東西。宿便打。師云即今看來這棒未嘗有著落。這話未曾有折角。文彩未彰時已自帶齒黏牙。棒喝未施處早已傷鋒犯鏢。爭似治平今日輕重遮難潛消大小根塵殞。穫一味哆哆啾啾。百般灑灑脫脫。為甚麼。迴卓犖喝一喝云。彩鳳五色毛。祥麟一隻角。

文學李克俊昆玉薦嚴請小參。豎拄杖云。這個本無來去。生死了不相關。鴈過長空掉影。月沉寒水輝淵。所以道一圓一切圓。不待水銀墮地。一覺一切覺。豈容古鏡重研。作麼生說個一圓一切圓。一覺一切覺底道理。乃舉樞密師川徐公侍父龍圖謁法昌靈源和尚論道。終日公聞之藐如也。後法昌和尚于談笑間坐脫。公異之。始篤信及。丁父憂念無以報罔極。乃請靈源和尚就孝址說法。源陞座問荅畢。乃曰諸仁者只如龍圖讀萬卷書。如水傳器涓滴不移。尋常著在甚麼處。即今捨識之後。這萬卷書又向甚麼處著。公于座下灑然自得。遂曰吾無恨矣。源下座問曰。學士見個甚麼道理便恁麼道。公曰若有所見則鈍滯和尚去也。源曰恁麼則老僧不如。公曰和尚是何心行。源乃大笑。這個公案恰恰符同。何也。相輔檀越在日。每常對山僧云。持誦般若文學昆玉亦未嘗知。今請對靈址演說般若。山僧不必問其心持萬卷德積千鍾。一味惟斯阿伽陀十二時中安樂禁匪特文學昆玉灑然自得哀恨殞銷。頓令過去椿嚴逍遙極樂。現存萱慈亨吉庭幃益俾。即今一會諸人若存若歿。莫不交光相錯。撒手舒徐為甚這般靈應。擊拄杖云。木人抱板雲中拍。石女將笙劫外吹。德器敷盈于海印。芳英懿美遍寰區。

奇秀孫居士請為母王道人對靈小參。見聞如幻瞥。三界若空華。聞復瞥根除。塵消覺圓淨。淨極光通達。寂照含空裏。卻來觀世間。

猶如夢中事。高聲喚云。王道人汝還知非夢非幻即假即真。無去無來不變不更底道理麼。良久畫○云。事佛精勤數十秋。純清絕點果因周。一輪寶鑑旋元發。桂馥蘭芳蔭百秋。

愚若賢座除薦二親請小參。萬里離師為報親。冀酬罔極啟能仁。蓼莪慚誦哀哀切。貝葉弘敷法利殷。昨夜明星光皎潔。今朝紫臂影飛騰。應時協節無差互。洵是因真果亦深。山僧既應其請。今值佛成道之晨。作麼生說個因真果實底道理。昔大孝釋迦如來初生七日。其母摩耶夫人便生忉利。迨後睹星悟道。乃上昇忉利天宮為母說法。以助往生卓越之因。又慈明和尚幼歲披緇。一日持銀盤為母氏壽。母曰子盡棄所愛而出家。今返持此以獻將累我於地下矣。慈明自爾奮志參方。竟為一代大宗匠。蓋慈母警發也。用是觀之。全在子之盡心於道。以光像季法輪正。不在父母之賢否也。苟摩耶之聖而悉達不能持堅固願力為大法王。安有佛母之名流傳于他方此土哉。茲者愚若賢座。不上忉利就園廬以資薦雙親。不持銀盤效營盆飯眾。而超度考妣。恁般行履且道與大孝能仁慈明老漢個中還有優劣也無。以拂子畫○云。親疏普利安蓮土。真俗同盟振祖猷。

示眾

示眾舉雪竇和尚偈云。客從遠方來。遺我徑寸璧。中有四個字。字字無人識。佛鑑和尚云。客從遠方來。遺我徑寸璧。中有四個字。不必重拈出。高峰和尚云。客從遠方來。遺我徑寸璧。中有四個字。字字無平仄。山僧今示一偈。人從東廁來。卻往西廚去。拾個乾矢橛。爛嚼甜如蜜。試問汝等還知滋味麼。如或未知。次第出班領取。

考功示眾。古德道句中意意中句。須彌聳于巨川。句鏟意意鏟句。烈士發乎狂矢。祇待牙如劍樹口似血盆。徒騁玄鋒虛張意氣。所以淨名杜口早屬繁詞。摩竭掩室已揚家醜。自餘從上老古錐。尤向孤峰頂上挈雲吐霧。翫弄神機。腳跟下各與三十。且道過在什麼處。機關不是韓光作。莫把胸襟當等閒。古德既如斯道。山僧又恁麼舉。且道是激揚先德。是鼓厲後昆。良久喝一喝云。菩薩蠻行香子。雙雙隊隊釣錦鯉。

示眾。昨宵香罷驗禪人。蟬噪蛙鳴驚眾群。為甚春初行秋令。六月炎炎火煉冰。又道踏著秤錘原是鐵。是鐵是銅迴未分。哆哆啞啞剛一會。掉背踏翻明月村。倦來擬把雙眸合。雷雨交參應候臨。鐘鼓頻敲方暫止。板首壁爆三四聲。為是聲來耳邊過。為是耳向聲中尋。莫是顯唱濟宗旨。賓看主來主看賓。縱奪料揀潛施設。照用棒

喝暗相陳。如斯一一親領略。可謂體佛向上人。荊棘林中撒手過。夜明簾外縱步行。山僧今特為舉示。從教冤債自分明。考功示眾。舉興化為克賓維那曰。汝不久當為唱導之師。賓曰不入者保社。化曰會了不入不會不入。賓曰總不與麼。化便打曰。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作饋飯一堂。次日克賓自白槌門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作饋飯一堂。仍須出院雲居。舜和尚曰然則大冶精金應無變色。爭奈興化令行大嚴。若不是克賓大難承當。總似而今泛泛之徒。翻轉面皮多少時也。大慧老祖曰雲居恁麼批判。未免拗曲作直。徑山則不然。要作臨濟烜赫兒孫。須是翻轉面皮始得。師云然則興化師資法令如斯行。諸老又恁麼斷。山僧今又如斯舉。汝等還是覲面承當底是。翻轉面皮底是。是又是個甚麼。良久擊禪床云。易分雪裏粉。難辯墨中煤。

示眾。舉古德云。他人住處我不住。他人行處我不行。不是與人難共聚。大都緇素要分明。大慧祖云。他人住處我亦住。他人行處我亦行。瞥喜瞥瞋何所事。新羅日午打三更。師云。治平亦有一偈。他人住處勿貪程。他人行處莫躲跟。分得分明太忒殺。分明分得忒煞人。恁麼告報且道與古人相去多少。喝一喝云。綠竹叢中棲彩鳳。桃花浪裏躍金鱗。

鑄鐘示眾。二儀作鼎爐。兩輪為冶煉。橐兮籥兮扇鼓風雷。安那般那恬息智焰。一切堅礙倩爾銷融。萬種昏蒙賴伊燦煥。九疇八卦由此發生。五音六律憑斯應現。上窮阿膩巔頂。下徹波吒底岸。動湧激震吼遍。妙應觀音巧方便。且道根塵不偶。觀聽旋元一句又作麼生。良久喝一喝云。洪聲朗徹三千界。大器包含八萬門。

示眾。古德云天生一穴藏吾枯骨。骨朽成土土能生物。結個葫蘆挂趙州壁永脫輪迴。超三世佛。山僧則不然。穴從何生。骨向甚出。那塊屬土。若個是物。葫蘆架懸趙州壁。突頓斷輪迴撲翻魔佛。恁麼道與古人相去多少。三九五十三。六八四千六。

示眾。拈花微笑千載繫驢橛。斷臂安心萬代葛藤。窩自餘甚麼爛冬瓜。破沙盆。到底洗雪不淨。又復搬出七斤衫。一口劍。至今擒縱難舒。其間機分萬狀派列五宗。總是陳年滯貨。求售莫由惹起。一夥賽寶鬥富底鬩無休摩娑靡罄用為仰五百星辰一齊下。從教如象又如馬。騁臨濟閭淡灘頭。拴赤鯉迷魂陣上。閃紅旗。顯雲門。東海巨鰲眉濺血。南山焦尾舌抽魂。法曹洞。烏雞嚙雪火星飛。玉兔吞煤石蟹舞。展法眼。大地山河絕點塵。清風皓月無收管。看來真個是。趨炎赴熱人皆厭。事到頭來不自由。山僧今為一筆勾。下免教辜負海漚。

送慶忠老人舍利下兩浙辭院示眾。仰彌高鑽彌堅。瞻在前忽在後。木雞啼華鯨吼。雖則公案現成。卻落些兒窠臼。那裏是落窠臼處。

香林四十年始得打成一片。死守聊城。南泉牧牛數十春秋。鞭繩忒短。趙州三十年不雜用心。唐喪目前。古人這些行腳故是擲斤播兩。未免頭露尾藏。爭如山僧住茲將四十載。一味痴痴訥訥百般濟濟。木頭竹屑沿壁塗紅抹白。泥團土塊滿座金碧輝煌。任他許多紛鬧于己毫沒囊藏。昔年曾染小恙。偶拈一偈略張乃曰。一番白布單蓋將四十年。今日搥破了免罰饋飯錢。語雖戲句。情有感傷。不感世路之失倫失緒。惟冀祖席之毋弛毋荒。恒將塔傍規石日砥日礪。每臨磬銘鐘誡時體時詳。趨向母焚檀糶炭裁成忌衣轉為裳。操修靡效。客作出處休類牙行。佛祖門庭莫混濫。先人面目謾改常。因果倘不顧忌。憲網定是昭彰。不忍言射影含沙刺疾。難堪見火床肉地堅長。初祖遇毒明矣。思師立誓誠良。以茲看來然則作斯堂者必有損益。住斯院者詎免否臧。當法琴瑟琵琶頭角毋懷。魑魅魍魎肝腸尤冀。具一肩擔荷。慎毋示兩袒革囊。現鳳毛麟趾貞兆。泯獅蟲驢腳行藏。斷文殊劍以破高堅前後之公案。折普賢杖用驅雞啼鯨吼啾惶。四恩賴以普報。三寶於是輝揚。不解腳跟掉轉。定遭爐炭鑊湯。試問諸仁者。爐炭鑊湯裏還有安身處也無。良久云。款乃一聲奪賽彩。郵程萬里獲徵祥。

鑄鐘垂誡示眾。新供燈田業非一主。邊界交參務須照契。鑄鑄確為遠久定規。雖曰供佛濟眾之恒產。乃屬十方龍天之常住。抑先人道德感招之所致耳。凡住斯院執斯事者。毋以一絲一粟妄授私侵。毋以針芥毫毛徇情予奪。毋耽異味另爨私煎。毋隱眾園什物顧舊滋親。自招片紙疋絹之酬截舌耕犁之報凡辦斯庄直斯歲者。毋以石斗升合曲情瞞昧。毋以塊石簣土潛為易移。毋以寸田尺地陰相侵凌。毋以園林竹樹不語伐斫。致遭豬首驢腳之形毛癩壓油之殃。凡護此院悉斯檀者。毋嗜酒葷貨殖互為恣牽。毋取苞苴逢迎交相狎近。不持空杯有犯自爾飭誡無違。必感五桂三錫之禎祥。編竹還帶之響應。夫如是則僧眾遵佛制祖規。竭力精修以報荅四恩檀信。秉靈山之遺囑慤勤崇信而護助三寶常為祝國保境之福田。永作明心見性之淨土。倘或故違。伽藍昭鑑。

方廣禪院示眾。萬聚山般般具足。方廣院法法圓成。都來恒布福慧田。自是永歸華藏海。意其運轉隨機。必也舒陳有據。示一境而諸緣合輒。立一法以萬彙協符。智行雙彰。長子少男落節權實並顯。屠兒龍女失威大人境界。互圓通末代招提宜規畫。雖住山拄杖不假莊嚴。然建化門庭尤貴施設。理無二致事有千差。差之毫釐失之千里。諦觀斯院先賢。上達後裔下馳良由。岐路亡羊。頓令宗綱失緒。聞戒多持戒少之嚴警。覽者自當心寒。承恩易報恩難之佳訓。聆之益令身慄。憶其為棟為梁必焉。可法可則昔也應朝聘錫紫衣辭帝闕樂山居遂受施姓布金之請。開茲石窩方廣之場。三關險峻驗盡

四海。英靈一眾傾誠換回博地風月。兩州郡宰肅皈依。十方善信虔拱伏。可云盛矣。迨後襲僧首冠諸山城衙山舍任安居紳士名人咸衛護。亦謂優歟。詎知獅絃艱續水乳易參兼值劫火燔燎。僧眾零落。遂致常住頽圯之若斯。尤幸剝而云復。感八十有六老僧之勤懇。崇祈郡侯再造之弘仁。是以闔郡紳衿檀越以見憐諸山耆艾禪德。懷不忍爰興繼絕舉廢之詞。惻隱撫恤之勸。諄延山埜兩院兼主一肩擔荷。第深思熟揣德涼才淺難堪是責。總以不忍之心輿議難卻。只得勉應其誠。螳臂于斯矧其間漏弊。日久弗辭。口業叮嚀俾整先賢之懿範。聿開人天之正眼。令佛制祖規以不磨。檀護僧行而不濫。端肅儀型彰陳條例。不許另爨私食取截舌報。不許種植五辛穢污伽藍。不許茹葷飲酒墜墮沸尿。不許蓄養孳牲販賣經營。不許私赴念誦常住不勤。不許竹木風水斫伐徇情。不許針芥絲粟顧舊滋親。不許僧俗串結苞苴妄行。不許常住邊界寸土私侵非吊慰應請學行散眾。不許獨過俗門非歲臘節會老幼婦女。不許擅入叢林。已上略述數款務須一一遵行。依之者緇素蘭芳桂秀。違之者稚耄活陷生沉。因果毫忽不爽。報應時刻有徵。體斯真操實履確為後學準繩。四恩由斯普報。三有賴是資薰。更有末後一句慇懃拭望。諸人。那裏是慇懃處。六度誓勤光佛日。四洪願切衍心燈。

茶話

小除茶話。古德云五蘊山頭有一片放光石。從眼門放光照見山河大地。從耳門放光採聽一切音響。從鼻門放光通聞一切香臭。從口門放光出納一切語言。祇是被無名執著二種籠絡。雖在光天化日之下。猶然黑暗不自覺知。倘有智者善將此石鑄作一尊古佛。不但觀音勢至文殊普賢齊來唱和。即過去莊嚴劫。現在仁賢劫。未來星宿劫。三世諸佛同聲讚揚。汝等若於行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行佛。于住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住佛。于坐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坐佛。于臥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臥佛。于斯薦得分明。乃至一切折旋俯仰悉皆放光動地。其或未然。只待汝等洗面摸著鼻孔。喫飯啞著舌頭。經行撞著露柱。飲茶盪著口唇。呸。原來這個就是說話之頭。方知古德亦非誑語。山僧不是口業。始信道大盡必然三十日。小除原是廿四期。送舊迎新何所事。一聲爆竹應時機。喝一喝。

檀信請茶話。舉長髭曠禪師有僧為點茶三巡後便問。不負從上諸聖。如何是長髭第一句。曠曰有口不能言。僧曰為什麼有口不能言。曠乃頌曰石獅子木女兒。第一句諸佛機。言不得。也大奇。直下是。莫狐疑。良久云。是第一句第二句。僧曰不一不二。曠曰見

利亡錐猶自多在。僧禮拜曠拈起盞子曰。直下不負從上諸聖。僧曰直指人心見性成佛又作麼生。曠放下盞子便歸方丈。僧隨後入。曠翹一足曰。大地不容鍼。汝從何處來。僧曰直是維摩也鍼口不得。曠曰偶示之間又逢猛虎。僧作虎聲。曠以拄杖作亞鎗勢。僧卻把住曰。大地不容鍼何處得這個來。曠曰不但維摩。文殊也鍼口不得。僧曰著箭虎不可當。曠與一掌推出方丈。後老宿頌曰。是精識精。是賊識賊。猛虎驚蛇。釋迦彌勒。觀音勢至。寒山拾得。一盞清泉古今規則。師云既是為規為則。且道即今一會釋迦彌勒胥臨。觀音勢至咸聚。寒山拾得安處。矧其羅列滿盤斑濟闔席稚壯共飲鹹淡同餐規則又在于何。復舉鍾云七碗快酬且隨分。千杯酣醉謾同流。茶話舉馬頰山本空禪師垂語云。祇這施為動轉還合得本來祖翁麼。若合得十二時中無虛棄道理。若合不得喫茶說話往往喚作茶話在。僧便問如何免得不成茶話去。空曰汝識得口也未。僧曰如何是口。空曰兩片皮也不識。僧曰如何是本來祖翁。空曰大眾前不要牽爺恃娘。僧曰大眾忻然去也。空曰你點大眾性看。僧作禮。空曰伊往往道一性一切性在。僧欲進語。空曰辜負平生行腳眼。後南堂頌曰。參禪學道莫匆匆。動轉無非觸祖翁。口在面門猶不見。喫茶清話故難通。水中鹽味如相似。色裏膠青信不空。欲得不招無間業。莫將情解謗宗風。師曰恁般拈弄雖是應機而發。其間兩兩有些滯搭。是何滯搭。舉措匆匆。動觸祖翁。水鹽味似。膠色不空。且道還落情解不落情解。是謗宗風不謗宗風。良久撫案云。竹凜嚴霜枝逾茂。樹沾春露葉更濃。

弟子性燦徒空(五 六)捐衣貲刊刻

老和尚語錄第二卷

竺峰敏禪師語錄卷之二終

機緣

師與童真善和尚同庚年方十三。一日慶忠老人入堂圍火指火命善偈。善曰。赤光閃灼。紫焰盤旋。既能點雪。又燦金蓮。忠打善一掌歸方丈。復指燈命師作偈。師曰光如閃電虛空可徹。未來作燈是銅是鐵。時三日老人見之徵曰是銅是鐵。師曰火裏波浪起。忠異之問汝名甚麼。師曰幻敏。忠曰幻敏已前。師曰海底青天外。忠曰幻敏已後。師曰佛法永無窮。忠曰甚麼處見。師曰靈峰山下在安期。目曰期解後如何。師曰虛空大地。目曰落在甚處。師頓足。目曰有足頓無足頓個甚麼。師曰和尚也莫太認真。忠大笑。目復問善。善曰火裏煉真金。忠曰大眾何不看二沙彌這般答話。

師閱經次慶忠老人曰。眼中常見如是。經典只這便是。為復別有。師曰和尚只須恁麼會。忠曰離卻紙墨道將來。師曰東邊風也不多。忠曰這小師。

師自五雲歸。忠問曰聞汝慣打人。師曰和尚仔細。忠曰汝走路穿甚麼。師曰草鞋。忠曰擰牙生也未。師翹一足。忠曰那個擰。師曰問者話作麼。忠曰三空說汝掌他要將汝來處治。師曰早與他說過了也。忠曰作麼生說。師曰盜一賠九。

高峰和尚問師麻三斤意旨如何。師云說破不值錢。峰云如何是佛。師云石香爐。峰云脫體道一句來。師云這殿二百年。

師問僧汝昔住楞伽山來。僧云曾住。師云楞伽有個夜叉王。汝得見麼。僧云時時使用。師云大慧菩薩當機一百八問汝盡領略不。僧云不信道。師云此是一百八問前一八問後底。僧云莫莫莫。師云花如解語傍人笑。草不知名隨意生。

佛事

挂鐘

豎拄杖云。金闍黎木上座。吾今為汝定功課。晨昏緩急毋違時。晝夜循環靡間錯。三百六十運周天。八萬四千興妙覺。大扣大應小扣小應。如萬籟之鼓吹。高處高平低處低平。若諸源之匯合。文經武緯恩命隆。坐賈行商利樂大。苦輪烽燧悉殞忘。梵鐸鉤聲總超卓。以拄杖三擊云。唯斯輕敲重擊莫輕瞞。人人證取古觀音一座。

入關

盡大地是伽藍。有何關鍵遍法界為禪塌。迴絕遮攔。恁麼恁麼兔角杖挑潭底月。不恁麼不恁麼龜毛繩繫須彌風。既如斯何故又作這段行藏。良因一向今時。不免追求古道。高峰掩關三十餘載。低低處看之不足。南泉牧牛數十春秋。高高處平之有餘。看來看來真個真個。怎如今日一齊收歸治平無論山巖林壑不拘年月時期。雖然且道關內人還知關外事麼。卓拄杖云。夜深不向蘆灣宿。迴出中間與兩頭。橫肩拄杖入關。

慶忠老人起龕

全彰獨露把住放行。神出鬼沒弄假像真。有縱有奪立主立賓。且今日底事又作麼生。良久云特啟老漢出隊某等如法奉行。

入塔

卓拄杖云。八山二十四向。此向利貞。山龍水龍俱備。天蓋地席生成。續祖紹宗迢遞。峰巒疊嶂崢嶸。法無吉凶趨避。天然本自稱尊。顧視四方云。前後左右水口。華表一一鋪陳。既是恁麼地。總歸恁麼人。伏惟老漢珍重證盟。且阿那個是證盟底事。嫩桂既已光普覺。雙竹仍應顯治平。連喝三喝。

首九設供

龍象逝棟梁摧。法海竭法山頽。佛祖之道孰與扶顛持危。幸有法眼留得在。而今分付與阿誰。良久爇香云。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師恩。

聚雲師翁設忌

瞻遺教讀遺編。精悍之色在眉間。迎風掌輓肚拳。直漢從來不受瞞。試問諸人今日設供為復仍遵遺範。為復別有施陳。若遵遺範問荅。冊子現成。若別施陳未是本分草料。畢竟如何。熱香云。唯斯一滴雲根水。逆溯等源冤報冤。喝一喝。

塑慶忠老人真成安座

者尊慈忒絡索。乍喜乍瞋若善若惡。喜也和氣春風沒大千。怒兮披毛戴角迷山岳。者回鐵面斬新端的不可放過。喝一喝云。日日香煙夜夜燈。稽首皈依淨智妙覺。

老人周年設供

郎當漢老賊頭。頭角潛藏尾不收。賊私既露無容隱。報道今朝是一周。作麼生說個周底道理。熱香云。休休。兒孫自有兒孫福。莫為兒孫作遠憂。

慶忠老人圓塔

無縫塔渾渾淪淪。多寶塔堆堆疊疊。爭似我慶忠祖塔八面玲瓏。當陽迴卓。雖然如是。縱有片石簣土俱屬某甲安排。且道安排後又作麼生。條條嫩桂競時茁。個個新篁越樣筠。

禮聚雲祖塔

憶昔師翁有三轉語以驗天下。衲僧名曰三關若能的的透得。方許親見聚雲。第一要腳掌掉後。第二要鼻孔朝天。第三要腦後具眼。不肖法孫聊將作供以表心誠。如何是腳掌掉後。自從得入琉璃殿。四壁光明照十方。如何是鼻孔朝天。月華二八星三五。丁丁漏永鑿鑿鼓。如何是腦後具眼。虛空唵盡眉毛髓。麥浪堆中釣巨鰲。恁麼告報還可報德酬恩也無。插香云。伏冀常光永垂慈鑑。

慶忠老人設忌

別卻慈音念載餘。搬磚弄瓦信時宜。牽犁負重無休歇。怒臂勉焉苦任持。唯有深冤難洗雪。一年一度熱枯枝。頭蹄尾角幸齊也。者句難將覲面題。目顧四方。插香云。兒孫得力祖父不知。

禮佛日東明和尚塔

翠堵巍峨萬聚中。年深不見雪爐紅。頭角潛藏知多少。今日重來理舊蹤。雖是舊蹤重理。誓欲條令分明。畢竟如何。熱香云。同源共本聯芳盛。撥火傳薪焰續榮。

體如和尚起龕

急急收歸祖堂。行行方規細矩。聚首剛自旬五。一旦忙尋隻履。伸出無手空拳。直下令人悲喜。喜則喜其去住翛然。悲則悲其法棟頽圯。而今頭角全收。謾道無隱乎爾。喝一喝云。入室既不依位次。且從出戶聽安排。

下火

正覺峰頭金毛走。驚起法身藏北斗。體性如如妙用彰。管他知有不知有。作麼體鐵漆崑崙鎮海底作麼用。烈烈轟轟看變動。如如之體本自然。不屬先天與後天。體老漢。火把子既屬治平。又作麼生打當畫○相云。旋空紫焰自天垂。閃爍金蛇從地涌。

起骨

拈骨云。者一片烏雞夜繡空王殿。次拈云。者一片屈指數文尋不見。復拈云。者一片雪月霜花陳素練。既爾如斯。體老漢者些絡索作麼檢點。投骨入瓶云。破鏡斷劫紅絲線。雲裏不看仙人面。

安座

來只恁麼來。去只恁麼去。來去甚優遊。是真歸向處。撫案一下云。回互不回互。回而更相涉。不爾依位住。

繩若禪人下火

性火真空性空真火。兩路坦平是真實果。作麼得坦平去。攬火炬云。誰家別館池塘裏。一隊鴛鴦畫不成。

天峰和尚下火

入世烈烈轟轟。出世灑灑脫脫。胸藏萬卷無關。去住千番豈著。只向爐頭坐忘。不用搖鈴振鐸。今日火把落在治平手中。更有一事須問過。問個甚麼。若向別峰相見時。傳語嵩山破灶墮。

石琦上座起龕

輔弼祖庭智行悠。倏焉一旦快乘舟。蓮池勝友須雲集。來往莫與路為讎。莫為讎。喚回頭。喚回頭。識我否。喝一喝云。春雷纔鼓

動。驚起睡魚遊。

下火

豎火炬云。此是佛體性三昧。以火炬畫○相云。此是大受用三昧。以火炬左右拂云。此是耀見照明三昧。既爾諸般三昧一時具足。今有現前方便也須親証始得。攬下火炬云。迴風閃電走金蛇。爍石流光飛素練。

起骨

即此物非他物。去住明明無拘束。無拘束處任優游。任優游兮咸具足。以手捧骨瓶云。棹撥清波意自殊。一聲款乃春江綠。

入塔

盡大地是骨身。作麼生入土。盡大地是真土。向什麼處安身。要知土與身無異。水與石相親。相親相感成和合。端的其中堅住人。喝一喝云。八卦爐中親安養。五行鐺內樂生成。

笑傳禪人下火

削髮衣緇三十年。因吾度汝遠塵緣。而今自度尋安養。無毛鐵鷄滿空旋。下火炬云。飲光笑破無餘事。得旨歸根在在傳。

明心禪人起龕

入室不住白雲床。出戶豈行青草地。于斯得見境中人。四方八面無遮蔽。喝一喝云。春陽鼓動雷驚蟄。法法頭頭體自然。

下火

生緣于楚山楚水。破夢于蜀地蜀川。郵程既無阻隔。去來了不相關。爾直下悟明心地。山僧豈肯蓋被瞞預。攬下火炬云。暫借八人相護送。收回一點鎮金丹。

起骨

繁柯脫落盡。唯一真實在。在在總圓成。往返無罣礙。勿于無礙處停留。珍重從前六不收。收不收。以骨入瓶云直教瓶破雀飛去。祖意明明百草頭。

入塔

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既無寸土即今明心禪人又向甚麼處安措。乃捧瓶入塔云。春回劫外滿庭芳。十二時中安樂禁。

慎初禪人下火

壯年持素。暮歲披緇。堅修白業。具足毘尼。條焉而逝。遽爾云歸。今則泥水堆聚。山僧為汝主持。攬下火炬云。護末慎初冰煉火。收因結果藕藏絲。

密行大德起龕

新住華光室。疾去華光城。華光鐵面無改變。爾今快可覓前程。那裏是前程。上下行人驀直去。布橋溪畔且暫停。

下火

行亦禪。坐亦禪。語默動靜體安然。縱遇風刀常坦坦。假饒毒藥也閒閒。此是道人真實蜜行邊事。即今四大分散泥水堆聚作麼與伊排解。攬下火炬云。蜜焉行足金光燦。撒手懸巖道果成。

起骨

拈骨云。者一片那一片。也曾紅爐經鍛煉。煉磨諸垢悉歸空。空性俱銷何更換。換不換。以骨投瓶云。從教撲碎成團也。蜜諦行深真彼岸。

入塔

家鄉廬墓可相親。何須九上與三登。一天雲散長空淨。千林葉落自歸根。歸根何用尋安養。便就佳城翠堵成。且道裕後一句又作麼生。乃捧瓶入塔云。故園叢桂應時茁。蜜行功深果亦深。

常明大德起龕

乘願而來應時而去。來去分明有本可據。且道有何據畫○相云。歸家不住白雲床。出戶豈行芳草地。

下火

葉落自歸根。水澄月應現。莊嚴素法身。如精金百煉。那裏是鍛煉處。攏下火炬云。點起常明不夜燈。通身涌出祥光焰。

汾陽和尚應九

普門脫去和尚深為惜之。和尚歸鄉。弟等特來作奠。雖然奠惜不同。要且去來無別。不同底素馬含悲淚滿腮。玉露驚風淒落葉。無別底鐘鳴雞唱海潮音。漏殘天曉崑崙色。茲乃老漢三九治平。作麼生說個無去來不變更底道理。良久云別別拍掌呵呵寒山拾得。

喬松和尚設供

蜀之山楚之水。拄杖頭邊芒鞋腳底。適聆和尚圓寂楚中。治平不獨扼腕心酸。且自點茶與和尚濕嘴。道是以表法。誼以慰哀衷俯膺良久喝一喝。

眉山和尚設供

心如鐵石性似堅剛。一點顛不折到處為人忙。雖然如是。且道漢陰荳價米價又作麼生。良久云。粗茶薄供伏惟尚饗。

紫垣上座起龕

廿間方離治平。朔初便爾告寂。去住雖自恬然。不無藏頭露跡。頭作麼藏瞋睡虎耿耿捐消破衲襖層層卸釋治平。特特到來為伊一一分析。以手引龕云。不二門中非久停。一條大道如絃直。

下火


萬緣到此若冰灰。一衲終身沒被蓋。煉得身形似鶴形。清操素履誠堪愛。雖則可愛可親。未證遍圓三昧。那裏是遍圓處響。攏火炬

云。金蛇灼破面門開。諦哩杜嚕殞空界。

俱非上座起龕

生緣七十一年。薙緇四十四載。復歸祖室蛻然。是謂因該果海。因果圓時事事諧。臨行一語動予懷。予懷深慟重叮囑。燈籠援壁上天臺。喝一喝云。寶所從心欲。黃道白天開。

下火

百昌到此總俱非。萬有於茲屬夢電。泥人含笑鼓春風。鐵鷄旋空飛紫焰。吾今為汝悉安排。一一從心皆方便。以火炬畫  云。甲乙先生腦後眼。丙丁童子面前人。面前腦後應時發。五葉一花在在 新。

起骨

出彼入此迴脫依倚。八萬四千附巽宮。三百六十歸艮止。以骨投瓶云。鴛鴦繡出百花開。春光燦爛無倫比。

安位

來亦如斯去亦如斯。動亦如斯靜亦如斯。如斯真境界。曷莫非所宜。山僧為汝悉安心。無位真人迴面壁。

起瓶

良其背不獲其身。行其庭不見其人。乃舉骨瓶云。脫體逍遙日。轉功就位晨。

入塔

飄蕭黃葉自歸根。淡蕩紫煙相應現。于斯得見境中人。體素素兮光豔豔。謂是坎盈離虛。卻也風升水渙。天文地曜總幹幹。吾徒自有真方便。何所便。捧瓶入塔云。蟾窟秋高桂子繁。蓮池水湛心珠燦。

恒心禪德起龕

離其所離。幻上何妨立幻。遣其所遣。空中更不容空。治平只教幻空。不立離遣消融。更於何處覓行蹤。以手引龕云。園林好倩清江引。普天樂送風入松。

入塔

四山拱向萬派歸宗。峰巒迢遞雲水崇隆。滿座與半座。端的住其中。捧瓶入塔云。無盡藏中具足安養。多子塔前肇啟古風。

安位

樂彼安此。景行行止。好休即休。可已而已。畫◎云。珍重其中不動人。一元燦燦無終始。

慈運和尚應九

憶昔相違時。形容尤鑠鑠。正期展釣絲。倏爾斂頭角。行庭不見人。入室空思索。登山涉水來。特地問行腳。不問七十七年前。下生來。不問七十七年後。指期坐脫。阿兄之法社原有定衡。阿兄之道脈先已囑托。值茲四九之辰。薄供清茗聊酌。恰逢節屆書雲適。丁陽生陰鑠。不唯一線重添。且喜二諦和合。雖然如是。且道手足至誼。畢竟有何表白。良久爇香云。繩繩衣鉢付兒孫。裊裊香煙輝梵閣。

埜雲老和尚封龕

倏焉坐脫忽爾悠行。辭樓陟殿換斗移星。個是恁般潛頭露尾。頓令某等關鍵至誼難以名陳。為甚難陳。掩龕云。心香血淚和煙裊。龕閣苔封露印文。

起龕

舉起則諸緣和合。放下則百道咸亨。不舉不放又作麼生。滿山黃葉落。一徑菊花新。且自出隊柳溪岸畔。商確公案丙丁。

下火

豎火炬云。目今公案已圓成。從教一舉一回新。那裏是一回新處。如老和尚涅槃偈云。七十三年如露電。錯筭不為瞞。臨行一句阿誰薦。某等自有安排。泥牛啣月吸秋波明明。鐵馬嘶風吞素練得得。良久云。鑑只這一字。尤其是某等疑處。何也。三世諸佛從此而轉大法輪。歷代祖師從此而成等正覺。天下善知識從此而說法利生。我老和尚從此而證火光三昧。諸仁者要識火光三昧麼。攬火炬云。足底湧出一輪雲。百億彌盧光燦燦。

挂真

朝往西天不移寸步。暮歸東土寸步不移。寸步不移孰與偕躋。道脈源源有所思。且道思個甚麼。橫跨綠猊輝祖室。倒騎白象耀須彌。

起骨

七十三年前望後三日是老和尚卸殿時。七十三年後望前三日是老和尚脫殼時。茲當望後二日是老和尚歸圓時。作麼生得歸圓去。乃投骨入瓶云。無動無搖本無住。不增不減自金剛。從教六六還歸九。萬蕊千葩奕葉芳。

安位

五十餘年相依。一旦撒手便去。有去即是有來。無住應歸有住。往來去住無關。瞥爾絕其回互。絕回互唵啞斛。捧瓶安云。清風明月難為儔。權倩個中光主顧。

首九拈香

九月廿一日乃先老人忌辰。適當老和尚首九。作麼說個九底道理。莫是灑枝珠露墜籠竹。淡煙橫雲花堆砌。玉菊蕊滿鋪金三三連合數五四結成鄰。這些姑置。即今又作麼生。爇香云。兒孫忻敬供萍藻。祖父歡騰享覺靈。

百期設供

一百日已前。頂門吐出三春霧。一百日已後。足指噓回萬竅風。即今正當一百日矣。畢竟如何。爇香云。羅列滿盤信飽餐。香煙在在無窮者。

惺中禪人下火

葉墜如飄金。簷溜似牽繩。幾杵鐘聲急。驚惺夢中人。既爾夢中驚惺。山僧務令點到奉行。攏火炬云。勿論水濕火燥。總教源遠焰熒。

自皈大德封龕

末後一句始到牢關。把住要津不通凡聖。既是凡聖不通牢關把定。即今有何叮囑。以手左右拂云。乾坤闔闢無回互。蘭桂騰芳有準繩。

起龕

白雲覆青山。青山不露頂。珍重腦後腮。面目時惺惺。作麼生得惺惺去。引龕云。蓮生周道任優遊。直入華光常極樂。

下火

闔宅熏修全家解脫。謂是龐老家風。然而剩彼一著。若將靈照機語。必矣用其卓犖。以火炬打○相云。自皈依後總攸歸。法法金星恒閃灼。

起骨

拈骨云。學道如鑽火。逢煙切莫休。只待金星現。歸家始到頭。作麼是到頭邊事。投骨入瓶云。收聚列開隨轉換。俗真二諦總圓成。

安位

住是去之因。去則住之果。去住兩恬然。何莫非安妥。以手指瓶云。一香一燈一禮。而安而靜而寧。

滿足忍禪人下火

昨宵脫鞋襪。今朝不復穿。一覺睡滿足。長鼾不記年。攏火炬云。昔曾任意揮支體。茲當應手灼頭顱。

燦旨禪人下火

師資相聚未經年。瞥爾便覓歸鄉路。隨流得妙快抽身。趁水行船適濟渡。若問過所郵程。山僧為汝分付。分付個甚麼。下火云。燦爛個中端的旨。八人約爾難回互。

滿足禪人入塔

到處可安身。唯此非賃屋。傍祖依先塋。滿願從心足。以瓶入塔云。栽松植竹總一如。脫胞入土匪二物。

玉溪和尚起龕

閉門打睡接上上機。顧鑑嘖呻曲為中下。茲則機畢顧周。更有一事相酬。且道酬個甚麼。以手引龕云。快馳鐵馬乘黃道。趁起泥牛踐故郵。

下火

一喝親承數十年。正偏兼至意幽玄。而今釣罷潛安養。稱水和泥適快然。攬火炬云。旋空紫焰應手發。互野金光襯足周。

安位

行住坐臥這個無個。本絕去來寧列功課。若向則乖若背則錯。錯不錯。安位云。洗足訖已敷座而坐。

起骨

拈骨云。玉潔溪本澄清。瑩然如鏡初洗良因。一點灼然致令千派匯濟。那裏是匯處。乃投骨云。薪火傳持不計秋。[口*金*本]囉嚙喇咀哆哩。

正庭居士下火

出世樂世居塵脫塵。兩諦了了來去分明。攬火炬云。燎卻眉毛燒卻鬚。清涼國內永安寧。

蜜海禪德起龕

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如何得不錯去。喝一喝云。從心所欲不踰矩。

下火

煙雲會合處。泥水已圓成。火把落在吾手。法令自爾當行。攬火炬云。密密金光休彌覆。騰騰焰逐海生雲。

寶月禪人入塔

數載劫運變遷。爾苦心堅志守此。倏焉一旦西歸。臨行卻欲去彼。雖然水際波恬。爭似樂土依止。山僧今為汝安排。究竟何曾離者裏。良久畫○相云。乾坎艮震巽離坤。一月千江只這是。

安土地

百昌因之維均。萬穗賴以生成。匪特山門清淨。允宜保境護生。山門淨則六時祝誦。方境寧則眾姓麻禱。他時功圓果滿日。證取金剛不壞身。雖然如是。更有一事要叮嚀。王老師前休口快。重添香著露靈明。

靜禪禪人下火

鬧市城中隱靜禪。本來面目悉周全。而今掉臂尋端的。鼻孔依然沒半邊。且道阿誰與他圓得。攬下火炬喝一喝。

問答

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老樹飄孤葉。條風帶晚香。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有興何妨傲。無情豈是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斜映遙難見。橫遮近若無。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水聲清洗耳。山色翠凝眸。

僧問如何是第一句。師云山房增樹覆。洞口有雲封。如何是第二句。師云鶴起隨風舞。龍遊帶雨還。如何是第三句。師云四面灘聲水。幾番花信風。

僧問如何是第一玄。師云烏雞啼嶺後。鐵馬舞巖前。如何是第二玄。師云吟殘山畔月。韻落水中天。如何是第三玄。師云潭底水抽骨。石中火燦蓮。如何是第一要。師云波深魚怯釣。如何是第二要。師云風響馬驚鞭。如何是第三要。師云葉抽林換色。花落地生香。僧云玄要蒙師指。脫體又作麼生。師云因。

僧問如何是一喝如金剛王寶劍。師云光華掩太極。如何是一喝如踞地獅子。師云毒霧罩乾坤。如何是一喝如探竿影草。師云採花歸別塢。帶雨入深村。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殘月紗窗疑夢影。淡煙流水信行雲。

僧問如何是賓中賓。師云隱隱煙籠竹。淒淒鶻叫林。如何是賓中主。師云尋枝摘葉隨他技。錯節盤根讓我能。如何是主中賓。師云樓高招夜月。門廠吸晴嵐。如何是主中主。師云燈籠露柱談般若。狗子貓兒演密詮。

僧問如何是先照後用。師云知味必嘗膽。識人須驗心。如何是先後照。師云棹穿波底月。船壓水中天。如何是照用同時。師云蟾窟攀雙桂。龍門釣六鰲。如何是照用不同時。師云聖解凡情俱殞。陽消陰息胥灰。

僧問如何是一同一質。師云鍊不墨兮銅不血。如何是二同大事。師云草鞋寧似虎。拄杖活如龍。如何是三總同參。師云千點花飛千點雨。一重雲鎖一重門。如何是四同真智。師云趙州茶辛金牛飯辣。如何是五同遍普。師云一指懸海印。半偈續燈傳。如何是六同具足。師云春有百花秋有月。夏有涼風冬有雪。如何是七同得失。師云坐將琴作伴。行有鶴相隨。如何是八同生殺。師云桃萼憑時放。溪雲應候臨。如何是九同音吼。師云一擊驚天地。萬籟響雷霆。如何是十同得入。師云千山平若掌。一路滑如苔。

僧問如何是超宗異日。師云揮毫吐瑞鳳。擊劍引真龍。如何是齊眉共躅。師云客來呼煮茗。僧過但焚香。如何是影響音聞。師云依稀梧墜月。彷彿柳隨風。

僧問如何是佛正法眼藏帶。師云覆嶂霞千里。照溪月一輪。如何是佛法藏帶。師云樹長宜遮屋。泉流直到廚。如何是理貫帶。師云花雨禪心寂。松風鶴夢恬。如何是事貫帶。師云梅花飄伴雪。芻草動牽香。如何是理事縱橫帶。師云籍草問花泛酒登壇載筆題橋。如何是屈曲垂帶。師云月嫌星淡橫天照。花怯春寒傍火開。如何是妙協兼帶。師云物外逍遙怯午夢。空中笑語憩朝參。如何是金針雙鎖帶。師云竹裏晨煙茶龜煖。床頭夜月紙窗熒。如何是平懷常實帶。師云信手拈來隨運用。和盤普請洵餐嘗。

僧問如何是我手何似佛手。師云興酣搖五嶽。詩狂傲九州。如何是我腳何似驢腳。師云一躄唯自足。萬象任他推。如何是人人有個生

緣。師云埜鶴孤雲堪合伴。蒼梧翠柏信為賓。
僧問如何是第一句。師云鍊蒺藜。如何是第二句。師云紅衲襖。如何是第三句。師云破沙盆煮爛冬瓜。
僧問如何是一喝如吹毛劍。師云光芒射斗牛。如何是一喝如踞地獅子。師云精華貫日月。如何是一喝如探竿引草。師云漁翁鼓棹讓西流。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春有秋有種先收後。
僧問如何是初日分以恒河沙等身布施。師云流水常存今古脈。高山不斷去來雲。如何是中日分復以恒河沙等身布施。師云槐陰滿地日罩午。夢覺流鶯時一聲。如何是後日分亦以恒河沙等身布施。師云採花蜂股重。釋籜筍稍輕。
僧問以一重去一重即不問。不以一重去一重時如何。師云阿誰扶上馬。不惺下樓時。
僧問如何是那邊事。師云鳥飛不度。水洩不通。如何是這邊事。師云拗直作曲。叱石成羊。
僧問如何是就理藏鋒。師云之乎也者破草鞋。如何是就事藏鋒。師云小市經紀誇大口。如何是理事俱藏鋒。師云無絃夜弄師襄調。六月楊花雪裏看。如何是不涉理事藏鋒。師云石女波中拍板。木人火裏嘶風。
僧問如何是正中偏。師云烏雞啼曉日。漏罷理歸帆。如何偏中正。師云玉樞筆札空花裏。石鏡英賢寤寐中。如何是正中來。師云寶匣粧金印。珠簾挂玉鉤。如何是兼中到。師云養氣節剛方正直。存心術廣大公平。如何是兼中到。師云胸中萬卷英雄。譜筆下千言道德詮。
僧問如何是君。師云龍樓祥瑞氣。鳳閣耀獨尊。如何是臣。師云逐電追風速進策。騰霄摩漢早為儀。如何是臣向君。師云盱食宵巾不彈勞。如何是君視臣。師云龍庭俯坐看文章。如何是君臣道合。師云紫氣騰草莽。金焰覆林丘。
僧問如何是向。師云一堂成畫錦。百捷佇時熙。如何是奉。師云玉書傳詔切。金甲受降勤。如何是功。師云一天見慶雲景宿四時荷甘雨和風。如何是共功。師云謀出萬全自克敵。戰期百勝早安邦。如何是功功。師云神武宣威不殺。皇仁普澤容降。
僧問如何是誕生王子。師云奮武揆文開日月世勳國憲奠山川。如何是朝生王子。師云皇恩帝祉齊臻萃。弘壁綸章總注臨。如何是末生王子。師云熒彗銷瑞象。櫓槍變景雲。如何是化生王子。師云玉書傳詔遠。金冊紀功隆。如何是內生王子。師云壯猷定敷元老。風紀永著宰儀。
僧問如何是內紹。師云天朝頒壯瑞。帝命建鴻猷。如何是外紹。師云仗鉞臨戎勳帝業。運籌逐鯉佐朝威。

僧問如何是見滲漏。師云雲遮海嶠隱。月掩山村斜。如何是情滲漏。師云無窮生意殼不了工夫團如何是語滲漏。師云蟬以翼鳴龍從角聽。

僧問如何是敲唱俱行。師云洗甲天河轉。麾旌海岳傾。如何是金鎖玄路。師云關牢須擊碎。石滑務掀翻。如何是不墮凡聖。師云魚躍江頭新祖意。風吹水面舊文章。

僧問如何是類墮。師云負重耕犁快囉哩。移真失性樂哆囉。如何是隨墮。師云彌勒歌樓去。觀音酒肆來。如何是尊貴墮。師云風月疊互為賓主。溪山不換傲王侯。

僧問如何是粗入細。師云牛車布錦文。如何是細入粗。師云針眼打鞦韆。進云二途俱不涉又作麼生。師云混江龍。

僧問如何是佛。師云尾大頭細一堆堆。如何是法。師紙短話長重滴滴。如何是僧。師云項促腳粗走忙忙。進云若此究竟時如何。師云紅衲襖。

僧問十二時中如何踐履。師云穿衣喫飯勞身口。進云脫體一句又如何。師云板橙棹腳。

僧問如何是想生。師云常因送客處。憶得別家時。如何是相生。師云山光晴後綠。樹色曉來青。如何是流注生。師云雪融山骨露。風過水鱗斑。

僧問如何是然燈前。師云酒渴思吞海。詩狂欲上天。如何是然燈後。師云已換新日月。不戀舊乾坤。如何是正然燈。師云高樹雲連碧。深巖月挂銀。

僧問如何是本來照。師云雲鋪千樹玉。月散萬株花。如何是寂照。師云隔籬雞犬靜。枕石夢魂清。如何是常照。師云未許爭春暖。偏宜耐歲寒。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云直上青霄外。雲月一掃空。如何是截斷眾流句。師云六龍競躍海。一鶚獨橫秋。如何是隨波逐浪句。師云雲行如駛馬。杯渡不驚鷗。

僧問如何是提婆宗。師云玉山雲影合。銀浦月華重。如何是吹毛劍。師云神威冲斗柄。問氣壓山川。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淡雲村舍外。流水小橋邊。

僧問如何是即物契神。師云雞鳴方就枕。鶴舞勢冲霄。如何是示機。師云杖擊無容佛。磚磨豈注顏。如何是毘盧頂。師云壁立山三座。嶺橫水一灣。如何迦葉門前。師云大地黃金用不盡。長河白乳飲無窮。如何是三界唯心。師云人面遷獸面。鍊山易金山。如何是萬法唯識。師云一體分千臂。三身顯六通。

僧問如何是聞聞。師云聽聲風擺柳。應響竹敲門。如何是聞不聞。師云放閒即過日。行到若經年。如何是不聞聞。師云眼後眼前雲。

腳頭腳底山。如何是不聞不聞。師云真個世情惟逸睡。不納燕子不開簾。

僧問如何是臨濟下事。師云晴空轟霹靂。平地動戈矛。如何是雲門下事。師云露柱揮雙目。虛空豎兩眉。如何是曹洞下事。師云似暗還明匪月影。將開未吐擬花神。如何是為仰下事。師云打破壺公術。撲落杯渡筭。如何是法眼下事。師云鑿石引流水。開門放好山。

僧問如何治平境。師云屏山列岸外。石鏡湧江間。如何是境中人。師云一條拄杖如龍活。兩堂雲水似虎寧。進云人境已蒙師指示。向上關頭事若何。師云伯夷叔齊姓墨胎氏。

僧問如何是句到意不到。師云片言纔諷刺。一夜鬧天明。如何是意到句不到。師云掃石烹茶看十日。推窗待月坐三更。如何是意句俱到。師云畫工翻舊譜。詩士獲耽嘉。如何是意句俱不到。師云情淡話無趣。心忙言不周。

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云梁高茅露骨。蘆久壁生芽。磨後如何。師云穿花蛺蝶深深見。點水蜻蜓款款飛。磨與未磨時如何。師云嫩雲西岫東拖水。小竹橫煙順接風。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春水滿四澤。見後如何。師云夏雲多奇峰。見與未見時如何。師云秋月揚明暉。冬嶺秀孤松。

僧問如何是佛。師云高高大大。如何是道。師云滔滔坦坦。如何是禪。師云凹凹凸凸。曰畢竟如何。師云露柱懷胎三門生耳。

僧問如何是死句。師云門內石敢當。如何是活句。師云市上旃陀羅。如何是死中有活。師云石敢當起舞。如何是活中有死。師云旃陀羅入井。不死不活時如何。師云將謂你是個人。

僧問獅子未出窟時如何。師云諸佛眾生仗恩力。出窟後如何。師云群靈庶類悉威降。出與未出時如何。師云張公喫酒李公醉。卻使張公沒好氣。

法語

寄衡極禪人。光陰似箭日月如梭。為學者誠能于中把定作主。庶不被有為諸法所苦。適聆令祖先寂昇之繼化山野可勝傷感。何也。傷則傷其老之可憫。感則感其少尤當惜。不惜其年光之短。而惜其相邁之淺。不惜相邁之淺。尤惜露電之迫人。賢座倘于露電間一眼覷破。收回腳跟。掉轉鼻孔。則彭殤奚二致。生佛寧兩途。個裏轉得身吐得氣。始信圓通過嶺非千里治平度山豈萬程千里萬程原不隔一回舉足一回新那裏是維新之處俟賢座來治平另有說話。

寄聞一上座死生變革恩愛別離如幻一觀電光泡影然亦有深為關切者何也如上座有生處之際遇以父子而為師為資經患難而靡間靡隔朝

暮是依息作相應今一旦長逝其情事感傷詎筆舌可悉論然又有可法者焉昔大覺世尊纔生七日母氏便生忉利道成乃昇天說法以助卓越之因上座方荷大任令師遽爾西遊且道與世尊同別故經云假使頂戴經塵劫身為床座遍三千若不傳法救迷情畢竟無有報恩者以斯看來全不在哀慟感傷而為至孝也唯上座勗之。

示自覺大德人世莫苦於生死恩愛靡重於別離此乃俗諦中事也達苦樂為一致視冤親無二途出家兒雖是如斯然亦實有深於關切者如大德之師徒以入世之子母而為出世師資且也同度患難共歷干戈恬然樂道兼之高年幼壯勤修功德可羨可嘉恢復故園為法為則山僧方期永作敬田廣新儀範條聞純持一旦脫化且權讓彼靈照先吾一籌大都學道人必須打破這個關捩便知自性彌陀時時與純持引導隨心勢至在在共純持參陳又奚俟山僧筆舌之囑慰耶雖然更要自覺主人一觀自在深契菩薩之十種如幻三昧可也。

示王居士樂善不倦見義勇為此性天之真誠亦大丈夫之能事匪承夙願孰能恒久而不變哉但郵程故假資糧到家務須灑脫居士於升堂入室胸中寧無芥帶乎舌根頭曾不被趙老無字杜塞乎麻三斤乾屎橛亦不黏牙絆齒乎如上一一穎脫治平拭目有望其或未然姑拈則古人公案以似居士於斯研窮密究則持經靜坐送往迎來何曾辜負居士居士又何嘗忘卻山僧倘或過我治平拄杖子這回詎可慢過居士耶呵呵。

嗣法門人性印徒海(覺 澄 清 明 治)孫寂(壽 長)

捐貲刊刻

本師老和尚語錄第三卷

竺峰敏禪師語錄卷之三終

詩偈

贈劉郡侯

福星臨照已餘年允矣韓公扣大顛詎謂衣留于法社還期火裏燦金蓮

步劉郡侯韻

法幢維豎錦江頭吸岳鯨流際此樓一目河山頻指顧漁舟唱起宿沙鷗
薰風拂拂滿江湄晏坐披襟勝下帷倏忽炎塵須蕩戩勿留清思擾禪規

贈別劉鎮臺

百戰曾經喜太平錦還寧暇記功程玉鞭金馬榮三錫明月清風富一生

祝楊郡侯

公餘縱目望江山萬象欣逢大有年星燦長庚光普燭樵歌牧唱樂仁賢

次朱檀越韻

乘時枉駕事紛紛未暇與君話返魂惠我名香應手蕪芳馨遠播賽花村

題走馬燈

忙忙奔走絕機思無得無求孰可齊奈有丹心常不歇周行任運到何時

鼓燈

禾山三弄播諸方敲拍而今迴異常觀體高懸獅子窟眼聞耳見任承當

橘燈

灼灼如金明不夜隱顯無私豈自欺不是一番經透脫暗中消息有誰知

贈雲空禪宿

先世曾沾護念真慚予何德荷慇懃感今憶昔頻惆悵一握清風達素心

贈劉鎮臺

山滿常看榮祿公應知先代受華封而今澤茂根株永名遂功成勢若龍

祝黃守府

桂月秋高景色賒鑑湖黔水瑞偏嘉昌期五百乘雲聚杰士三千慶彩華

壽汪護法

雲滋露浥豔陽天握得靈符濟世丹碩果三千欣永歲大椿八百慶長年

祝武郡侯

翩翩鶴駕慶呈祥瑞藹全川德宿昌蟠果三千瑩劫石大椿八百蔭甘棠

示樂菴居士

存誠履道合天機應現弘模孰可齊如來妙諦中孚永衍慶樂菴濟世奇

示唯慶居士

處世常存濟世心隨緣廣布福頻增珪璋恒抱殊光耀為慶為祥日益新

示覺菴上座

金鑱拭醫用無窮應世因躋大覺功返聞聞性聞熏復竿頭進步悟圓通

示鑑空禪人

踰城意志已多年一念因真果自圓性璞直教輕剖琢鑑空朗徹映三千

示張道人

啟我尸羅步善財重重樓閣指彈開福田廣布人天喜覺果圓成萬德輝

次荅胡公韻

卓犖丰神迴脫塵宦場瀟灑應真身逃禪有興邀清鑑萬里緣牽適至人

示允應禪人

昔日空生曾晏坐諸天讚歎雨花滋於今兆出桐山上允應曇華燦嫩枝

募修曲水菴

有緣即住住隨緣緣在山環水曲間曲水插標何所事七文一笠莫輕瞞

復學正陶公

古往今來著眼看了知非佛亦非仙冀餐真味原無味月在天邊雲在山

示覺蔭居士

佛性堂堂越萃倫翛然域潤洵耆英覺華蔭遠期齡壯無罄功勳允克成

示慈蔭居士

覺照時時自性明一朝穎悟悟無生慈靈孚信迴通徹蔭覆群芳喜樂榮

示賢蔭居士

聖賢經濟詎尋常玉琇瑩滋永燦光直入真如無限量慈膏蔭著錫天長

示福蔭居士

百寶摩尼信手樞福源慧海總超卓躍然獲證蔭無涯高豎菩提堅且確

示恒覺居士

法性須知物物全拈來黃葉勝金錢家珍寶惜恒昭覺頓令因圓果倍圓

示曇蔭居士

兔角杖子龜毛拂運用施為無不足聖賢事業貴豐亨在在曇花蔭馥郁

步慶忠老人山居五首

霧煙滿地似銀盤極目遙看不見村野徑曲岐藏宇宙荒畦連斷合乾坤
月明未許經常榻日暖無妨過別門養就白牛全水草入廩豈類出溟鯤
採得黃蔬當野芹頻炊猶勝合歡欣掃塵豈為來霜月趺座唯期布法雲
不是閉門徒學解恐經出戶惹閒文恩酬匪但還三[祝/土]席捲胸開
莫厭紛

嚼碎虛空一物無就中那更有精粗雲移朗月磨新鏡雪占青山壓老喁
梅放花開香已播鶴鳴子和詠無孤擬將個事頻拈出只恐時人畫作圖
重陽九九與冬連補衲添衣樂自然雪點紅爐焰說法瓶煎白滾水談禪
心猿[跳-兆+孛]跳龜毛縛意馬馳奔兔角拴但把纖塵循念釋免教聲
色逐流傳

高懸赤幟俟屠兒怎奈紅塵路轉岐絲釣徐舒探錦鯉繁柯脫落露霜梨
繩床鐵脊隳三體跌膝金剛豎兩眉聖智大心雖志遠等閒猶自隔籬籬

次韻荅寶善居士

味道餐松豈復量還期疏淡映恒星燒豬煮酒憑君美種蔬培瓜任我精
獨坐虛窗傷翠鳥偕行嶺畔感鸛鶯堪嗟歲月增如許肯飽甘肥醉萬春

建新城有感

從來丕極泰旋生歷歲烽煙似野塵萬里江山含雜燧一天風月隱艱辛
微危再誦包桑易得德還歌樂土人幾度頻觀松雪操依稀節候顯忠臣

中秋無月

金風颯颯漸連低已是清光正滿時斜翫碧空雲漫砌細看蟾色影微移
銀缸擬設光堪待冰鑑雖懸朗映遲為愛良宵無遣適因茲故憶庭芳詩

喜晴

霧消雲散海山寬策杖頻瞻興自歡倦鳥翩翩鳴脫褲遊人冉冉笑彈冠
芒鞋緊捎隨登陟柳栗橫擔任往還為惜世波常汨沒曾將晴雨幾回看

午日苦雨

頻滋霖雨弗時休出入難教涉遠遊簷滴潺潺蛙鼓亂鳥音寂寂鶯梭收
陽光鑑翬浮雲護蒲水杯傾野濬流好把陰霾一掃盡翛然行樂絕追求

除夕

追隨函丈入廛居出沒蹉跎已夕除節慶不同風月子升遷一任去來興
烹泉共話年丁永把賦頻敲歲正餘鐘罷更殘人影亂參參雲水自成渠

午夜即事

喜參爐鞴鍛諸方雁落魚沉列兩行律數閒推將巽短輪光重照映庚長
滿聲不是龍舟鼓異味無干虎艾香更羨林泉非市井唯期點雪貴當陽

元宵

日旋薄暮崦嵫斜鑼鼓驚敲送晚霞轉覺冰壺升島嶼忽看星斗煥龍蛇
光生火樹連宵晝色借金鵝晃露華燈燦月明人不夜謾將消息與吾家

步胡部院被執二首

幻海勞勞轉覺深何如破夢隱山林搬柴運水元常事喫飯穿衣雜用心
語後投機爐點雪言前薦得眼飄金世間若限英靈者誰把浮華易翠岑
無數情懷說向誰唯存短句賦輕辭須知驟雨無終夕怎奈浮生有了時
解帶留衣聞早矣挂冠選佛覺遲而白雲幾度聚還散一顆紅輪任所之

寄同參

一自五雲握別時群鴻南北影參差忽聞花雨欣無罄弗共墳箴恨莫移
梅放已隨殘雪萃松孤詎謂暖春遲重逢若折賓主句還羨相將鼎鼐之

步韻

霏霏細雨釋炎懸霧集雲興若尚賢暑熱弗知經幾幾溫寒何止較千千
統觀萬彙同蒼犬始信流光若逝川漫把溪山頻嘯傲年年雅自看周旋

新秋有懷

秋晚陰凝計入山山中成現許多般枯枝旋拾炊蔬飯煨芋時熬當素食
夾岸蘆花風剝白滿林楓葉露凝丹細將物理閒推測個是心空奈歲寒
閒來園畔檢文無瞥見般般景物殊馬齒侵蔬鋤鏟漏蔦蘿援樹斧斤蕪
古道迷原趨鳥道性珠汨雜捨魚珠應憐場社競浮者曾究先賢意也乎
幾回林下憶吾曹若個盟偕管鮑交樹靜寒凝霜凜冽蘭凋臭隱菊芳嬌
群鴻展轉依沙岸孤鶴翱翔舞碧霄珍重漁翁休撥棹等閒驚起易新巢
孰道吾儕肆志高其如節候不相饒折籬補壁工輪技覆雨番雲斗轉杓
石鼓輕敲期唱和鳳凰鳴嘎待摩霄法門蟲豸誠如許信是疇能奪錦標

寓石鼓和馬文學韻二首

羊腸曲徑幾經穿為羨幽蘭隱谷泉秋氣恬然雲淡淡新晴皓杏月涓涓
禪心豈況沾泥絮傑士寧同脫殼蟬好把緣思齊放下何人老去再童年
盤陀疊膝雅歡娛那問軒居過也無拭涕尚閒空懶攢存情起見障文殊
循環日月為燈火俛仰乾坤作屋廬撒手懸岩須薦取非仙非釋亦非儒

步涪陵陳先生韻(時天使惠藏佛如寸許)

微塵剝土皆是佛展握何分掌與拳機熟謾存常斷見相空寧滯有無邊
若以色見真非見始信因圓果自圓於此別開青白眼靈峰囑記渾周全
四八端嚴非法身為憐族姓應于人傳來天使忻留帶轉示高明羨撥塵
有意桃源殊昔果無心胥國洵前因從教妙相周沙界爭似渠儂一念真

贈余郡侯

福星光燦靄蒼窮瑞氣騰騰映蜀東遐邇民歌五禪樂高低麥秀兩岐種
神清宇水瑩如玉政肅岷山賦厥躬可是靈峰曾付囑從教緇素沐仁風

過白岩訪眾禪德

先哲曾經幾共遊吾儕雅自荷綢繆主賓意適牽詩興手足盟心振祖猷
殿閣巍巍金像古園林鬱鬱素光浮感今憶昔儔堪述允矣同撐藏海舟

祝楊郡侯

重周花甲兆天間紫極凝禧沛澤長佛性依依滋翠柳民心樂樂蔭甘棠
三千蟠實馨香永九轉靈丹應濟昌堊外何能興祝獻持將山海伴壺觴

和朱檀越韻二首

豎幟江頭展釣磯時聞鶉語喚人歸遙看隴樹春光麗俯閱園蔬翠帶肥
日午風和開竹迳時清氣淑啟柴扉曾經破浪垂香餌為羨金鰲掣電飛
徜徉楚外洵優遊踏遍鄉關杜遠丘雨過曉山青欲滴煙凝晚岸淡如流
詞林楚楚忻翹首頑石斑斑解點頭大道堂堂隨指顧謾將中閫作郊郵

步慶忠老人詠蓮六首

豎草拈花構沼臺為因族姓結蓮胎二三寧待文殊指六八親承法藏來
火宅馨香真可羨汙泥馥郁潔堪栽為輪為座憑君薦一念繩真即便開
曾陪茂叔敞瞿塘無限清蔭滿院涼風鶴頻驚莖實泯史書唯載姓名長
雲根固植非情愛浯水閒滋啟異香拔幟豎竿悲願切眉端弗吝白毫光
清池葉映鏡團雲水面風停意更欣露滴撲翻波底月魚遊壓落斗稍文
花開好把無生薦浪破何由漏習聞冰湛淵沉逸興杳滿塘菡萏自芳芬
憑闌凝思白蓮香出息還將入息長顏色雪鮮難點綴藕絲空靜絕馳張
無塵茂叔比君子有豔楊思況六朗兩諦共欣同別異一輪獨自露清光
炎天沒事漫周行掩蓋重重疊護陰風遞荷香根不偶日穿池影照無侵
覺初倩爾開清思夢曉憑伊捧智心鏡破見空花爛熳寧容識浪起幽深
垂鉤尤憶火中藥牛糞常將熱土芝悲願誓同不請友慈哀故示採蓮師
東林社結分階品西蜀爐開有便宜若個攪翻無垢面倒跨鐵馬杜閒詞

初夏寓觀音菴苦雨感賦

登臨訪故慶檀波梅雨流漣沒澗柯一曝十寒生最少五更三點漏偏多
陽舒須倩拏雲手霧釋維期鼓棹歌幾度憑欄觀瀑漲緣迫斯匿睹恒河

和宣慰馬司君宜亭韻

河山帶礪樂亭嘉遞代恩榮仰麗華金谷觴添斑袖舞玉樓瑞藹彩雲遮
桂蘭棠棣聯芳盛琴瑟埴箎唱和賒巧構營為深似海櫺開八面任天涯

步學正盧公韻

公轡臨時喜暫攀清風拂拂滿林間芬芳桃李開窗面淡蕩溪光映斗山
揮塵談玄據聖慮論經化俗解民頑相將擬話無生句山水悠悠景色爛

重遊方廣有懷

巍峨祖脈倚天山層疊峰巒涌鐵船野逕曲岐迷古道荒煙幕覆隱宗傳
重輪佛日真身顯再沐皇風覺果圓更冀寂光時照拂心花開燦闡優曇

秋日過觀音寺訪嵩璞耆德

新秋火鏡尚高懸興適還期訪舊賢妙湛身心三十二陀羅手臂萬百千
山橫玉案來東嶺水遶吟龍出右川喜雨不須頻作賦相將一笑卻歸旋

辭院出關感賦三首

二十餘年住此中棘林變作梵王宮積銖累寸恢先緒茹藥飲冰鑑古風
蝸角蠅頭匪事志烏居魚食信參同鴟鳶嚇鵠徒張喙螢燄難將蕪海空
三載工夫未克周池魚無妄起魔鉤菩提種布終成果又聚形開始就頭
天地蘧廬憑任運山河關鍵洵遨遊可憐簷外飯生雀朝暮無餐空鬧啾
謾謂吾儕輕浪遊滔滔虐焰苦搜求鉢囊檢點徒羞澀杖履追隨適去留
一片痴心唯自解千斤重擔倩誰酬竿頭掉撥圖真化不釣金鱗誓不休

謝學正陶公元日惠念珠

晝夜輪來百八數數完理極任周旋性天月朗光明潔識海波恬珠媚鮮
韓子留衣輝法苑蘇公解帶鎮林泉何如今日齊穿貫一顆圓時萬顆圓

臨江八景總題

鯨音大振覺群生桂魄光浮夜氣清頑石含瑛鑑照朗靈蟲貢寶物華明
暮煙宛轉山拖練澗水委蛇地涌瓊卷幔天河頻倒瀉陽回淑景萬方榮

吊恒心禪德

守道精操數十秋培元梓幹衍宗猷滿期東建新蓮社詎意西歸預聖流
君願既周功早熟予懷深慟愧遲留了知個裏無來去恒燦心化五葉優

瀘陵白塔

肩級玲瓏勢接天登臨一望邈山川遊人簇雜蟻旋磨奉像蕭疏石綻蓮
二水遶環雙應現四方拱峙總殊妍到來未暇論賓主共座分居各晏然

詠梅兼柬圓森去文二座

雙株頻綻逗先春我過尋幽意可人噴鼻直須經九上還拳尤喜越三登
冰肌傲雪偕微笑玉骨凌霜凝化神眾美群芳欣賞鑑成圓調鼎洵舒陳

題燈

微塵普現一燈中一燈悉具微塵義試觀一一燈光明究竟咸借油薪力
我有靈明不借者歷歷明明莫可把顛拈倒弄任施呈豈是尋常之乎也

贈別童兄和尚

遽奮搏風翼摩天邈萬程出北誠佳賞圖南意更殷勁翮超群羽挺特傑
時倫翛然難比況卓約詎可評壯志寧如此誰為競流行杳渺天地間一
目盡煙塵湖海鉤竿別乾坤局調新高超千聖軌獨步祖庭闔佇聞花雨
靄還期龍象騰杖錫今飛也塤箎異地鳴去去難為別蓬帆憶遠雲致懷
聊以贈願啟少林春

贈別李鎮臺

憶昔武侯初澤隆于蜀地殷勤盡國忠憂恤樂民義輔弼壯千夫謀猷冠
萬帥移星換斗機浴日補天智夷夏仰殊勳叟童懷去思博施念未灰遺
蔭情何寄再見韋皋仁重逾淑度治呼禽布勝因感羽輝舍利爰古以驗
今疇能芳厥緒弗憚運籌功唯守安常志公賦三生約我承兩諦備緇侶
慶檀波黔黎樂蔭庇德師自融融福源亦易易丁斯鼎革時潛御韜藏轡
大樹應方榮細柳聿增翠偉哉過量人佛果永斯記

祝宣慰馬司君

紫氣騰函關庚星耀倚天八紘雲冉冉四面水漣漣桃熟降王母榴開醉
李仙鹿車欣御伍鶴駕喜盤旋文物多師古詞鋒伴友賢玉堂光不夜金
谷酒如泉鐵券分符永銅章浥露淵宜亭增晏樂閭苑益真詮味道瑤池
上逃禪象帝先法源二諦共誼結三生緣趙老時攜晉寶公歲滿延依依
何以頌願濟海山綿

新秋有懷

颯颯淒風至蕭然景物殊雲迷古道隱雨滴徑庭蕪法係憑他濫禪心雅
自符報予林下客守志急其孤

中秋無月有感

寒蛩經噪砌隙 晷影頻移人調秋中節我傷法晚時桂輪懸帳幕冰鑑覆
簾帷寧尚蟾宮步連空一掃之

步劉郡侯韻

兩諦何殊別唯空與未空慈雲周性海惠澤溥仁風報國心丹赤投機雪
點紅世間出世法貞越詎能窮

寓石鼓和馬文學韻

石鼓聲傳久推敲意可人爐山空秀麗錦水益清新隱士昂藏志衲僧散
淡身融通不二旨相共話無生

贈余三護法

錦水一澄清唯君惠澤深幹旋舒壯志經濟冠元勳漁牧關城閱琴堂座
席煮相期話不二兩諦喜春听

贈吳郡侯

梅燦喜芳妍馨香播九天陽春洵有腳愛旭映全川里巷歌聲遍關城瑞
氣延林泉何以頌可是應金仙

祝嵩山居士

二載隱天臺埜心雅快哉採芝尋古道煨芋待英才寶掌乘雲集安期駕
鶴來南星庚耀朗共赴海門開

示聞一上座

祖庭拭望久機叩應臨時青眼恒瞻盼赤肩每在期開胸隨縱奪捲席任
成褫卓爾徹天躍垂鉤四海涯

示泰來上座

君為我而至為君我特回尋源探虎穴達岸鼓雲雷頭角興競出掌拳俱
拓開搏風宜奮翮泰運自天來

贈睿珍上座

擔荷經年久參差謾躋攀乾坤朗若鑑今古鎮如山祖道勤珍惜宗綱莫
放閒行行須穎脫宜闡上頭關

贈馬司君

應現主中主天然尊貴殊玉樓懸古鏡金冊篆新符二諦懷無間三生約
有孚靈明原卓犖進步足良圖

祝武郡侯

庚耀燦浯水籌添澍島萊仁人躋壽域庶物樂春臺權應五驄瑞維期萬
戶才林泉時祝頌指日仰三台

祝劉鎮臺

喜留籌添屋欣聞里巷歌天香雲結篆桂子月繁科一路威聲遠三秋露
沛多舞松連紫氣惠澤孰能過

祝黃守府

節度重臨蜀涪陵紫氣陳松屏增列翠黔水益澄清上苑桂棠永瑤池桃
藕榮萍心何以晉山海慶同春

壽汪三護法

九十春光遍關城景物嘉翠屏朝獻彩紫極晚飛霞日啖冰桃藕時餐玉
李瓜苳情何以贈芹藻賽丹沙

贈馬護法(代作)

靈峰親記荊法社喜同源支許耽巖谷李楊振教門金章蔭祖德鐵券鎮
宗藩兩諦欽擔荷依依介一言

贈俗兄

手足重逢日依依儒釋親兩間成皓首一氣度玄津慧遠邀蓮社淵明醉
本真就中稱快處濟濟蔭瓊林

贈俗姪

至親喜再邁一日勝於年逸翮知元壯修鱗洵夙緣家傳維啟後世業已
光前埜外儔堪贈吾宗慶躍然

贈學正鄒檀越

多年懷夙願君為我成圓藏海重輪永壽山鞏固延千秋經史聚億代桂
蘭聯更冀三台耀常持佛日宣

登重龍山(上有龍池水來鶴亭)

覽勝重龍上登臨眼界超鶴來擬丁令杯渡換王喬企足捫星斗凝眸遠
市朝惟池高且潔飲鑑滌煩囂

再步重龍兼柬羅學正

重龍稱勝趣泉壓眾山川源自定中發鶴從空裏旋憑欄低市井倚樹挹
雲仙追昔古資治幸今仰二天

贈重龍住持

曩昔水觀出而今山厭看水山轉舊局日月運新丸具是堅貞操持斯方
便竿濯纓濯足者慎毋自輕瞞

即事偶占

踏遍雲山趣大都洵夙緣君來胡應現我至即還編葦渡疑真教桴浮匪
浪傳棲棲何所事界海任翛然

和學正熊公

憶昔賢芳躅遐心憩輞川優遊唯學道笑傲喜逃禪反第還皈佛投機法
悟仙相將語不二謾自謂幽玄

其二

諦觀諸萬象山靜水忙忙老樹枝蒼翠新林葉淡黃松篩金粉膩池茁白
蓮香若個能齊物來同共飲光

五言

重龍山晚眺

重龍晚眺望夕照挂枝斜坐樂觀魚藻行吟聽井蛙
其二

龍山高且潔池水甘而勻樹曲如虯伏石橫似虎蹲

臨江八景

翠屏春曉

翠出群峰外倚天勢莫休挺然擁岸立淑氣滿林丘

紫極晚煙

淡淡如鋪練橫拖紫極前詳觀其出處遠罩夕陽邊

治平晨鐘

鉤聲徹太虛震起斗杓磯驚醒群生夢行行得自揮

巴臺夜月

玉魄正懸空漁人鼓浪中棹穿一天碧釣起滿江紅

鳴玉浮沙

溪湧金沙聚人遊玉帶圍相逢不是路來往步如飛

西岩瀑布

誰將此素絨閃爍挂懸空織造多機巧絲毫不費工

石臺照鏡

頑石解含情溶溶若鑑瑩屋廬皆端映竹樹弗倒生

五龍托寶

江頭堆異蹟宛轉若虯龍共捧團圞石回環洵水衝

平都山

仙去名猶在山空水益清我來纔展拜佇聽鹿長鳴

拈頌

聚雲師翁荅漢月禪師四問。

第一問正睡著時與死了燒了心之與性牙齒打不著須向這裏希取大用如何是此處大用。

荅云南泉貓兒趙州狗子。

頌捏不成團撥不開如如了了自徘徊旋元根境離回互彌勒徒勞顧善財。

第二問沿流不止絕卻真照照不到處如何是吹毛用了急須磨且道磨個甚磨。

荅云鐵稜角丁丁楞楞水鳥針颯颯瀟瀟。

頌線斷重聯鏡破圓前三後四了無關磨稜合縫阿誰鑑黑漆崑崙一串穿。

第三問用處既已脫卻心性且莫在離心性處躲根除此二邊如何相見。

荅云朝拂南浦雲暮捲西山水。

頌獨露全彰空劫前霧銷雲淨月華鮮漁翁棹破三更夢野鶴枝啼半夜天。

第四問近世野狐都說心性禪不知姓張姓李請禪師代荅一轉語貴圖天下衲僧脫卻腥臭。

荅云麻姑擲米去丁令化鶴歸。

頌百家姓趙從頭錯彼錯此錯錯莫休錯錯頓令錯亦錯一天霜月晒骷髏。

舉聚雲師翁問漢月禪師四問。

第一作相問用水一碗貯米七粒架茅草十字在上請道是甚麼義。

荅云撲翻明鏡換烏珠粉碎虛空抽橫骨。

頌一二三四五六七七六五四三二一顛拈倒弄行摩訶摩訶般若波羅蜜。

第二問為仰九十六種圓相收在六義這個收在那一義。

荅云陳公睡重疊老眠輕。

頌一團和氣鼓春風八萬四千數莫窮只在尋常方寸裏熨斗煎茶銚不同。

第三問古人道八角磨盤空裏走不知是空走磨磨走空。

荅云跌宕二儀摩娑六子。

頌日月籠中鳥乾坤馬上毛放去也轟雷掣電收來兮靜浪潛濤俯仰折旋無不是何如畢吏飲酩酊。

第四問老鼠吞大象蝦蟆口咬著吞不入拖不出蒼頭老兒跳一步請下一轉語。

荅云風吹石臼眼麻迷。

頌六根互用碗脫臼四大抽添眉結條寄語時人休顧戀一聲款乃徹雲霄。

舉聚雲師翁令僧問破山禪師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語未終山便啐僧云作麼生會山云會個甚麼僧作禮山與一踏僧云還有麼山擬取棒僧便出師聞之呵呵大笑。

拈云啐與踏棒與擗是耶非耶至今誠為不了之案何也謾道笑裏無刀。

頌卦爻未動早蒙屯況復披雲更露文爭似東風一吹綻千紅萬紫逐時昕。

舉劉墨仙居士持聖恩錄與聚雲坐間論及楊岐九峰之語雲問曰正恁麼時楊岐在前九峰在前士良久遂問和尚作麼生雲便喝士曰這一喝是前是後雲翹一足士便禮拜。

拈云唱喏和于乃後先之啟迪喝中棒下實賓主之機鋒個中還有不蹈此輒者麼也是徐六擔板。

頌問道何如見道真敲枷打鎖貴無心翹伸參禮觸體露已覺回頭錯應人。

舉聚雲聽晚課畢問僧云僧是自已又皈個甚麼僧云和尚也須歸方丈雲曰用歸作麼僧趨前而立雲曰好個臨終西方境分明在目前僧云用臨終作麼雲曰我是死了不曾埋底僧云若活來西方則無矣雲曰如佛度一切。

拈云好個西方境無端添了許多狼藉且道如何與伊除卻數聲清磬是非外一個閒人天地間。

頌求人莫若求己倚門傍戶暫止家家路透長安未識長安程幾程幾幾
方寸裏一元燦燦三輪濟濟。

舉聚雲問僧汝自金粟來如何是金粟得力句僧云白雲覆青山青山
不露頂雲曰此是意識家語如何是得力句僧云虛空粉碎大地平沉
雲曰此是義學家語如何是得力句僧云一拳打破時如何雲曰此是
衲僧家語如何是得力句。

拈云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雖然言端語的未免苦口叮嚀要識叮嚀
處麼一番遇飯一番飽一度聞雷一度驚。

頌肩擔日月步風雲俯視乾坤灰線痕線斷焰銷絕朕跡從教鷓鴣叫深
林。

舉聚雲閱五代史次僧問云既是死了不曾埋底又如何答得話雲曰
唐以劉瓚為秦王傳。

拈云農家不管興亡事盡日和雲占洞庭。

頌剔透肯綮不留筋庖丁刃發若新斲停刀四顧儔能解煙水茫茫泡影
明。

舉僧問聚雲世尊道天上天下唯吾獨尊為甚麼雲門要一棒打殺雲
曰路見不平傍人鏟削進云既打殺為何將與狗子喫雲曰一報還一
報。

拈云從教冤債自分明千古萬古阿喇喇。

頌見得分明用得親不平還有不平人個中娛樂無窮已那肯輕將持贈
君。

舉僧問聚雲曹洞宗旨雲曰汝曾問過人麼僧云曾問瑞象來雲曰渠
作麼生荅僧云他豎五指雲曰死漢還問甚麼人僧云問萬峰雲曰渠
作麼荅僧云他打五棒雲曰死漢僧便問如何是君向臣雲打僧一扇
如何是臣奉君雲將扇一旋如何是君雲豎起扇如何是臣雲橫按扇
如何是君臣道合雲擲下扇僧便禮拜。

拈云東坡羹看破天下禪和子聚雲扇驗盡世上野狐禪若遇醉臥雨中
並其一而亡之者來又作麼與伊打當。

頌機不離位墮毒海乘時打劫陷深坑奉向共功功弗共日午三更調轉
新。

舉聚雲問書記云會寫不怕筆頭樁記云不打這鼓笛雲打云不打這
鼓笛記云無手人又作麼生雲打云不打這鼓笛記云草裏漢雲復打
云不打這鼓笛。

拈云皮也無打甚麼鼓鼓也無打甚麼皮雖未爛額焦頭難為毘鼓畢
地。

頌鞞鼓年年鬧不休何人善解汨江愁滿聲直透雲霄也免使華亭覆卻
舟。

舉聚雲問僧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首山念唱道大慧依樣畫葫蘆聚雲又作麼生僧云鐵稜角笑殺水烏龜雲便打。

拈云雖然不借陽和令自在東風暖上林。

頌顛拈倒弄慣施為唱道依摸總屬痴菱角烏龜開夜晏從教一擊亡所之。

舉聚雲因僧多慕朝海乃云海雖闊大都是川水流去底僧云未審川水在甚麼處流來雲喚侍者云盤中菜著些醋好。

拈云海水雖川水匯源卻也鹹淡各別無端添醋其中可謂酸鹹得所。

頌萬派朝宗入海源酸鹹苦澀一般餐舌頭好教知溫暖唆著些兒心膽寒。

舉聚雲因侍者設桌太遠雲自撤近前者云君子離臺三尺雲曰小人擗者云挨桌磕膝雲曰衲僧分上者無語。

拈云中庸之為德全在體物而不可移侍者幸自不語若語未免反了中庸。

頌踢倒飯床捲卻席小人君子兩難立面皮翻轉衲僧機無言有語只這是是不是王老莊中喫油糞土地至今猶害噎。

舉聚雲示四字。

戾

拈云頭戴剛叉帽身穿衲結衣。

頌魚遊江水月當空散步徜徉興趣濃木馬泥牛憑運轉銀河斗柄直朝東。

𠄎

拈云看他家事忙且道承誰力。

頌幾度憑欄數白雲山頭石畔恰相應腳跟弗動閒觀聽鳥語溪聲演梵音。

𠄎

拈云舌端湧素馬鼻息納金牛。

頌煙嵐為蓋月為燈鐵脊隳空萬境澄耳裏厭聞吳鼠鬧眼中詎視黔驢鳴。

𠄎

拈云翻身那管布單破普天匝地一聲雷。

頌地作枕兮天作衾一齣鼾夢老乾坤黃梁熟矣華胥覺喚醒從前錯悟人。

舉聚雲師翁示眾云(沒量大人被語默裏轉)撥塵見佛(抖擻破瓦)佛亦是塵(光耀恒沙數)問了答了(兒啼女哭)直下翻身(還須擊碎觸髓)請君再進一杯酒(爭似盧仝七碗茶)西出陽關無故人(腦後見腮莫與往來)。

拈云一等沒絃琴三換無孔笛。

頌淡淡煙籠樹影橫松濤竹詠雜溪聲誰知陌上黃鸝囀露出深閨幽隱情。

華嚴三觀頌

色空無礙雲飛天外颯颯颯颯霏霏霏霏景靜物閒神融意醉沒頭沒腦
大虛粉碎
理事無礙須彌投芥不寬不窄穩持穩載無正無偏不觸不背縱奪卷舒
我觀自在
事事無礙蛇蟲蜂蠆活捉生擒貴買賤賣六道逍遙四生萃類不乞一文
放下布袋

十二時歌

雞鳴丑驚起子胡那隻狗聲吠嗥啾醒齟齬角催嗚咽寒星斗慢思惟慵
動口下榻更衣正抖擻究竟堅持獲法身妙音清梵勤操守
平旦寅曙光灼破廣寒城琉璃殿上逍遙過碧玉階前坦蕩行不羨貴不
憂貧乾坤讓我一閒身耽名逐利輕浮子樂隱修真散淡僧
日出卯光輝萬象分妍好無絃曲調協妙音沒底籃兒盛至寶徇賢愚隨
拙巧一齊附入靈雲老桃萼芳鮮醫眼沙梅核渾淪塞口棗
食時辰收摺巾單入眾行撞著飯頭橫鐵櫬返聞齋老度金針末後句讓
當仁從教同吐不同吞吸乾滄海母勞舌嚼碎虛空不動唇
禺中巳搬柴運水原常事拾得一頭拋一頭解空四句非四句莫踟躕休
擬議折旋俛仰無不是兩翼蜻蜓俱摘卻一枚鐵釘恰相似
日南午時御白牛親步伍掩耳偷鈴樓子歌奪精賣肥盤山脯唱者唱舞
者舞脫落繁柯毋滯阻得得撲翻布袋錢斑斑倒跨豐干虎
日昃未明白轉身親異類縮尾伸頭假顛狂張牙露爪閒遊戲脫功勳卸
尊貴若不拿三便道四雉雀冲霄羊角搏野狐陣鼓金毛隊
晡時申忙著蓑衣整釣綸樵子負薪擔霧重牧童橫笛隔煙輕小釋迦老
華亭者回負命有金鱗短舸巨楫俱拋棄餌月鉤雲一並吞
日落西分咐泥豬並癩狗朝去暮來勤把捉出作入息牢堅守叩妙玄問
知有管他陰六與陽九擬于天際覓南辰巳自袖中藏北斗
黃昏戌縷腰繩子常收束夜明簾外快抽身荊棘林中謾住足莫瞞預勤
照燭寧分稚壯與真俗薪傳一盞無盡燈焰覆三尊常住佛

人定亥玉魄懸空銀色界不須黑夜扮觀音寧向太陽粧自在原本有非
借貸何必囊藏與被蓋蕉鹿既空心性恬華胥早覺夢魂快
半夜子於穆緝熙存敬止泥牛啣月臥深潭木馬嘶風棲澗底飲瓊漿餐
玉醴個個無禪長者子自覺覺他三覺圓後天天復先天啟

讚

慶忠老人真

稽首禮師像像兮不可擬翹勤讚師真真兮妙難比讚禮俱莫及冤結何
時已劈筭奪窩貫便神鋒就機打劫徵入骨髓惹得兒孫苦效顰向道眉
毛生板齒那裏是毛生處響裊裊香煙白鶴飛轟轟雷電金光紫喝一喝

慶忠老人半影

眉橫鼻直睛青廣頰豐頤月面捲軸丈室相親原來只是者漢唯其個裏
丹衷匪輕可以稱讚繼起也狐涎勢若消霜整頰兮細軌洞然懸鑑噫賊
私露出沒遮欄一任大小半滿在在處處隨宜應現

釋迦栴檀瑞像(有恒禪人請)

大哉能仁示茲瑞像不居王宮豈住天上剎塵遍滿匪虛匪誑一瞻一禮
莫輕瞞是則有恒真供養

送子觀音

童子在膝紫竹參天撫摩顧注慈意宛然婆心急切悲願恒圓龍女近侍
善財遙瞻意其有法說兮休從眼聽意其無相睹兮毋用耳觀如此方得
大自在夫是之謂有靈有感有因有緣

祖峰和尚

認真即假以假為真真假不立讚頌何云何所云卻有憑憑君崛起祖室
憑君丕顯門庭門庭祖室重恢拓從教依鉢自繩繩

徐見宇善士

耄耄介壽兮瑞藹忠南玉筍斑濟兮永永厥傳塗染丹青兮猊像生嚴手
執箠扇兮舒卷優閒蘭芳桂秀兮於斯見焉讚諭莫可紀及兮從教香煙
綿邈萬億斯年

徐孺人

手輪一百數循環靡罄靡窮坤德卓爾厚載植梨橘抽崇隆念念欣從樂
土心心注想金容酌水獻花勤頂禮彌陀親記獲圓通

松下達磨

昔將隻履西歸今則雙屣仍見蘆葦變作葫蘆擔頭少卻經卷總是丹青
妄塗摸致令吾祖巧應現輪珠疊膝信安排未識婆心那一片是何婆心
響唳松陰爭似嵩山堅壁面何如親覲面

觀音

童子渾濯俊猊威寧兩兩互相參禮巍巍疊坐慈尊這慈尊勿外尋在邇
而求諸遠在己而求乎人其人其人水月珠珍原在海鉞[金*弁]釵釧
詎逃金

面壁達磨(二)

三三挨過年頭一一不知月尾苦苦面壁何讎默默腰雪失理大家徒費
痴肝腸他咱原是我的你你你都盧是個真師真弟子
脊骨剛似鍊心膽逕如風九載熊山闌寂一花少室崇隆盡屬懸疣負贅
徒自避影逃空還知後面底人麼才也養其才忠也養厥忠

渡江達磨(二)

犯人苗稼摘蘆枝撥浪穿沙涉水泥不是無端輕賣弄總為痴心未化而
那裏是未化處忙攜隻履潛歸去又被宋雲識得伊識得也卻無詞嘴烏
面黑到斯時
對梁皇云不識一葦航飄然去雖是浪靜波恬爭奈悶來多睡至今猶未
醒醒鼾聲遍震天地且幸長年懵懂稍覺時勢須還神光那一臂

自讚

原名治平祖堂敕建振宗禪寺維其創造兼守不惜腦門著地一味素分
安貧百般外緣不事弗拈三要三玄務徵末後一句非又不非是卻不是
腳跟掉動解談禪鼻孔無聲演妙義噫(妙微上座請)

功無一點事有千錯株守振宗三十載餘偶遊江浙四八月個無端描寫
陋形卻是照程列課謂是竺峰耶可諾則諾謂非竺峰耶將錯就錯錯不
錯高豎兩道粗眉一任諸人說長短論醜翻談毒藥喫(渾玉上座請)

本無位次何用安排不偏不倚如去如來強將圖形畫影洵是火裏蓮開
蓮開從教香九九燈籠露柱舞三臺久踞振宗寺遠往江浙回回還迴無
有何定水邊林下暢予懷暢余懷雅快哉曇林瑞蔭香煙永塵尾飛揚慧
炬輝(曇蔭居士請)

見初禪人

手持一百八循環合其數見見之時念不妄兀兀其問醒初步梓枝挺秀
真俗芳花蕊芬榮枝葉裕云是像兮矚之不見其光言非像兮卻之端有
本據是何據六字耑持聖德昭生生頂禮波羅蜜諦

嗣法門人性印徒海(覺 澄 清 明 台)孫寂(壽 長)

捐貲刊刻

本師老和尚語錄第四卷

竺峰敏禪師語錄卷之四終

書問

復沈縣尹

掀翻界地若為酬擢破虛空誰可補直謂大居士所閱者先老人錄耳詎意(某)等俱被青睛賞鑑耶譽(某)乎冤(某)甚矣蒼天蒼天翰札諄諄誠有未見老人之嘆然老人鼻孔既落居士手中老人面目未嘗不在居士眼裏似亦可以無憾舌頭在口居士業已自信更復何說遠承遣莫兼荷誅辭老人這段光明卻又向居士筆尖頭流輝去矣所請舍利如命數十顆幸珍重藏之敬寄老人遺杖一莖字帖一本一任我大居士焚之折之惟不作吾宗話柄可耳。

候童真和尚

恭惟吾兄道行海國名振蜀川棒喝齊施滿地狐涎消曝雪宗教俱敞遍空花雨藹晴煙匪特布千古徽猷亦抑啟百代異業敬之深矣慶亦悠歎(弟)迺樗散劣質忝同社火甄陶赧承麗澤相滋愧未青藍企及年來雁行折陣徒切春樹暮雲素鯉頻臨一代時師收眼角佳編三復萬里英豪納鑑中更祈折攝等慈文頓使頑懦解便僻躋攀莫定把臂誓期大家打鼓弄琵琶一眾登堂歡燕翼俚辭裁復郢筆當揮。

候嵩山馬司君

百辰拱聚萬彙敷榮榴開壯不老之丹桃熟慶無疆之福正鶴筭與時偕臻寶籙並日俱永矣賀賀曩接翰教足徵注念總緣去不忍愒之心不無一番濡滯是以未遑報命夏初承貴治譚門眾檀信重為挽留故爾暫借一枝於新聖耳緬想大檀越法誼攸關同風千里自是不以遠近內外殊觀也適茲嶽降理合登堂快睹百壽圓開欣聆千秋歲永攜雲門邀趙老庶宜亭真樂別增野趣其如拄杖子不力徒增戀慕已耳聊申賀私曷勝神往。

復杜瑞蘭居士

桃李培春樹經書掩日扉正居士樂自然天地快清淨之神魂荷荷治平這鋪功德承諸檀極力劬勤于月八已將圓滿矣唯恒嘗守護道誼愈嘉下手

點眼者能有幾哉姑拈則古人公案以似昔張拙秀才參石霜和尚霜問曰秀才何姓曰姓張名拙霜曰覓巧了不可得拙自何來才有省即呈偈云云居士但將這公案朝參暮叩念念予懷則倉忙壯稚無二乃心巧拙賢愚唯一其志如是匪特松蕙穿針自應金針刺腐耳有何難易苦樂之足云乎。

復童和尚

濟北之道慧祖重光朝陽之傳雲翁鼎振微我先老人於干戈劫焰中轉大法輪儔能克昌厥後丕顯宗猷哉吾兄年來戮力法門苦心苦志綸竿指處收盡奇英第未識負命金鱗有幾耶今別和尚又將派匯南洋益知我慧祖之道源遠而流長也(弟)幾欲順舟與兄共賞普陀勝蹟無何忠郡文武護法再四挽留去不忍忍住則神疲話聚姑有待耳吾兄倘懷故里著簪遠邇圖新大業俾一燈聯燈以至無盡燈一傳再傳直欲千萬傳在在甘露門開頭頭剎竿幢建正符仙箕所謂逢虎大闡風聲遍動明矣關山修阻惱我遐思寤寐時通筆舌難罄。

又

蘭芳春谷菊綻秋籬彼物物也而能順序與推應時不爽者如是矧茲法運興隆因緣輻輳又豈偶然哉目今別公海上獨步吾兄在處卓標我老人與三和尚寂光中不言而慰不介而符易東道南之慶匪筆舌所能悉矣唯(弟)株守治平痴拙自甘年來鑄造諸功德兼啟三載幽明兩利勝會雖則稱水和泥似覺勞勞靡息欲罷不能良由福慧二嚴未獲精誠純萃故爾舉動維艱親教愈遠吾兄邇者作略新奇道聲藹著自是人天愛戴神鬼欽尊則在在廣建赤幟頭頭奮發俊猊四海英賢疇不欣其徑山楨幹益榮佛日輪光普耀致若妄庸魔吐何煩芥帶齒頰哉螢火詎傷日月之明乎地遠哀長穎楮難悉。

復別菴和尚

聚雲先師翁曾於朝陽洞中識得徑山一口慧泉在在標名時時顯字是以涉海入吳適閩過越方向湖東院裏輕輕逗露腥薌諸方將來錦水江干三日山頂激揚湧沸霧驟雲興一時麇至者夥矣得我先老人繼起盡此一派曹源直入干戈劫火中振鬣無休霏灑靡罄嗣後玉印江頭又得解擔於高峰和尚復攪長河收入一滴持向樵李鴛湖一番洗雪源源本本冤結無休今和尚卓爾匯含南溟奚啻搏風九萬激水三千誠所謂斬新日月特地乾坤(某)雖放酣丘壑而志願足矣但未識這點真源從教永住白花按時潮候更須杯渡普濟群靈也耶雲月雖通關河未免少間屢承索我賦私至若(某)之素志實懶且拙矧年來株守治平日與木石撕結雖有數則唾餘無乃應時塞責詎可遺臭諸方頻煩注念增愧愧耳讀諸佳編著作清新發藥

超邁暫爾皇恩遠沛天使雲臨佇見紫衣光賁佛日重輪矣唯冀深穩德性
大展金鑰謾謂智老再世即起從上而問亦莫是過者筆莫悉衷神與俱
往。

又

王老師修行無力卻被鬼神覷破土地前更添一分治平拄杖今將[跳-兆
+孛]跳又為檀信東扯西拉那一分畢竟指向甚處安著好細讀歷歷佳編
綽綽然確有回天之勢益思隱隱愚衷急急焉恨無縮地之謀恁麼也不得
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和尚其何以寬慰我心耶致若晤聚商
酌之縷衷愚若賢座自為備述茲不贅。

復體如和尚

白露凝寒梧葉墜玉輪皎潔桂香飄正和尚德化維新道行普應時也羨羨
(弟)年來木石勞勞靡息雖暫渡江南休靜三載無何治平未得卸肩客冬
又被郡人士再因挽歸了此蟲豸和尚聞之惜乎慰耶屢承翰教盛貺不為
禮數優渥兼之獎譽過情頷愧良多近聞拄杖芒鞋有[跳-兆+孛]跳之意
特走奉迎倘慨惠然詎獨手足得以聚談益令兩諦渴塵一瀉條聞烽煙之
傳而道人拄杖所指自有龍天拱護況治平新聖相望咫尺南北叢席任意
安居幸勿遲疑解我懸念。

復醒徹和尚

天地蘊蘊也長揖者只經一宿古今傳舍也采真者無容半偈斯語匪獨為
世諦而言即林下人亦莫是過者自癸卯別後再圖聚首詎意甲寅變起倉
卒急歸治平圓成祖塔逮塔工稍就而祖席缺如復為匏繫雖年來滄桑幾
度日與木石撕結勞勞未已是以手足各天衡音杳若甲子冬暫渡江南漸
圖白下無何忠石兩地諸檀信再四挽留只得勉焉寓錫於新聖院耳適接
手翰依依宛如覲面所云秋晚後進日擊心傷在在在同況唯冀吾兄深穩德
性益增遐齡與趙老寶公把手共遊則獅子菴中多獅子子兩諦光揚端有
厚望在焉。

候嵩山馬司君

條焉山林忽爾城市城市山林雖別然而斗柄猶在河漢間也二載隱靜天
臺叨荷福庇已將口掛壁上飽飫煙霞心鬯神怡詎意客冬又為忠郡官紳
士庶責以大義勉歸治平整理祖室是以匆匆渡北未及音聞遂結百廿期
場仗賴遠注周圓矣法乳之恩雖獲少酬先老人之萬一柴米鹽醬未免挽

撒如許大護法可是為(某)惜耶喜耶倘或二途不涉試問南賓主人還肯合本圖利也無。

候黃星馬檀越

鷺嶺花猶茂嵩山髓不枯益知南賓城中金粟應身有在也荷荷(某)年餘隱靜天臺每承遠注閒來採茹拾芝大快雅志客冬為忠郡諸檀奪我所好復歸治平重理葛藤建其百廿制期已荷周圓雖則少酬先老人法乳之恩然而創業維艱守成亦不易易耳我公其何以為(某)善策耶肅裁代面不宣。

候石司馬新君

睽違台教裘葛屢更雖日與木石撕結然孜孜拭目覓種子隱隱伊人意可懷近者偶寓十方堂中閱雲兄和尚法錄始知雲老漢一時謝擔大居士兩諦親承眼目人天詎同小小聚雲一宗燈燈續焰端有厚望在於南賓山斗矣肅械申候以致永懷。

鏹可中馬檀越

昔龐老將家財悉沉滄海闔宅熏修今我公率身家隱處市廛幻視塵境正淨名所謂不起滅定而現諸威儀不捨道法而現凡夫相其性天之樂聲臭之旨捨是又奚從而他適哉今幸聚雲法脈光著南海我公聆之能不躍然耶(某)擬送先老人舍利於中建塔肯慨捐一分梅檀遙申普陀代爇否別和尚來書云有續燈正統之編我公護法入室有年可中居士寧不與子韶無盡並耀聯芳乎筆舌聊通企仰莫罄。

賀劉鎮臺壽

恭惟鎮臺大檀越台臺五百名世八千大椿膺天寵以永年輝增南極錄仙斑而益慶澤沛東川多祝媲美于華封譽望稱隆乎郡國士民感仰泉石歡騰(某)行愧前賢功慚宿哲霞可餐水可啜願學古人誓未果關未周有辜護法頻蒙檀蔭方圖瓊報之未能喜值鶴齡適幸嵩呼之有自三生石上每懷夙邁良緣萬福堂中弗獲躬趨今旦敬具不腆之私敢曰甘泉菊水伏乞如空之納竊云棠詠松陰德盛千秋芳流億祀伏冀椒花日啖石髓時滋巨富龐公寶船永濟江海須達長者金磚常注祇園五福駢臻九如耀麗謹啟。

候嵩山馬司君

宜亭佳製巧奪天工騷客品題光瑩斗極雖未目睹耳食之大暢埜懷臯者我公屢索俚句第年來木石撕結筆硯塵生胸襟茅塞是以遲遲未復抱慊良多今渡江南來急欲躬覽勝概無何關居數載足步維艱故爾暫寓十方俟春溫凍解意轉棹別圖矣則笑亭借座之緣姑有所待至若治平祖堂祖塔寶聖兩代錄板統祈遠垂照拂感佩匪獨(某)等也先老人寂光中自是訂囑有在。

復千峰和尚

古人纔下禪床已謂只得半藏治平今日務須一一翻閱始獲正令全提恁麼不恁麼和尚堅密不動之體自是在在安恬時時保惜老婆禪脫空話豈容張喙於側耶尤幸線脈悠長勢藉重光祖室其鼯鼠聲潛蹤潛跡寶公壽益著益增俾三藏參禮於蘭院戒賢引讚乎竺天兩諦攸賴四眾欽崇正有日也萬望強飯寬懷龍天耑為擁肅率茲暫復並謝。

復馬新君

倚天恒巍峙萬壽永崢嶸祖孫迢遞瓜瓞聯芳正我檀越橋梓同躋壽域共享昇平時也適聞尊翁大人倏爾仙遊不勝悲感交集悲則悲其尊大人回頭覺早撒手忒遲感則感其我公春秋鼎盛政事維新至若悲感不相關一句卻也瞞我公些子不得那裏是瞞不得處嚮老安少懷崇矜式富庶教養壯輿圖肅裁暫復俟容崇芻。

又

曩接南賓方丈稿益知親承付囑之有在也第踞此室者未審借座燈王取飯香積令其三萬二千獅子座寬容充足否且道入室後還有事也無倘能于斯穎脫則在在甘露門開處處赤幟星布正所謂一滴獅乳迸撒七斛驢乳矣靈山一會儼然常住我公付囑卓爾荷擔彼嘖嘖榆枋者何足與之較量哉。

復學正鄒檀越

一庭春色入文章滿眼英才爭豔麗檀越無窮雨花政爾與時臻新矣羨羨曩者兩候江頭竟未躬親握別悵歉何似嘉平得接華翰始悉仙任早陞門墻濟濟總之入此堪忍場頭難免這番局套雖則暫履元階佇見萃升指日唯等以如幻一觀在在皆為遊戲三昧耳夫如是則雲路與林泉靡隔宦遊

共焚樂何殊統俟治平千日鐘會圓時少遂峨眉青城之念又得快賞逍遙
勝境促膝談心話舊端有日也肅裁暫復曷勝翹企。

復笑旨上座

丁卯嘉平掌老人親持寶器寄我治平社火爐中幾經鍛煉詎知此物惡辣
無端煙焰迅發故山焚示以科發少年之語信不虛也遽爾圖南適北光射
東洋氣沖吳越而且揭露我之贓私遙函數至乃知不負之心昭廓也尤冀
上座珍惜此器將來撲碎成團潛符密用兼復恒親鎮海令其白花穩過素
質無侵俾掌老人得所寄而山焚滿所望亦抑令鎮海分厥宗緒耳衍慶宗
譜光耀人天端有厚望在焉。

復海若眾座

雖有智慧不如乘勢雖有鎡基不如待時此古人確乎不可拔之定論第像
末之際道假人弘守經行權隨宜所適眾座既念承接不易報德實難即此
一念可以紹續宗傳恢弘先緒莫不由斯致也山焚幾有徑山禮塔普陀覽
勝之遊且於眾座決志向上者相拉其往其如檀信再四挽留且將內外諸
務安妥大覺更增起免眾座各乘本願毋忘先人遺囑早歸祖室同入社火
重經鍛煉三拳一掌報德酬恩始不辜人負己亦稍遂山野拭望眾座之素
心也雷此暫復不盡。

候武貞劉文學昆玉

梵鐸新成知音喜邁雖未獲親炙光儀然已飽飫惠愛兼復信施且賢昆玉
芳名載鑄鐘鼎永為萬代之傳恒布三生之果盈盈帶水鼓棹匪遙倘肯乘
興遨遊則蓮社之約又借沛露於黔水滋培多矣治平縱無沽酒以待卻存
煨芋可將春光明媚景物輝煌桃柳芳榮於紫陌桂蘭森茂於芸窗斑斑玉
筍實堪娛樂尤冀溟搏躍海逸翮靡天留笏住檀林慎勿謂苾芻生妄想
也。

寄況盈冲昆玉

人生如旅泊住則隨緣去則亡矣彼所得能幾何如令師覺菴上座之住世
出世也其所得者多而所益不少何也上座生平以仁濟為心其應上接下
咸皆等之以慈且好義勇為樂善不倦及乎一旦應夢而興出塵之想恩愛
不能留骨肉莫可阻竟赴山焚座下毅然薙髮剃鬚披緇茹蘖數年來孜孜
矻矻以圓通是念功行日新持誦不掇逮山野躬臨其境深探厥心雖病勢

垂危而意志無二雖未觀其脫去灑然其操心篤實處自爾穩步蓮階一超直入如來地信不誣矣賢昆玉慎勿過慟唯善繼善述恒以佛事為心則盡孝報恩統在是矣握管心酸筆舌難罄賢昆玉最之。

上座

乘勢待時各適所宜上座品識卓犖精操於南浦已有年矣山埜採聽拭望把釣於臨江詎無謂乎其聚頭日淺鉗錘靡致毒辣觀時下手機括謾露鋒鋞菊月廿間得接來翰益覺拄杖子慢過上座良多倘或鼓棹再遊切忌累及參蓮上座亦勿謂山埜重重錯愛好今於十月中旬確有普陀之行棹已買定晤睿上座可與共訂前約溯舟順流行止緩急唯眾上座裁之。

候若石和尚

治平祖席螳臂支撐幾去復來蟲豸未了客冬闔郡文武官宰紳衿護法共結百廿期制者令其同門諸耆德上座咸皆雲集不特以表數年未舉之禪規亦令後生晚進知有先人面目也詎意遠近相聞不一是以法筵中皓首龐眉弗獲齊聚耳今於月八佛誕圓滿尚不辭跋涉出江一晤茲又社火爐頭一番鼓動也盛惠附廚統謝並候。

復蓉城葉檀越

春光鬯茂景物舒融檀越壽祿與時序偕臻持誦協道念益進矣羨羨但以江山迢遞寤寐不無關懷幸爾雲月相通遐邇未嘗少間其所惠施如數收明已供大悲像前長年奉獻緣以來人歸緩因之修謝致遲緬想檀越無相心燈與金剛真體時時燦爛在在光輝匪特蓉城遠映浯江展轉光遍天下庶不負十數年弘護之至意亦抑得進彼此相遇一段奇緣倘能直下承當極力頓斷則慧燈悠永心焰長瑩治平有厚望在焉。

復黃陳眾檀越

弘彰法化一方之盛舉也大闡宗乘諸檀之盛心也具盛心而成盛舉則遐邇學行有不聞風美成厥果者哉山埜滿擬一至飽飫信施其如拄杖子有普陀之遊確於十月廿間棹已買定是以弗克領悉盛筵至若本堂內外學行亦以山埜束裝在即統未能應命俟容挽棹歸來重新社火復增護助正有日也肅茲率復不戢。

復學正鄒檀越

莫輕視此身三才在此六尺莫輕視此身千古在此一夕大丈夫之志當自求入火不焦入水不濡之道大安穩方為勝義而欲世界之不水不火不可望矣檀越倘于焦濡不涉間深契如幻則一切愁魔怒盡護法善神一切僊魔困魔悉為富相長者夫匪特桎衲在在金湯永賴四海處處甘露益沛濟疆矣述此而談似覺迂古忒甚然亦不誑不妄也言外百千三昧法因風說與個中人。

又

境中峰岑拱峙陽安署裏桃李芳妍大都孰占信是東君掌握荅幸我公梓枝挺萃尺壁騰光義教家傳故衣鉢不從外得也億溟搏大展高翔佇見紫泥封報鴈塔名題即叢林草木更俾亭有衣而室有帶詎非彼此千載之奇邁準提聖像如命附來然大士之願有求皆應無感通我公信能誠篤則響應必矣立驗至若進步竿頭又當於持誦外覓大士之真體也縷縷心悰筆舌難悉。

聯芳偈

囑鑑堂上座

功行隆時爾龍天鑑格主賓洽處務須針芥符投致令法系悠長益俾宗譜綿遠鑑上座曩受具足於先師座下復經策進於天臺山中濟眾無方參陳有據值茲溯流循本盛舉何妨稱水和泥添嘉直指淵源全彰授受聽吾偈天臺三載意慇懃接待唯斯一念誠砥柱中流捍水屏垣法海湧金城千江月朗千江印萬里雲開萬里明直下鉤竿須驗取為霖普濟潤蒼生

囑慶堂上座

川兄法系遙相委衣鉢真傳信屬吾踏遍天涯徵四足香浮海國蔭雙株機鋒妙密渾兼帶節候巧彰應合符拄杖拂莖齊付與羅龍御象衍宗圖

代囑正幢禪座

十方三世已親承法海幢幢正可人深養翼鱗頭尾具慈膏布露洽群英

囑覺堂上座

龍頭自古屬耆英守道淳真徇化衡末代規繩勤整肅先賢範快揮瑩精
藍鼎構殊王舍法苑枝分耀覺城祖佛家風憑展演宏施棒喝震雷轟

囑淨修大德

數代親依志願清莊嚴萬德證無生千斤重擔宜承接億世崇功允克成
鐵磨神機隨互換末山妙用洵舒陳騎獅坐象頻昭著衣鉢薪傳信受行

囑濟堂知藏

泗水曹溪共一源超然起魯更齊賢持竿持鐸開方便立主立賓應化權
入室務須勤細軌酬恩謾用展粗拳堂堂普濟周沙界佛祖心傳總荷肩

代囑繼堂上座

慶忠法席中興地繼起其中意可人直教授受輝真諦頓令原源耀祖闡
隨機建設彰權實就勢安身立主賓脅下還拳憑展拓曇華開燦逐時新

囑誨堂藏主

寶聖叢中育聖胎養成頭角喜滋培重圓藏海師資慶再展嘉猷祖禩恢
入室維持冰煉火開筵慣用雪烹煤個中消息隨收放灼灼優曇羨倍栽

囑永堂書狀

雙株開綻已多年在在逢渠洵有緣魏水植根枝永固平山培果葉繁鮮
塤箎疊奏無生曲手足偕彈沒影絃九上三登勤策礪燈燈續焰演心傳

囑徹堂上座

蕪染曾將個事期迴然闊徹悟無思已經密記親承矣更憶弘揚代囑之
二諦相關關法印三乘演應應當機拈花旨意微舒笑燦爛人天振祖規

囑碩堂上座

歷載殷殷雅誼孜誠心濟眾實稱奇杏林碩蔭祇林茂蟠果長榮覺果滋
世事揮榮崇法範人情益裕衍宗枝三拳一掌憑施設道脈親承正遍知

囑月堂知藏

稟賦繩誠意志諄三壇演習越當仁棒頭早已舒青眼塵尾今應繫赤鱗
倒跨金猊輝北極直撐鐵艇耀東明法門砥柱倚天峙華果繁英萬彙勻

雜述

募鑄四十八願洪鐘引

治平晨鐘乃八景之標著鎮居左臂實萬姓之屏垣晝夜一百八聲鉤聲振
醒齣鼾夢周圓四十八願慈願感招仁濟心須知循去即是環來要識得收
仍歸廣種砥柱城郭叮嚀鼓角協鏗鏘補障鬢宮羅列樓臺興壯麗鴻銘永
鑄懿範恒新。

新鑄鐘磬銘

佛佛授受祖祖聯芳鉗錘扣擊鐘磬鏗鏘繫維治平卓豎法幢陶凡鑄聖拓
梯設[舟*元]砥柱水口屏障鬢宮緇素饒益文武興崇福山藹盛慧海融
通大器聿圓洪範攸鐘據座居此嚴守意城毋嗜蠅利毋耽蝸名十戒毋違
五辛毋親寶蓮可誠僧護允箴恢揚道脈肇啟法源個個俊猊片片梅檀六
度常勤四誓益堅梵韻遍滿妙應綿延返聞聞性自覺覺他時新寶鐸日燦
心花運周劫石量等恒沙聲傳億祀永振無涯。

募塑功德引

巨舫將成必須珍藏滿載大廈甫就務期金碧莊嚴矧茲治平禪院先康創
修本朝重建通州關水口闔郡總福田殿角容儀雖可壯觀贊佐神祇尤屬
缺典保境護國風調雨順仗四大天王應供利生虎伏龍降咸推十八尊者
馴獅駕象四板首位慈蔭昭彰濟世裕民八部龍神恩波浩蕩昔曾同受靈
山記今復偕撐般若舟冀其一人而獨建一尊或引眾手以共襄眾像現為
叢林功德主當證頭陀金色身施受無差果因不昧涓涓檀露頻滋潤藹藹
桂蘭永綻榮億代招提萬年香火。

募重修普樂寺引

大廈將成必鳩眾材而結構寶鼎欲舉誓藉眾力以維持普樂叢林創建多
代今也梁頹棟朽勢覺難以久支住居禪人重新有志奈橐罄囊空力不能
逮敬持短疏竭募洪仁總之為善務在普施享福斯由樂捨七文一笠瑤池

魏闕匪輕酬杓食杯漿玉宇巍利奚小慶粟帛金錢隨喜布棟梁椽柱任欽
陳一去即是一來幸毋煩苦生厭有收還歸有種疾須踴躍歡抒佛事八萬
四千門頭頭合轍公案一千七百則法法圓成有願斯從無私不服個個普
臻功德主人人樂享太平春紺殿維新慈容允固。

募慶佛誕引

一年一度益油薪感應道交難比況瑪瑙階前紫氣騰琉璃殿上玉毫放朝
天慧炬照無私徹夜晶燈輝有象施也一任樂隨緣受兮詎謂為虛妄良田
福種洵滋培粟帛金貲厥肸鬻合會勳成功德林大家圓滿光明藏普勸人
人著意看者回始信沒遮障從教觀面露堂堂慶祝綿綿山海量。

募疏

檀度恒開唯羨家常添鉢滿惠施樂竭務期囊底益金貲詩稱求福不回易
嘉作善餘慶洵惟一源合轍九彰三教同途不拘粟帛金錢共襄棟梁椽柱
莊嚴精舍時時得見巨富龐公結構祇園在在相逢給孤長者昔曾金磚迴
布今且紺殿聿新無福不臻有緣斯度。

又

七文生象魏一飯誕瑤池因果元不昧施受應無虛正好乘時布種且共稱
水和泥泥多佛大香煙永水漲船高櫓棹齊。

募修萬聚山方廣禪院疏

萬聚巍峨先賢曾荷皇恩錫倚天峯嶺後裔維祈佛日瑩昔也洪輝祖印鉗
錘茲則拭望人天眼目詎知獅乳任器益徵鸞膠續絃縑緣泣路悲絲之迷
離兼值劫火烽煙之遷革象龍落寞棟宇圯頽雖曰年來微功漸培其如今
日大觀未備故撐大廈非一木而為力且舉巨鼎籍眾手以勁扶幸際德星
照臨巨富龐公稱佛國敢叩仁人溥濟給孤長者應人間布粟金珠多寡隨
心播植棟梁椽柱長短任意施陳七文一笠無虛酬瑤池魏闕五莖半杓有
實據寶座琳宮庶方廣法席以再彰三關歷歷喜崇建俾檀度良田而更拓
五福源源快落成石橋溪水益清新祇樹心華增曜麗遐邇胥慶緇素騰
歡。

募修白雲菴疏

一塢白雲補衲遮頭用無盡數椽草室棲真容膝樂有餘胡為區區事豐屋
乃爾矻矻叩檀門良由獨覺匪遍行之儔聿開普度自了違薩埵之願聊展

化緣白雲菴者在旦上人昔與親族創其始含波禪座今募檀信勲厥終先後兩兩合尖落成緇素各各同圓甫就無心出岫清風明月喜相從有意捐金錫樹布園隨播植庶幾香火永盛益令功德日新慶衍三輪福臻二諦。

法派

慧幻應觀方葦乘洵普航西來明大意東震建真幢道脈恒輝遠宗源永紹芳嚴華法界海覺果鎮圓常。

嗣法門人性應裔刊

竺峰敏禪師語錄卷之五終

竺峰敏禪師語錄序

天宗門相傳拈槌豎拂闡晰元微大夢在直指人心見性成佛而已謂語言文字可以不立也然楞嚴經曰佛以法為身清淨如虛空又曰聖所知相授受夫文載道之輿也曠古今而百千其世夫孰能知盡虛空界無非佛法一燈相照燈燈相續故余以為非文與言無以詔大千而授久遠西蜀竺峰禪師道契真見地洞徹早年受付囑於鐵壁老人自鐵壁而上為吹萬為月明為鐵牛以至於大慧源遠流長法乳相承而竺師尤空視一切勇猛超卓誠梁棟之茂材荷擔如來實際之理地者歟歲壬午蹇裳東渡泛杯南海復自南海赴我禾楞嚴禪席之請惠然卓錫所以弘妙覺而啟幽迷者莫不粲然條理其門人錄其語其文其詩集為一卷壽之梨棗固已如甘露之沃人香風之襲眾矣茲復以前後之語而錄者彙而集之斐然累帙焉蓋師之主席於蜀之治平已久爐錘烹鍊之下承其造就而入室者不可勝計夫是以緇素傾心奔走恐後今流覽其錄恍焉若日月之中天大燭昏衢津梁後學何異乎大慧再來因益歎夫文與言之不可以不立也曩余備官朝宁嘗奉使南海遙瞻洛伽之勝謂此中緇流當必多穎脫根塵超凡入聖如昔之南岳雲門其人者神通具足者乎乃不圖於竺師而親見之庚辰余蒙恩予告還里優游於水邊林下詠歌太平之餘得與竺師研求真乘為鬢絲禪榻之遊焉詎非幸與夫楞嚴古剎也自宋五百餘載以來英靈高衲後先輝映今得竺師建立法幢高豎宗風提唱其間將使濟慈航千彼岸合人天而景從昭慧日於當陽了我物而一致獅音震徹龍象蹴踏余且拭目而聿觀其盛已是為拜。

時康熙四十三年歲次甲申孟秋上浣賜進士第光祿大夫予告經筵講官禮部尚書加二級秀水法弟杜臻遇徐氏拜撰

浙江嘉興郡縉紳護法公啟

伏以凌空寶鐸標法苑之金湯遍界祥雲沛香林之花雨鍛烹凡聖憑藉爐錘恭惟竺翁大和尚秀毓西川名高東國道嗣妙喜剔五夜之昏燈而燃之載焰法傳杲祖衍一絲之慧命乃續以遐昌梅子熟也悟心即是佛之傳木樨香乎會我無隱爾之旨眼光爍破直教大地平沉心印提將莫不普天率服昔年住錫治平瞻杖履而遠近動色今日浮杯浙水振鐘鼓而緇素傾心允矣梅檀林裏都是良材獅子窟中原無異族敝邑楞嚴古寺創始有宋長水法師中興於前明達觀古德流通梵典兼諸家宗教之書安頓僧徒接四海水雲之侶名藍不宜廢墜須待人而後興輿情久切瞻依願擇賢以為事伏候拄杖攜持速命出山之駕袈裟披拂遄登泛海之舟敬布蕪緘肅伸虔悃臨啟無任顒切之至。

法弟杜 臻	朱彝尊	毛延芳	馬壽穀
徐嘉炎	袁定遠	屠又良	何 崇
沈瞻日	譚有年	沈纘曾	張聯箕
朱彝爵	朱建子	項維聰	陳廷煒
杜雲鴻	沈京文	張龍驤	沈 綰
朱象鼎	馬登岱	賀方來	項維貞
沈樹聲	徐天稽	周蘭森	萬必大
朱德遴	趙 璠	李含澤	朱魏雲
陳 荃	虞元標	倪鳳喈	朱 泓
陸 章	李含潛	朱丕武	袁萃生
虞元枋	嚴 侗	朱丕麟	袁雋生
朱 泰	于錫疇		仝頓首拜
楞嚴十地	衣末祖振	演智	行廣
	上瞻	性澄	源徹
	圓碧	慧容	寬慈
經房衣末	照清		仝頓首拜

竺峰敏禪師語錄

書狀性珩 錄

住浙江嘉興楞嚴禪寺

康熙壬午季夏朔九日師受浙省臬憲于公太尊佟公邑侯于公陳公暨闔郡縉紳本寺耆舊公請入院。

三門

密因修證路究竟堅固門鳳麟隨類萃龍象任昇騰務從山僧舉趾洵爾大步寬行便入。

彌勒天王

相逢便展笑容碩顙豐顙皤腹在在欲覓箇人兩順風調其足足更足他咱我你是何物。

韋馱 示現童真體位證最後尊佛佛欽輔佐法法允干城末代規繩尤冀整堂堂寶杵萬千斤。

伽藍 千載密護慧眼靈通毋撿其過維建厥功格兮度兮隨變幻祇林億代永豐隆。

祖師 老蒼頭少風流四七二三鼓鬣無休休休兒孫自有兒孫福莫為兒孫作遠謀。

佛殿

佛以無心悟心因有佛迷佛心俱不著直下便知歸知歸後又作麼生乃展禮云雲門棒下落空黃蘗眼中著刺。

方丈 人如是室坐如是座魔佛潛銷人天協合俊快衲僧切忌卜度據座喝一喝即於是日請上堂拈疏云三教同源萬靈合輒箇中點畫分明一任珠璣錯落度疏云維那分明宣說指座云大佛頂毘盧座睜眼覷著舉步踏著喝一喝云過遂陞拈香云此瓣香光昭明漢澤浹唐虞蕪向爐中奉祝當今皇帝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文武官僚高增祿位伏願一人行健四海謳歌欽聖化百辟崇功萬邦鼓腹樂昇平此瓣香智偕姜傅才並伊周蕪向爐中奉為本省當事臬憲于公府主邑侯暨闔郡文武護法伏願揚文奮武各晉葵衷勤帝業出將入相咸舒忠悃壯皇圖此瓣香派發尼山源匯鷺嶺蕪向爐中奉為闔郡請主縉紳檀護中興本院紫柏大師泊闔院耆德伏願隱顯無私同瑩法海光佛日真俗不二再芳蓮社續心燈此瓣香針錐不入斧鑿難開蕪向爐中奉酬高峰得戒和尚薙髮二位尊師伏願尸羅永固三聚萃精嚴妙諦海印恒輝二株挺秀衍薪傳此瓣香執鞭二十餘載守欄三十多春茲則第四回拈出蕪向爐中供養傳靈山道脈六十三世西蜀治平堂上過去本師上鐵下壁老和尚用酬法乳之恩伏願寂光照遠禪丹頌投般若聚慧脈淵長問答錄傳功德林斂衣就座普陀和尚白槌畢僧問未離南海已到楞嚴如何是不動尊師云大地一伽藍進云于一毫端現寶王剎坐微塵裏轉大法輪如何是轉法輪句師云天高群象正進云金剛經云一切阿耨多羅皆從此經出如何是此經師云切勿數墨尋行進云即今四眾臨筵未審將何指示師云夏日蒸于火殿閣轉微涼進云青山不鎖常飛勢滄海咸知來處高師云拄杖子放汝不過進云一夜落花雨滿城流水香師云聽取令行時問鐘鼓交加即不問鵬程一舉是如何師云海闊從魚躍進云妙莊嚴路作麼親登師云天空任鳥飛進云兩堂龍象如何安排師云地似赤烏臨白馬法兼拍板振捷椎進云擬把心香盤中獻又得荷花放滿池師云一念因真千生果實乃云閱歷天涯境雲月總如然千峰同一聚萬派總歸源忽無張起滅倏幻示抽添蜃樓現礁畔海市湧潮端犬吠白雲裏雞鳴赤水間踏遍梅岑石飽餐椒頂泉午渡乘風快山陰夜興便擬唱還鄉曲誤入采蓮船采蓮船上清江引轉聲又調鷓鴣天鷓鴣天忒無端恰值普陀法雨和尚把住柁尾橈李縉紳悉檀阻著船頭致令山僧退鼓難撾隱身沒術不唯逢場作戲且要老店新開既爾如斯即今鋪面作麼施展乃舉僧問同安和尚如何是和尚家風安云金雞抱子離霄漢玉兔懷胎入紫微僧云忽遇客來將何管待安云金果早朝猿摘去玉花晚後鳳啣來師云同安和尚雖是豐儉隨家未免將來送去唐喪時光若問新楞嚴如何是和尚家風答云芒鞋踏月離巖岸拄杖挑雲入市廛忽遇客來將何管待答云冰鑿漫煮鍊釘飯雲甑頻煨木札羹恁般施設與古人優劣姑置母論且不誤主顧一句又作麼生良久云嘉禾森蔚祇林茂長水澄瑩法海清卓拄杖結槌下座。

當晚小參舉古德云乍住城隍寺無東又缺西汝纔開眼看我便放頭低鬚髮白如雪身心爛似泥本來無佛法何處是全提師云古人雖是看病用方未免針灸忒毒山僧今則不然跡寄楞嚴無定期到來那復論東西五更鐘徹香煙杳三板聲敲月影低漫撥祖機機穀筭閒持心印印空泥箇中可是忘賓主休問全提及半提恁麼告報且道與古人相去多小良久云空通風送屋雞栖溪齊啼。

茶話舉趙州祖師問僧曾到趙州麼僧云曾到州云喫茶去又問僧云曾到趙州麼僧云不曾到州云喫茶去院主白州云未曾到喫茶去且從曾到因甚也要喫茶去州喚院主主應諾州云喫茶去師云曾到喫茶去無數落花紅滿地未曾到喫茶去嘉禾景色山秀麗院主切忌貪雙杯清風匝地有何極有何極一二三四五六七。

立兩序小參楊岐盞輝煌千古寶壽薑辛辣萬年慧祖洗籌始見指頭烜赫瀉老作飯終歸匙下收除法輪宛轉推五祖號令森嚴頌克賓都是這般傀儡今古搬弄靡休生旦丑末憑伊扮果因福慧務全周那裏是全周邊事響休令滴漿寸舌苦毋教片紙疋紬酬。

晚參昔大明神宗年間紫柏大師偕陸五臺先生泊諸縉紳興復楞嚴古剎五臺先生之弟雲臺獨建此禪堂五楹紫大師遂題聯云若不究心坐禪徒增業苦如能護念罵佛尤益真修用血書之即今此語猶存此堂現在試問諸昆仲建堂書聯之人向甚麼處去若識此人去處便知念佛是誰若識念佛之人便知萬法歸一識得萬法歸一便知庭前柏樹子所以古德頌云趙州柏樹太無端境上施為也大難處處綠楊堪繫馬家家門首透長安那裏是長安之所鴻雁長飛光不度魚龍潛躍水成文。

中秋示眾舉古德云吾心似秋月光明真皎潔無物堪比倫教我如何說又云吾心似燈籠點著內外紅有物堪比倫來朝日出東師云恁麼拈弄可謂事合理融楞嚴即今也要應箇時節吾心本無心無心何處尋秋深與冬暮無變亦無更作麼說箇無變無更底道理手持經卷孤危坐門外佳賓懶送迎。

徑山禮大慧祖塔座元玉峰和尚同兩序耆舊請上堂豎拄杖云三十餘年展釣舟衝寒冒暑策同儔而今棹撥臨安境破浪金鱗直上鉤就中有一釣便上者麼良久乃云第一義絕商量時節至理自彰峨眉月映西湖水錦江風送古餘杭昔日升堂方入室今朝入室後升堂到來不用論賓主端然衣錦自還鄉作麼生說箇衣錦還鄉底道理憶昔開山欽祖縛茅於斯鹿豕為侶迨乎德化日滋龍神獻地異類歸馴皇風沛注一國師之至我大慧老祖兩奉詔旨住此萬方英豪聚此棒頭觸背齊施說法如雲如雨是以聚雲師翁拾此臭味於錦江岸畔三日山中輕輕逗露腥蠻諸方發藥匪特五車展演奚唯四院泊我慶忠先師持此於劫火焰中干戈叢裏霏洒靡罄鼓鬣寧休後於玉印江頭掄材交卸高峰老人老人持此向樵李鴛湖將三世賊私陸沉于法海深淵嗣至別公和尚匯此于南洋道岸白花山間詎謂千株競

放實乃萬派潮宗又向於祖山一番振此故爾山僧衝炎冒暑特特到此又承玉峰和尚闔山耆舊必欲山僧陞此雖然暫應其誠可謂先入吾祖之室後升吾祖之堂且祖孫相見親承入室一句又作麼生良久云尤冀皇風輝舊緒挽回佛日振新猷。

禮大慧祖塔巍巍永鎮凌霄頂曠劫如如不動搖自是鵬搏超九萬大人境界適逍遙那裏是逍遙處響憶昔吾祖懸河詞瀉傾甘露廣長舌吐溢慈膏禽魚水石咸蒙潤草木河沙悉感昭至今峰巒疊嶂仍規畫樓閣零星擬變爻遠孫萬里來親覲寂寂常光不露顏吾祖面目悠且久既望之月滿而圓作麼生說箇悠久滿圓底道理爇香云薪傳七疊天輝燦煙透九重光焰綿。

送舍利至普陀法雨別庵和尚引座請上堂僧問雙林示雙趺熊耳遺空墻隱峰之倒化性空之水葬未審治平老祖歸真時有何嘉瑞師云盤陀曉日永光榮進云恁麼則溥施最後法檀也師云無邊界海一時新進云大庾衣鉢何人得少室真燈付阿誰師去法雨寶座恒輝燦進云若不問過焉知端的師云打中間底進云祇如無去亦無來無生亦無滅又作麼生師云蓮洋午渡乘風快僧顧左右云分明記取師云切忌妄流傳進云敢為流芳師云恁麼中卻不恁麼僧掩耳歸位師云呿呿僧問翻轉面皮呵佛罵祖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洛伽燈火^羨常明進云腳跟踏遍滄海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彌勒真彌勒進云把住要津不通凡聖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踢倒傀儡罷歌舞進云覲面相逢貫通今古如何人境俱不奪師云千家慶燈火萬戶樂笙歌進云人境^已蒙師指示老和尚送舍利到山陞座如何施設師云無尾螺泛夜杭舟進云莫是南來禮祖塔共聚子孫酬師云知即得乃云虛空啟口問須彌積愆凝誠是幾時舜若多知欣悉諦燦迦那轉演嘛[口*彌]倒騎白象騰雲漢橫跨青獅涉海隅至止三摩真勝地主人歡聚喜相歸作麼生道箇歡聚喜歸底邊事昔日世尊設利那收來八斛四斗多或炭或灰無憂聚若牙若髮迦葉波天地龍宮咸斂集隨光應現以安和吾師舍利無增減剝剝塵塵悉遍滿唯我別公誼篤殷人書數致幾叮寧幸逢金輪御極際詳觀萬彙總熙平況復大智願海實淵淵大士慈雲真靄靄淵淵靄靄互綢繆不風流處也風流吾今頂戴親捧至縱奪成褫得自由自由也竟如何喝一喝云百萬山河臻普嚕億千界海衍摩訶。

信善戚維新妻張氏領眾姓男女等為千手眼大悲菩薩上鏡光請上堂師豎拂子云大圓鏡智性清淨平等性智心無病妙觀察智見非功成所作智同圓鏡五八六七果因轉但有其名無實性若於轉處不留情繁興永處那伽定祖師鏡智早^已安措分明即今菩薩鏡光與闔會善男信女一段至誠心光又作麼生安置若安向前菩薩示茲千手各各拈弄有分若安向後菩薩縱具千眼在在窺覷無從作麼生示以無前無後底安置良久云紅爐幾度曾經煉橐籥安般隨互換無動無搖任卷舒精金躍冶胡更變變不變畫圓相云滿願從心常光永鑑。

為法雲淹澤庵尊宿舉火師把火炬云八葉薪傳芳煒燁八人遞送盛輝煌八萬四千憑灼煥三百六十燦周詳廿七有零支舊住一點無私煉真藏此是我澤翁老宿本具三昧真火早自施設了也即今眾耆德復延山僧到來畢竟又作麼生打當良久以火炬左右拂云法雲遍覆琉璃界智焰莊嚴琥珀光。

上元上堂囑維那萬堂書記遍堂藏主蔚堂問今朝上元十五集眾上堂打鼓如何是佛法流通句師云萬象光含紫極高進云瓜瓞綿延事若何師云春未到時先有信風纔過處便生香進云且道是神通妙用法爾如然師云家家燈火戶戶笙歌乃豎拄杖云黃面老子拈花粧點龍文耀北闕金色頭陀破顏激揚麟角奮南溟快騎紙馬渡江漫誘蠟人炙火牽惹得四七二三一箇箇捫空竊響露尾潛頭逮後一夥不啣溜底又說甚麼三玄四喝縱奪主賓五位君臣偏正回互更有紅爐內奪槍旗電影中覓朕兆高設迷魂陣密布連環圈盤根錯節枝上生枝山僧輓入這夥水牯牛隊中牽犁負重三十六春秋幾番洗雪難清累次擺脫不下欲卸鐵枷項下須覓金臂肩擔而今且自乘時乘勢相簍打簍重重與伊計算且道算箇甚麼一二三四子當機千萬億載堂輪奐旋風[車*度]轆演三臺動湧吼擊等震遍卓拄杖下座。

萬堂遍堂蔚堂三上座請上堂問爐內檀煙藹瑞堂前燭影呈祥三位大師設齋和尚畢竟如何施設師云雲從龍風從虎進云施設後又作麼生師云聖人作而萬物睹進云年逢喜事頻頻舉如何得七八九十一串穿師云水流今古脈山聚去來雲問乾坤山色麗巖谷桂蘭香鐘鼓交參即不問項下鐵枷作麼放下師云一五二五三四五進云昔日世尊說法未存一字和尚即今說箇甚麼師云善思善聽乃云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睹睹箇甚麼睹兩堂之龍象彬彬四海之鳳麟楚楚一五二五三四五五五二十五京垓載正悉旋元無量阿僧祇莫數復舉圓悟老祖舉慧祖首座上堂云鶻兒未出窠已有摩霄志虎子未絕乳已有食牛氣況復羽翼成況復爪牙備奮迅即驚群八面清風起一條脊梁堅似鐵一根白棒掀天地相與建法幢展衲僧巴鼻師云悟祖恁麼道雖是激揚之語仔細檢點未免有舐犢之私不肖遠孫則不然萃倫須用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萬千遍滿微塵剎光蔚人天不可思恁麼道與吾祖相去多少喝一喝云知。

法雨和尚請師為鐵祖舍利高峰老和尚衣鉢護國童真和尚
靈骨起龕

其入而微其出而離離微俱不涉端歸上上機上上機任所之喝一喝云三座驤馳獅子窟百千諸佛豎降旗。

入塔

威音劫外無位次用世門頭立主賓雲籠嶽麓千株茂日鎮長空萬派清海
印蜀山頻煥發白花雙徑互輝騰師資協聚聯芳盛手足囊成衍慶榮此是
法雨主人十數年來一段孝誼惇誠今將慶忠先師舍利高峰老和尚衣鉢
護國童兄靈骨各豎翠堵波師弟大家和合團圓洵屬主人功德福聚茲乃
三位老漢轉功就位之辰畢竟如何道箇原始要終裕後光前底句良久云
千條萬縷行行紫五葉一花在在新。

法雨寺高峰老和尚忌晨設供

崇聖堂中叨荷毘尼石龍院裏蒙承教鐸二三載親炙依依十七年遠違落
落關中瓣香遙陳愧未躬申芻泐白花巖畔夢裏先逢正續堂中到此方覺
父子祖孫濟楚英威麟鳳象龍彬森卓犖冀老和尚常光寂照永昭垂俾法
雨主人丹詔紫章輝大覺幻敏一點冤衷直至而今未雪道是那一點灑熱
香云裊裊白鶴滿庭階片片赤心傾海嶽。

震天禪座封龕

杖策渡南來沿途風雨濟忽遇震天雷驀直過關去雖然關隘無拘要問過
所本據是何據灑以手指龕云明明沒覆藏如如不動地。

起龕

不居位次詎屬安排隨其所指顧一路碧於苔弗居銀色界蓮向火中栽作
麼栽以手引龕云大道如絃直翛然任意裁。

舉火

越水乘流泛船窗掩復開晴雲隨岫湧驟雨落花來既爾泥水會合無妨霹
靂相摧攏下火炬喝一喝云一聲震處乾坤烈灼破虛空萬慮灰。

席紹芳昆玉為母沈氏請對靈

師據座撫案云沈道人惺惺著以拂子打圓相云還識這個麼道人六十九
年已前持家治業教子訓孫唯憑這個既爾捨識則六十九年已後逍遙樂
土抖擻蓮邦亦憑這個夫如是正所謂生本無生倒騎鐵馬任揮騰滅原不
滅橫駕泥牛洵煒燁揮騰煒燁應乘機桂蕊蘭芳合時節是甚麼時節喝一
喝云風飄蠟炬和煙裊露滴蒼梧伴月圓。

禮巫山慈祥和尚塔

巫山雲巴江霧主人出沒離回互離回互處弗應時只咫尺天涯安厥數條焉
相隔旬餘秋未展芻誠衷曷訴到來面目益方新巍巍窳堵金光聚感承麗
澤洵有年法乳均滋源本據據款結案又作麼生爇香云五峰秀發顯當仁
二桂聯芳馨後裕。

禮慈常道兄塔

難兄難弟法乳源深班班玉筍濟濟金鱗唱喁和于循位次師作資隨疊主
賓塔影雙垂雙映道脈日益日新新篁萬個英芳綻雲石千方篆綺文。

蕪湖護國童真和尚設供

三十七年前曾於寶聖山中為兄送行三十七年後擬於護國院裏快聆慈
音詎期金風無情吹落梧桐一葉雖然法幢摧折且喜後裔親承維思蜀山
迢遞兮芻音杳隔鳩水淵澄兮點滴心傾傾心瀉膽衷莫罄法乳淵深恨益
深即今手足至誼作何表白良久爇香云金爐焰灼冲霄漢慧鑑光昭達本
真。

萬堂首座請上堂問答畢舉虔峰上堂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
二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天臺來卻往徑山去峰云典座明日不得普請
師云虔峰舉一不得舉二興適江山皆入句醉餘天地總為家雲門從天臺
來往徑山去千點花飛千點雨一重雲鎖一重門致若典座不暇普請卻倩
座元兼理監院且道意在於何響箕裘克紹本天然變理裁成應化權金狻
每將兔角繫玉麟慣用龜毛拴揆文奮武輝塵剌激濁揚清耀海淵究竟其
間堅固境果因福慧總周圓以拄杖畫○○○。

囑萬堂維那

克賓法戰快乘時左右逢原任所之棒喝臨機無郢涇鉗錘在握有箴規
索訶砥柱行行建界海津梁在在支兩手當陽親付授從教雨化遍天涯

囑遍堂書記

昔覲童兄於護國擔簦千里入楞嚴一莖拄杖原同輒萬法殊途務合尖
縛象拏龍頭角勁操觚染翰筆毫銛親承委囑憑施設遍界慈霖溥濟寬

囑蔚堂藏主

涉海登山至普陀相將拉我蔚嘉禾累呈偈句吾編削歷訪名賢自琢磨
戴角金獅憑應現無文鐵印任摩娑上元節屆燈燵湛萬道圓光映索訶

囑杰堂堂主

涉海穿山喜共遊森羅萬象悉全收千徵百詰投吾穀九上三登振祖猷
賓主唱酬欣穎脫權衡穩握應維鈎翛然赤膽傳心印一葉五花任遍周

囑豁堂聖僧

果正因圓信飽參善財遍覓樂指南當機豁徹百千億撒手頓超五十三
智積勤施六度筏功深直荷萬觔擔二株桂蔭芳馨永界海重敷優鉢曇

慶忠老人楞嚴

職理巾觚二十一齡違別慈音三十五春丈室旅亭惟一志治平楞嚴無
二人普陀誠意頻相召捧持萬里涉南溟祖山鎮海悉安妥得意錦還寧
計程樵李悉檀重邀約杖頭掉轉入嘉興至止究竟堅固地了無一物可
相陳未備鄉椒里茗聊申越筍海芹憶其一鑑格尤希法法益新作麼
生是益新處爇香云薪分焰續哀難罄海闊天高願主盟

慶忠老人讚(法雨和尚首座西竺師請)

追隨二十餘載株守三十多春一味養成露地百般護植霜筠稚壯職理
攜瓶挈笠暮齡頂戴遠涉長征翠堵波已建高峰並祖席設利那歸安雙
逕與梅岑雖係法雨主人恢弘篤誼益晉不肖幻敏窮赤愚誠新冤舊債
猶未了紙幘子上要我點綴分明是阿那箇要分明響西傳正續脈竺土
大仙心

高峰老和尚讚(西首座請)

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兩間俱坐斷萬法悉維新繩繩衣鉢奠定乎白
花智岸班班龍象鼎峙夫赤縣神京絲絲皓髮盈頭雪片片婆心遍地金
縱奪成禡無虛也更要於中等個人且道等著阿誰法雨和尚胤子原是
老人嫡孫

紫柏大師讚

娑婆砥柱法海神龍恢復楞嚴地光顯大覺風振千二百眾之綱紀撤九十六種之籬籠調師逝兮雙徑雙株恒應現調師住也隻履隻影竟何從惟其密藏密行之究竟堅固則長水長源之懿範悠隆

功德林讚

三生願重二諦功深創斯般若聚建厥功德林布金布粟隨捐佐豎竿豎草信施陳同受靈峰記荊共焚少室薪燈唯諸公發歡喜遠離垢而證夫不動致方外現難勝善焰慧而超乎法雲

雲祖鐵祖高峰老和尚共軸(接待監院師請)

仰在其上瞻在其左顧在其右看來的是祖父師孫丹青和合團圓巧就不舒赤手與空拳便要拈花並弄塵似這般底婆舌婆心端然罔續牟尼之後且道後面還有拔萃者麼從教接待永流芳梅嶺分燈光宇宙

復嘉興闔郡護法縉紳啟

伏以熙朝元鼎靈山曾付曇華法海慈航翰苑新開覺路蓮社蒙青雲之蔭燈圖染白雪之馨山斗恒依金湯永仗恭惟闔郡大護法鴛湖楨榦麟閣英姿輝揚鷲嶺家風驪珠衣下朗丕顯尼山鐸範海印掌中觀現三十二應之容儀啟千七百之公案木樨枝上香噴噴聞來洵屬君焉柏樹庭前實離離指出果瞞誰也心燈賴續慧焰希熒(某)行愧前賢才慚往哲齟年薙髮於西蜀短褐莫睹紛華暮齒遠涉乎南洋長驅為了先緒詎意普陀方丈彊相牽拖犁拽鋸更叨樵李悉檀就拉著稱泥和水掉臂持竿去杵曰空明鏡之題揮塵入廬來丈室近留衣之主名藍擬振螳臂奚支伏冀護教仁人慈心永固布金長者善績彌彰不揣魯質頽齡謬應加台命肅茲暫復曷勝悚惶謹啟。

千手千眼大慈大悲觀世音菩薩偈兼慶法雨禪院落成

稽首慈悲大教主發僧那以濟群生千手千眼儔能數大慈大悲孰與京無畏慈力證妙果救苦悲願賑愚盲旋通眼聽音愈巧返應心聞觀轉劫斂則雙手並雙眼放之千臂執千桴大處大圓敷大器杜德杜機而杜衡浩浩湯湯滄海量馨馨郁郁白花英薰聞慈洽千根利旋見悲凝萬慮清至止補旦三摩地選勝蓬萊八德瀛千步金沙襯足穩萬年燈火奪日精或施大智伊始創或酬大願中興成離離錯出千手運總總幻現千眼瑩分形與樂拔諸趣注念齊滋主眾盟三十二應咸迪吉千百億身胥泰亨九龍殿敞九重御

萬佛樓開萬姓禱汪洋碩映琉璃景晃朗高昭水月晶千年祝頌千邦慶千
歲歡呼千手擎千楨萬柱載椽拱千磚萬瓦正櫺閔烏革翬飛煥星斗法雨
普濟躍鯤鯨足徵大士薩埵行益屬吾皇慈惠榮 帑金三錫衣重紫 宸
翰頻頒謚倍旌天花廣播霏霏落 聖澤鴻均靄靄盈普門闢闢纖流納童
子遍參巨寶呈試觀千手眼施設洵渠一毫忽屯蒙返聞聞性潛機紐原來
鼻直眼眉橫千手互攝千方便千眼融通千等平平等方便俱捐棄千手
眼了何評世人手眼雙視執莫不參差而蔽縈慈念示茲千手眼良緣族姓
策鈴錚大行大用矯如山千萬億劫靡沉蕘大誓大願淵若海草木沙礫燦
光明棒喝鉗錘飛電閃潮音梵韻迅雷轟縱也千般萬億類收兮一微塵粟
莖莖粟算數齊蕩戩粉碎虛空不計程龜哥眼裏排嶽瀆蟪螟睫上展維紘
無手拋接織古錦石女懷胎妊俊丁此是吾宗真實具拈來扮作大士纓點
綴嚴華法界海須彌億兆極微瓊。

和東坡蘇公遊徑山七言古(三首)

極目峇嶢萬疊山五峰攢拱湧臨川周圍環布杉松密高下齊輝日月旋
殿閣巍峨真佛上階亭浸潤古龍淵蘇公擬參欽化韓子曾為訪大顛
存心味道冰種火著意求玄石綻蓮竹根節錯盤蚯蚓樹老枝灣陟蜿蜒
喝石引文知避世靈雞聽法解逃禪春至巖花鋪玉錦秋零榆葉墜金錢
興適倚松閒下顧倦遊枕石樂高眠絲絲瀑布懸軸畫片片歸雲放紙鳶
三冬霧重多寒慄九夏風清沒暑煎粥飯隨緣稱抖擻起居任意得宜便
鸚躍三千恣逸興鵬搏九萬快翛然思今感古懷無罄佛日祈輝億萬年
池頭纓足隨其濯尤憶洗心參普覺滿山塵淨洵追尋闔院風清憑把握
兔向欽師絕愛纏石從巾子遠礲确纖毫纔展越千峰跬步方伸跨五嶽
鼻惡休留郢匠揮性珠奚俟良工琢動兮方擬月幾望轉焉頓覺旬初朔
松花風弄篩金粉巖溜絲牽墜玉璞有翅蜻蜓勿追求無尾蝸螺休拈捉
餐霞啗石隱煙蘿憑虛御風遠刀槩半山亭畔望天涯極頂峰頭窺海角
無言童子解呈機參飽道人務絕學凝眸雙逕邁三清信步一乘離五濁
條聞埜鳥語關關側聽林禽鳴啄啄一法透時萬象空郵亭假館奚辭數
天地蘧廬我揖客覺來到處觸聲色聲色叢中不動爻丈夫自佩黃金骨
春去夏來炎氣蒸秋深令肅縱蒼鷹獨唯雙徑人天應四時常住耀心燈
燈燈續焰達人至坐臥經行長相似水月雲山總棄捐吾宗原不立文字

又步蘇公五言

適從別峰來直往徑山去四面水潺湲一溪煙蒙霧策杖過短牆牽衣涉
勁渡梵音出雲霄鐘響馳林暮雨微下簌笠風緊捎芒屨重重憶遠程踏
踏警初步龍象肅參陳主賓敬回顧寄語周遊者急迫向上路

巫山十二峰

嵯峨卓立勢冲霄夾岸頻瞻景色饒砥定全川思怙恃障回元海適逍遙
楚王夢想借槐國神女雲興混鹿樵今古標題知幾許誰能斡轉斗中杓

祝法雨和尚

大術攀枝詎偶爾降真御世錫麟趾鵬搏九萬躍天衢椿蔭八千輝錦里
香象祥稱二足尊玉龍慶藹五宗紀吾門數代隱岷江山海重光新直指

過金山步蘇公韻

鎮定中流遠岸傾囂塵泡影鑑分明浮杯幾渡煙波穩把釣懸知識浪清
佛國莊嚴輝畫錦 皇圖點綴躍春晴遙瞻滄海難量測界地宛同一葉輕

寄懷載孺俗兄

重逢遽別屬倉然(劫變始晤)為法周遊情暗牽萬里關河唯弟適千年煙
嗣賴兄傳班班麟趾家聲永濟濟衣冠裔續延更冀頤齡勤淨土巴園再
燦火中蓮

詠十姊妹花

輕紅重綠傍籬西叢簇依依似姊妹風過引香添滿袖月移捲幔入深閨
遊蜂遶遶怯難近舞蝶翩翩畏莫稽若限嬌容空露泡才郎謾自憶梅悽

過湖口阻雨

為酬夙願往寒暑詎辭勞沿路波濤靜連宵風雨騷漏篷如線注短棹似
油熬徹夜無寧息魚龍混戰鏖

贈玉峰和尚

佛道深於海回瀾憶傑人五峰聳似舊雙徑闢來新志壯舒神臂心空轉
法身卓哉超聖軌獨握祖經綸

贈臬憲于公護法

夙受靈峰印檀波遞代芳遺榮蜀澤永沛露越恩長奕葉榮金帶仍雲錫
玉瑋林泉恒祝頌山海慶無疆

贈佟太尊

恩榮世澤延樾蔭遍山川紫閣稱元鼎黃堂肅化權萬方供玉燭億戶應
金仙堊外奚堪獻烹泉代綺筵

渡錢塘江

郵程幾萬里冒暑渡錢塘不知江水闊思惟心緒長普陀未達岸舍利已
舒光晝夜乘風快鵬搏勢杳茫

和阿諾和尚韻兼贈之

拈花示的旨衍化在兒孫拔卻虛空楔掃除泡影痕重編今古法抱道乾
坤喧尤冀新顏笑長光鷲嶺門

飛來峰

理公曾直指云是飛來峰猿洞白雲鎖雀巢紫霧封石蒼蹲似虎樹老曲
猶龍靈隱仰屏障清流匝數重

普陀十二景

梅灣春曉

一枝開放占魁先梅子丹成洵有年可是慈仁悲願重頻滋淑氣耀山川

茶山夙霧

濃濃淡淡隱巖龕重若凝雲輕若嵐分付巽郎勤蕩拂毋令雀舌減餘甘

古洞潮音

聲來耳處耳聞聲聲耳交參無二鳴古洞就中原不動返聞聞性海潮清

龜潭寒碧

文明十兆應禎祥爭似淵潛聖澤鄉獲沐慈悲三昧水碧潭清冷鐵蓮香

天門清梵

鏗鏘協合韻瑯然展演蜂壇越梵天除卻見聞消息外了知空劫太音先

磐陀曉日

跌膝磐陀萬慮灰梵韻潮音聲隱回清颿乍拂金輪轉萬道積光湧浪開

千步金沙

西竺運將磚數頃東洋又展沙千步良由給孤志念殷大士如來親囑付

蓮洋午渡

蓮池九品若何階自在慈航任往回轉柁推蓬日罩午直登彼岸見如來

鑪峰翠靄

寶鼎遙陳碧漢中半浮滄海半懸空四山供列汪洋匯一線香和翠影融

鉢盂鴻灑

雞足傳持遺至聖梅岑顯現護真龍千江一月無虛也應量鴻兮悲願濃

靜室茶煙

數椽巧構傍山陰煮茗頻煨折腳鐺七碗興濃猶未罄清風習習淡煙橫

洛伽燈火

百千光徹百千應萬億靈通萬億熒一點就中何限際燈傳無盡耀山溟

贈香積祥和尚

水秀山明古禹杭應真遞代藹慈光本源授受無虛也寶鼎薪傳奕葉香

楞巖八詠和同岑和尚韻

龍亭(前朝御賜藏經敕書刻于內)

貝葉錦莊衣紫黃先朝敕賜護真藏龍亭石碣千年在箇裏深衷屬道旁

紫柏院(供達觀大師真)

恢復楞巖達市朝千山萬水詎辭勞真衷懿範垂今古萬道神光透碧霄

功德林(供建殿刻經諸護法神主)

囑自靈峰應宰官布金布髮孰為難福田法海成永鎮緇素弘功卻暑寒

書本經坊

梵疊方書字一同緣因僻壤遍周通就中會得真言句玉屑無留在眼中

禪堂

創自雲臺樾蔭香(五台先生弟)滿堂龍象事悠長主賓互換心無易留得芳名遞代揚

笠院(中峰國)

山林市水總皆居何事笠蓬有剩餘不奉九重安隱樂權依紫柏伴清虛

十地靜室

歡欣離垢發光陰焰慧難勝不動鄰善現遠行隨布列法雲普散遍叢林

放生池

沿流深遠異諸泉萍藻漪漪若鏡天躍鯉游龍隨混世優洋直達蓮池邊

渡湖

宿鳥驚棹飛去漁人盪槳歸來岸邊桃紅柳綠殊勝三島蓬萊

灑瀨堆

誰將拳石子卓立緊關端淹形若象馬滯舟上下難

宿巫山

夜宿巫山寺綢繆話舊遊五峰欣秀發二桂喜芳稠

泊觀音洲

夙懷南海願在在獲圓通雲月垂鉤餌乾坤作邸篷

登晴川閣

徜徉臨水滸瀟灑陟層樓俯視雙飛燕趨蹌若蚍蜉

望黃鶴樓

隔岸羨遊仙映波影御鶴鱗鱗頃億家若箇揮先鐸

過小孤山

萬里無雲淨八方有水漣殿閣懸空出一柱獨擎天

望大孤山

湖光千頃碧波面一痕青遙盼雲聯水乘流渡短汀

廬山

翹企廬山高未知頭與面煙籠白鶴塢日罩青牛嶺

夜過虎丘

乘風龍背適帶月虎丘遊夜卒招呼急疑驚石點頭

姑蘇紅蝦池

遇賢曾混世飲啖總無稽吞吐從中變積蝦躍滿隄

雞冠花

紫紅開綻繁隊列似雞冠_紅鬥因風鼓爭先勢未闌

遊湖(二首)

亭和山影合天與水光連四望迴無際隱微出岫尖
芙蕖綻滿隄柳浪漾林西亭閣高低敞鶴鷗上下飛

法雨晚步

金沙緩步回潮響吼如雷殘月挂書案餘霞襯石苔

法華洞

優遊古洞行袖拂嶺頭春草砌岩龕密苔封石屋璘

梵音洞

萬姓肅皈依岩懸妙相威筇攜朝旭至笠帶晚煙歸

遲歸

早起尋山去歸來夜_已深流螢遶殿砌促織鬧階陰

乘興

林間一放情萬籟鼓篁鳴風摩天色淨雲拭月華清

語溪

泉聲枕上聞_鳴咽鬧斜曛長短隨千派消溶未十分

大佛頭(二首)

湛湛滿湖月巍巍半法身全軀何不現等視一微塵

多方惠濟人湖畔設慈津行願胡深重至今只半身

西湖十景

(斷橋殘雪)

四山雜碎玉兩岸滯行人我欲收餘瑣恐驚深臥鱗

蘇堤春曉

堤自何年築柳垂萬古青同鄉曲未啟淑氣滿池亭

平湖秋月

鼓棹御風微一輪正滿肥停橈頻四顧萬里沃清輝

曲苑風荷

重疊閣依漪青荷布滿池仁風輕一播(俱係御題)是處仰丕思

三潭映月

四望諸峰淨三潭一月清百般稱盛賞萬歲樂餘榮

花港觀魚

紅白滿湖香魚遊適園洋莊生真樂處孰共再論量

柳浪聞鶯

夾岸綠楊垂映波魚怯釣黃鸝忽嚙枝唱出無生調

兩峰插雲

南北峙相對俯觀萬象空湖心亭畔月灼映梵王宮

雷峰西照

曾經鍛煉久頰色出林稍更罩西陽焰始終不動爻

南屏晚鐘

暮景看無磬歸鴉棲未定鐘聲出麓間響徹千山應

岳王墳

正氣千秋範綱常萬古箴至今枝南向廟墓鎮如琛

寫意

春花方滿谷秋黍已遍種一目觀如幻萬緣視屬空

晏坐

兀兀渾忘眠紅日射窗穿琴書供舊案鶯語話新篇

詠老少年

擬賦凌霜質確存傲雪心頂紅壯耄健枝碧顯韶

捐衣貲刊刻

本師和尚住浙江嘉興楞嚴寺錄一卷

弟子(性(應瑋)) 孫(空(暄))

竺峰敏禪師後錄目次

- 卷上
 - 上堂
 - 小參
- 卷下
 - 示眾
 - 茶話
 - 佛事
 - 讚偈
 - (附)塔銘
 - 行狀

康熙四十四年乙酉闔郡文武官宰紳衿原任葭州太守振翁大護法四眾等請師再住敕建振宗禪寺結制請上堂拈請啟云筆燦珠璣文鋪錦繡箇裏機關行行漏逗付維那宣讀畢師云踏開報化頂劈破玄黃圈直中取曲中探縱奪由來不等閒遂陞座拈香云此瓣香至健至厚碩智碩明蕪向爐中敬祝當今皇帝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滿朝文武闔國公卿伏願金輪煥彩福蔭萬邦滋世澤玉葉騰輝恩籠兆姓沐深仁次拈香云此瓣香應現無虛親承有自蕪向爐中奉為本州闔郡文武官宰紳衿太守振翁建會期主眾大護法等伏願奮武揆文甫晉伊周之業參玄味道宏開楊李之門此瓣香同株共蒂發燄聯輝蕪向爐中專為得戒和尚薙髮尊師伏願宗律弘彰金燄玉輝驢覷井俗真普耀雪花爐火箭開胸此瓣香數回推謝未能幾度洗雪不下茲第五番拈出蕪向爐中供養當土堂上上鐵下壁老和尚用酬法乳之恩伏願棒喝施時頓令虛空粉碎榘椎舉處從教大地平沉斂衣就座維那白鎚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豎拄杖云愛閒不打鼓山鼓投老立登樓子樓無心應物無不濟有意拋綸有便收有麼有麼僧問闔郡文武官宰紳衿護法敦請和尚開選佛場鍛煉凡聖如何是為人處師云棒頭有眼明如日進云拋三弄兩已正全提出格人來如何施設師云任爾橫拋豎拽進云大開爐鞴點鐵成金至理一言轉凡成聖如何是至理一言師云之乎也者破草鞋問山花似景澗水如藍大道目前即不問汾陽四句請師分師云逐一問將來進云如何是接初機句師豎拄杖云見麼進云如何是辨衲僧句師云點動便行進云如何是行正令句師云撥著阿喇喇進云如何是定乾坤句師云大地山河同一片進云汾陽四句蒙師指為國開堂事若何師云棋花昨夜發祥柯進云賀公護法供齋請求法要畢竟得何祥瑞師云三三兩兩聯科第問內不放出外不放入時如何師云螭螟吞大象進云滿堂龍象皆成隊誰是靈山第一人師云從教鼻孔遼天進云天命之謂性如何是性師云頓令腦門著地進云率性之謂道如何是道師云曲如絃直似帶進云修道之謂教如何是教師云滿座衣冠濟濟闔堂龍象彬彬乃云霜月照朔風吹晝夜敲推何所為第一義諦叵難測九十日中休坐馳急猛省謾遲疑免使檀那把韻催金紫行中歌妙梵簪纓隊裏鼓玄詞雖然如是且道聯腔合拍在甚麼處舉雲門禪師到江州陳操尚書供齋次問云儒書中即不問三乘十二分教自有座主作麼生是衲僧行腳事門云尚書曾問幾人來書云即今問上座門云即今且置作麼生是教意書云黃卷赤軸門云此是文字語言作麼生是教意書云口欲談而辭喪心欲緣而慮忘門云口欲談而辭喪為對執著心欲緣而慮忘為對妄想作麼生是教意書無語門云見說尚書持法華經是否書云是門云經中道一切治生

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且道非非想天幾人退位書又無語門云尚書且莫草草三經五論衲僧拋卻十年二十年尚不奈何尚書又怎得尚書云某甲罪過師云今日太守振翁大護法亦設安期普齋然翁亦不問山僧行腳事山僧亦不問翁教意且與紳衿四眾等啟請山僧開選佛場況選佛儼同選官選官何殊選佛且道選官選佛大同一句又作麼生良久云錦還共慶千祥集再造同榮萬福臻十有九如恒耀麗從教各各播嘉聲再白鎚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師下座。

[洽/井]井金剛會文學眾信啟法名請上堂豎拄杖云喚作清淨法身鳥棲無影樹花發不萌枝以拄杖畫○云喚作圓滿報身碧眼難開口黃頭詎展眉橫按拄杖云喚作千百億化身不騎金色馬豈著紫羅袍所以道三佛形容總不真眼中瞳子面前人若能識得家中寶啼鳥山花一樣春作麼生說個一樣底道理卓一卓云會麼盧祖師得斯而留肉身川禪師悟斯以示拈頌乃至擊石敲筠登酒樓睹肉案莫不由斯獲證麟聽斯以生天龍聞斯而悟道即今[洽/井]井一會文學眾善士信斯而持誦精專覺斯以興齋辦供啟請山僧陞于斯座演最上乘兼取法名可謂截瓊枝寸寸是玉析旃檀片片皆香以斯酬宗親而福資益利以斯培蘭桂而奕葉榮敷雖然且道德業攸歸更有何據良久云三心五眼恒冰釋四相六通總洞融趁起銅頭揚鳳嶺挽回鐵額鎮獅峰復卓一卓下座佛成道普賢眾大德請上堂日月出矣燭火不息其於光也不一眇乎時雨注矣尚猶溉灌其於功也不一勞乎明星現矣各各如來道已圓成其於事也不一贅乎況復體毘履悉替那班班上趨釋曷擺阿夷恬濟濟直進惹得一夥興起大慈發斯大行恒為玉潔冰清永教淑德瑩淨素怛覽毘柰耶阿毘曇頭究竟末山主非女非男劉鐵磨旋聞旋聽既爾如是作麼生說箇功成悟證底道理良久云福慧齊資昭五眼自他俱利耀三明卓拄杖一下。

元旦上堂問昨日乃一歲之終今朝是一歲之始且道如何是新年頭佛法師云雨滋蘭箭茁露潤筍莖鮮進云處處村歌社飲家家宴樂華筵如何是祝聖句師云萬年松蔭九華峰進云舊年尾新年頭去舊換新即不問大振宗風事若何師云眉毛拖地腳指朝天進云結制三冬今將半負命鯨鱗幾上鉤師便喝進云塞外將軍猛朝中天子尊師云如何得截斷眾流去僧喝一喝便禮拜師云仔細眉毛乃舉古德云雲淡風輕處堯天舜日新雨滋蘭竹茂月映斗星橫伏虎山頭嘯潛龍海內聲乾坤踏破後大地吼雷音師云古德恁麼道雖是應候乘時振宗今日卻要斬新條例那裏是斬新處響四十復添五乾坤一統新萬邦興樂順億土化頑橫土庶嵩呼語林泉祝頌聲唯拈斯一瓣八表足元音茲乃丙戌元旦之辰(臣)僧幻敏唯拈此一瓣上祝吾君之壽則山無量海無量無量壽無量壽福盡塵沙數莫能罄其涯際唯此一瓣上祝吾君之筭則那由他阿僧祇不可說不可說轉遍林毛端奚足完厥限量唯此一瓣敬祝滿朝文武公卿合郡宰官紳衿護法則隱顯功

勛耀麗朝野祿位榮增雖然如是且道地天泰濟律呂調陽一句又作麼生良久云日月重輪鑑照永海山崇湧物華新。

[洽/井]井眾善信請上堂僧問心佛眾生等無差別無差別法作麼舉揚師云風暖鳥聲碎進云即今眾檀信啟請和尚陞于此座當說何法師云日高花影重進云恁麼則緇素同乘般若力聖賢共聚菩提場師云好好修事著問鐘鼓齊鳴兩序交參今日消息即不問古人公案請師宣師云問將來進云如何是有句無句如藤倚樹師云休坐萬年床進云樹倒藤枯句歸何處師云莫踏斷頭枝進云如何是轉身句師云汝轉得也未進云學人轉身去也師云盲人趁大隊問如何是振宗境師云庭前風走葉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拄杖任縱橫進云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山花鳥語宣明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袖拂煙霞盡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卻令行行坐坐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明月清風入我懷進云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云醉老乾坤不識春乃云門外春將半百花次第開山童不用折幽鳥自啣來露柱歌檀板燈籠和卷懷施受無差互事理總兼該那裏是無差兼該底道理舉太守許公得法于洞山和尚一日入上藍寺問首座年多少座云六十八公曰僧臘多少座曰四十七夏公曰聖僧得幾夏座曰與虛空齊受戒拍板頭曰下官喫飯不似首座喫鹽多師曰這箇公案事理與今日相符何也只如[洽/井]井一會眾檀信自振宗開建數十年來歲歲惠施不缺年年調鼎無虛可謂喫飯不似喫鹽多即今辦齋設供啟請上堂卻又喫飯不似喫鹽少就中多少價值勿論且道唱酬響應在甚麼處豎拄杖云為斯一味相應草追呼何用仙陀婆慧齊福足益慶永果正因周輝耀多卓拄杖下座。

信士周世臣薦親請就蕭公祠上堂僧問昨日是十五家家門前鬧花鼓今朝是十六火樹銀花滿俱足此是慶賀上元邊事如何是主中賓師云山僧入門須進禮進云如何是賓中主師云住持有念急尋茶進云如何是主中主師一喝云大坐當軒任所之進云如何是賓中賓師云門外行人憑揖讓進云即今周施主母子建斯勝會敦請和尚當說何法師云紫極凝煙永玉溪泛水長進云畢竟存亡有何利益師云榕樹勢參參風聲響颯颯問昔日靈山一會今朝正覺當時如何是佛寶師云獨獨慈尊雙雙大士進云如何是法寶師云滿座任敷宣進云如何是僧寶師云彬彬楚楚列兩行進云三寶拈向一邊眉間挂劍時如何師震威一喝進云某甲領取去也師云珍重二三問人天慶集景物增輝周居士母子同作有為佛事共建無漏道場畢竟功歸何所師云老梅綻玉參差白嫩柳舒金淺淡黃進云菩提本是善人植待得春深花自開師云東巖瀑布急西澗層巒高乃云元宵燈火盛萬姓樂熙和座借蕭公第杖探薩埵波酬恩滋萬德賜福應三多韶鐸齊鳴普清音遍大羅那裏是周遍處舉古德云十五日已前春雨如膏十五日已後春光似箭正當十五日管絃沸月宣和氣燈火燒空奪夜寒師云古人以前後分次第山僧今日卻用節候應當機十五以前燈燦玉蟲花更發指彈筚引

唄還吹正當十五日明月在天燈在市遊人如蟻夜如年十五日以後既望之月圓而滿載陽之旭悠且長布果崇功隨響應培蘭植桂自昭彰恁麼告報與古人優劣異同姑置勿論且道慶餘福遠一句又作麼生良久云坐賈行商咸泰濟資生利逝總禎祥。

解制上堂問春風拂拂聖制功圓法令當行請垂法要師云雲散家家月進云四眾雲臻十方坐斷把住即是放行即是師云春來樹樹花進云古人道牛過窗櫺頭角易惟有尾巴最難去即今和尚又作麼生師云任運優游唱卷阿進云突出首羅三隻眼虎頭虎尾一齊收師云遮天蓋地把英雄進云恁麼則大眾沾恩去也師云一任捫摸進云惟有振宗無更易選佛場開不記春師云滿座清風一握收堂主問冬月十五謂之始二月十五謂之終如何是全始全終一句師云鼓聲鐘響一齊鳴進云如何是一喝如金剛王寶劍師震威一喝進云如何是一喝如踞地獅子師云怒悻悻瞋燄燄進云如何是一喝如探竿影草師云好好問將來進云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何不問前面底僧禮拜師云無為無所為乃云日月剎那轉光陰倏忽過九十期已滿任運唱卷阿其始也一陽丁來復梅開雪嶺生香既滿兮萬卉正芬芳桃燦枝頭爭結實所以道期終念未終嚴規繩千在在制解意莫解綿功候于年年到這裏玉麒麟單絲莫繫金狻猊兔角難拴致令合郡文武官宰紳衿眾檀越如日如月如山如海如玉如金如松如柏如如不動益俾兩堂龍象十方衲子有解有結有去有來有收有放有縱有奪有因有果那裏是因果分明處響本州郡主葭州太翁與合郡紳衿四眾等添炭益薪營齋送供總教箇箇名覆金甌現任鎮府合營將領專設繩陀表圓功德尤祈各各勛標麟閣雖然如是且道盡善盡美全始全終一句又作麼生良久云安和內外享餘慶調攝俗真樂遠榮八解六通心地印九如十有總亨貞喝一喝。

金剛會眾弟子啟名請上堂問法不孤起仗境方生道不虛行遇緣即應遇緣即應即不問因齋慶讚事如何師云有花如遇優曇放無水不為甘露流進云即今佛會眾居士求取法名敦請和尚陞于寶華王座畢竟功歸何所師云寶網珠常曉瑤階樹永新進云弘開法道四十餘年且問末後一著誰人擔荷師云一三五九二四六進云恁麼則海上蟠桃重結子月中嫩桂又生枝師云逆數數逆逆還源問獅子未出窟時如何師云八面威風云已出窟時如何師云威風八面云出與未出時又作麼生道師云雲從龍風從虎乃云昨夜東風鼓吹我中心際雙蔭復雙垂聯芳發億祀一窩六七子連科並及第匪特感三生實乃光二諦一圓一切圓展轉無差互那裏是重圓無差互底道理舉明昭謙和尚到雙岳喫茶次岳曰某甲致一問道得便捨院與闍黎住若道不得即不捨院遂舉金剛經云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皆從此經出且道是何人說昭曰說與不說拈向一邊決定喚甚麼作經岳無對昭又曰一切聖賢皆以無為法而有差別則以無為法為極則憑何而有差別祇如差別是過不是過若是過一切聖賢悉皆是過

決定喚甚麼作差別岳又無語昭曰噫雪峰道底師云雙岳音韻不熟明昭切脚不真致令垛生招箭怎如高盈山金剛會眾善士月月持誦不輟年年功德益新且也莊嚴金像鑄造洪鐘又向振宗禪期營齋供眾覓取法名啟請山僧陞于此座演最上乘且道與雪峰道底是同是別就中還有徵兆也無良久云宗源道脈屬吾傳兩諦相承詎偶然四七二三難數量金剛妙應愈貞堅。

佛誕合郡檀越供長年燈泊佛會眾居士啟名請上堂豎拄杖云一華百億國一國一釋迦各坐菩提樹一時成佛道斯乃證道邊事即今降生一句又作麼生不記程途寧列功課比玉之無瑕若金之試火梅雨潤群靈曇華飄寶座事事靡由他頭頭唯在我一我二我三四我恒河沙數莫能窮微塵刹土咸安妥復舉乾峰上堂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天臺來卻往徑山去峰云典座明日不得普請師云古人雖是應機乘時怎如振宗權實兼具那裏是兼具處啟名底樂利亨嘉誘引底壽祿齊備若文若武真諦俗諦箇箇歡欣人人普濟作麼普濟盪喝一喝云年年長明智慧燈各各永證菩提果。

優曇院輝體二禪座薦師請上堂法苑藹千祥新陽輝萬象草木悉蒙屯象龍興泰壯僧那念已周阿波循數量所以鑑上座精勤夙願今已表酬眾檀信捐資莊嚴弘功難量眾法脊孝誼惇惇心誠雅尚可謂一圓一切普成圓十聖三賢回所向如何說箇圓成回向底道理舉僧問鏡清和尚新年頭還有佛法也無清云有僧云如何是新年頭佛法清云元正啟祚萬物咸新僧云謝師答話清云鏡清今日失利又僧問明教寬和尚新年頭還有佛法也無教云無僧云日日是好日年年是好年因甚道無教云張公喫酒李公醉僧云老大大龍頭蛇尾教云明教今日失利佛鑒勤頌云新年佛法鏡清有須是親言出親口新年佛法明教無西天鬍子沒髭鬚堪笑兩人同失利南海波斯失卻鼻太平可是忒郎當還如雪上更加霜歲寒孫賓收卻鋪釣魚船上謝三郎師云恁麼酬酢可謂善應機宜振宗今日不免唱和一新佛法在處有仰面南辰看北斗新年佛法何地無極日山河總畫圖檀信僧伽皆獲利佛陀達磨任招呼優曇碩燦馨香永常樂恒安奕葉敷可向箇中深穎脫刹塵界海總如如恁麼告報與古人優劣姑置勿論應時納祐一句又作麼生喝一喝云四境春融千佛蔭十方衍慶萬靈歡。

金玉振居士請上堂金音方樂典玉振卒章陳對境隨拈示逢場任剖分兩過鳩聲滑風來蝶翅輕土饒稼穡茂地靜物華榮報恩恩普報錫福福駢臻祖禰齊超脫冤親胥薦伸滯魄幽魂咸卓犖山光鳥語盡知音作麼生說箇盡知音底道理舉僧問趙州祖師如何是西來意州云庭前柏子僧云和尚莫將境示人州云老僧不將境示人僧復云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柏子師云這張公案拈頌甚多穎脫實少今日若有問山僧如何是西來意但向他道當場榕樹雙株萃隔嶺春光萬象芬恁般告報且道是即境明心耶是逢場作戲耶良久喝一喝云露滴菩提枝燦玉花開覺樹果舒金。

羽仙耆德請上堂拈香云此是羽仙耆德一段報本精誠爇香爐中云此是耆德修因植福張本以香煙四面拂云此是耆德普施利濟慈仁矧耆德住茲十有餘年自捐衣貲誘引檀信莊嚴梵相維新精藍修圓翠堵即今年將期耄復建勝會啟請山僧陞于此座表圓功德畢竟如何是表圓一句曇花碩燦桐山上老榦抽條固本根薦遠追先崇福慧修因植果蔭雲仍無絃琴韻隨調和有相條章次第陳啟我心宗無別旨名稱功德普皆聞作麼得普聞去良久云鐵牛耕野乾坤闊木馬春遊山海臻喝一喝。

佛誕金剛會眾善信啟名請上堂清和運際旭長舒遍野芬芳萬卉敷鼓動槐風穿玉葉盆傾梅雨沐金軀文經武緯欣嵩祝白叟黃童慶嶽呼敬獻長年燈普燭海山輝耀樂唐虞無生調正協符一曲兩曲任意歡娛那裏是任意處一三四六解乘機恰值群英讚頌時如是我聞並信受期頤耄耄洵繩持作麼得繩持不動去良久云無住無生無住著四面八方總遍知。

說戒小參心因境以了境會心而成心境無差互日午打三更日午三更令莫移正是爐紅雪點時雪點紅爐燄說法忙忙撞著盧祖師兩兩相將猶未決無端牽惹高沙彌高沙彌盧祖師箇箇收回詎放渠那是不放處舉則監寺問青峰和尚如何是自身已青云丙丁童子去討火僧後遇法問和尚問云曾見甚麼人僧云青峰和尚眼云有何言句僧舉前話眼云上座作麼生會僧云丙丁屬火以火求火眼云恁麼會又怎得僧云某甲只如此和尚又作麼生眼云你問來僧云如何是自己身眼云丙丁童子去討火僧大悟師云前面如是問青峰恁麼答這僧卻也拋枷打鎖後面如是問法眼恁麼答這僧為甚麼掉轉腳跟試問諸昆仲拋枷打鎖底是掉轉腳跟底是倘能于斯薦得何須三登九上胡用五條七條二十五條設或未能寶蓋層層呈聚寶龍潭曲曲護真龍。

羯磨小參萬法自心生諸緣唯性曉本來迷悟人只要當下了作麼生是當下了脫邊事舉俱[月*氏]和尚初住菴時有比丘尼來戴笠執錫遶師三匝曰道得即放下笠子如是三問抵皆無對尼便去抵曰日勢稍晚何不且住尼曰道得即住抵又無對尼去後抵歎曰我雖處丈夫之形而無丈夫之氣不如棄菴往諸方參尋善知識其夜山神告曰不須離此將有肉身菩薩來為和尚說法也逾旬果天龍和尚到菴抵乃迎禮俱呈前事龍豎一指示之[月*氏]當下大悟自此凡有參問唯豎一指有一供過童子人問事亦豎指相對人問抵曰和尚童子亦會佛法[月*氏]遂潛刀于袖乃問童曰聞汝會佛法是否童曰是抵曰如何是佛童豎指抵以刀斷其指童叫喚走出抵喚童童回首抵曰如何是佛童舉手不見指頭豁然大悟及抵順世乃云吾得天龍一指頭一生受用不盡師云汝等于斯指頭畢竟如何相見若于豎指處會得朝觀松鶴摩天舞暮看岳猿挽樹旋若于斷指處會得倒跨綠猊披雲躍橫駕蒼龍挾雨飛其或未然洗足收衣安樂禁輕遮重難總冰灰。

歲夜小參古德愛烹露地牛山僧不放焦尾虎縱奪成褫總自如乘時建立主中主那裏是主中之主舉香嚴閑禪師在百丈和尚會下問一答十問十答百洎丈遷化遂參為山山問汝在百丈先師處問一答十問十答百此是聰明伶俐所使父母未生前道一句來嚴被一問茫然莫對遂將往常所習欲尋酬答竟不能得乃歎曰畫餅不可充饑屢乞為山說破山曰我若說似汝汝已後罵我去我說底是我底終不干汝事嚴遂將平日所蓄文字燒卻曰此生不學佛法且作箇長行粥飯僧免役心神乃泣辭為山直過南陽忠國師遺跡憩止焉一日芟除草木偶拋瓦礫擊竹作聲忽然大悟乃沐浴焚香遙禮讚曰和尚大慈恩踰父母當時若為我說破何有今日乃述偈曰一擊忘所知更不假修持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處處無蹤跡聲色外威儀諸方達道者咸言上上機為山謂仰山曰此子徹也仰曰此是意識所成待某驗過仰見嚴曰和尚讚師弟發明大事試說看嚴舉前頌仰曰此是夙昔記持別更說看嚴又頌曰去年貧未是貧今年貧始是貧去年貧猶有卓錫地今年貧錫也無仰曰如來禪許汝會祖師禪未夢見在嚴復頌曰我有一機瞬目視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報為曰且喜閑師弟會得祖師禪師云諸昆仲若要會如來禪明朝必定是新年三百六十從斯始七十二候聽周旋要會祖師禪方不方兮圓不圓奪來嚼碎又成團從教一法總無著信口都是還丹藥毘囉拏羯露單毫臂卑履也戴雙角喝一喝。

鑑堂上座首九小參天臺千日意勤懇嗣則廿年擔箇事千日廿年渾莫論唯斯一念恒周備那裏是一念周備處齟齬厭葷辛童歲樂雜染割愛遽離親禮佛習梵典唯茲一念麼跳出干戈林直越饑饉世無動亦無搖坦蕩而舒志唯茲一念麼重新常樂院濟眾廣福田招引孤獨類遐邇悉相傳唯茲一念麼直接曹溪源永續單傳燄在在豎刹竿時時開普便唯茲一念麼再闢優曇林大啟功德案插草信手成指揮美輪奐唯茲一念麼年逾七十三說偈而坐脫法眾恒濟楚音容儼歷落即今一九已周且道這一念又向何處安著諸人倘于這裏諦信的當了了分明匪特鑑上座永證涅槃致令一會法眾常樂常安其或未然更聽一偈鐵鷄騰空啖紫極泥牛躍海吸長鯨九夏榴花紅似火三秋桂蕊赤如金。

囑祖堂監院兼交方丈上堂世尊拈花迦葉微笑紫煙若練當空挂蒼樹如龍觀面呈寶偈宣揚金襴密囑烹冰煮雪渾無朕逐電追風妙有聲更餘甚麼縱奪主賓遍正君臣高嚴平實細密簡明九十六種迷魂套千七百則葛藤椿將謂鎧橫疑是燥誰知腔正實無腸不見古德頌汾陽十智同真云十智同真面目全于中一智是根源而今要見汾陽老劈破三玄作兩邊振宗今日錦上鋪花也有些子盈輪寶月隨舒展滿袖清風恁遍揚兩手雙交無限際二三四七總禎祥恁麼告報畢竟歸何位次良久云輝煌朗耀楊岐蓋毒辣辛鹹寶壽薑。

竺峰敏禪師後錄卷上終

竺峰敏禪師後錄卷下

示眾

示眾舉古明今總要掉喚汝等識性拈槌豎拂必要撥轉汝等樞機古有四禁四依山僧今為汝逐一示出古德云莫行新處路堂堂出入何顧佇不挂本來衣青州布衫價值低何須正恁麼任運優游唱囉哩切忌未生時月映長江水畫眉又云依法不依人淫防酒肆尋觀音依義不依語乾矢橛頭清風起依智不依識三行咒咀吽[口*紇]喇依了義不依了義不萌枝架鞦韆勢如上閒言剩語總要開汝等舌頭上十字關斷汝等足下五色線畢竟如何得速開疾斷去良久云法法無容掉背走忙忙進取話頭來。

示眾今日打七三期了山僧不欲長篇短句聒鬧諸人但與汝落草而談舉則公案汝等一一透頂透底方可挽回末運克振家聲其餘差別機緣肴訛公案庶不牽絆腳跟粘帶唇齒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後堂便問如何是青州衫師云不在南山與北山復示偈云後堂問我青州衫不在南山與北山黃河水遶三三曲青草湖連六六灣灣灣曲無涯際密波羅撞著僧揭諦箇箇臨場用得親堪為諸祖供養具。

元宵示眾春山疊亂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望何極尋所據策馬雲外行穿靴水上立問取一點明幾箇知端的但見走馬人物奔忙鰲山煙火盛熾玉龍宛轉周旋金獅昂軒猛利只知逐境徬徨忘卻中心四字殷勤反覆叮嚀箇箇默而未識不是上元一品不是天官賜福不是品物亨貞不是文武兼濟試問汝等就中還有識四字者麼倘若識得不妨出班道取其或未然見聞聲色莫輕顛食息起居毋妄棄。

茶話

茶話西堂出班云新戒設茶特請老和尚普施慈霖師云古人道釃茶三五碗意在饅頭邊即今意在那裏堂喝一喝師云須知落處好乃云新戒設普茶黑豆已生芽西堂請茶話買賣兩不賒那裡是兩不賒處舉為山與仰山摘茶次為謂仰山云終日祇聞子聲不見子形仰撼茶樹為曰子祇得其用不得其體仰曰未審和尚如何為良久仰曰和尚祇得其體不得其用為曰放汝三十棒仰曰和尚棒某甲喫某甲棒教誰喫為曰放子三十棒師云前頭三十棒富千口少後來三十棒貧恨一身多只饒說箇不前不後未許囫圇吞棗畢竟如何三盞清泉眾悅樂一杯甘露自清涼。

除夕茶話維那出班云兩序龍象望老和尚慈悲開示師舉茶杯云識得山僧這箇麼那云乞垂法語普施師云木人戴草隨言舌滿座頻傾任量啜盧仝七碗洵淡濃振宗一盞愈親切響乃舉古詩云一碗喉吻潤帶齒粘牙尤

滯齷二碗散孤悶寂寂惺惺成痾病三碗肌骨清癩馬枯椿擊轉深四碗通仙靈西出陽關無故人五碗六碗七碗喫不得也吸乾滄海實平常但覺兩腋習習清風生假饒直入非非想也則不如歸去來師云這般批判且道是抑揚先哲激勵後昆耶良久云信手和杯吞入腹百億須彌光熒熒上元茶話堂主問今朝正十四兩堂龍象濟濟監院大師設茶特請和尚垂慈師云汝須再酌一杯好云如何是十五日以前事師云燈火燄冲霄鑼鼓聲鬧市云如何是十五日以後事師云然燈善逝登華座琉璃光王鎮寶臺云正當十五日和尚又作麼生道師云五百星辰一齊下空中倒捲長生畫乃云雲門餅趙州茶飲之喉吻潤啞著曝齒牙麵果子攪住線搭絮米[飢-几+禾]餅裹著浪濤沙鑼鼓聲中含雪曲燈光影裡協露華到口休說酸鹹醜淡坐席勿論你我他咱箇箇無佷長者子大家齊來聽採茶良久云從教勝令帶大訝鼓勿令行香子趁鵝鴨滿渡船。

除夕茶話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執事設普茶知有不知有杜甫無詩不成句李白無酒不題詩振宗喫茶須說話不知若箇擅當機僧出云對面不識師震威一喝僧作禮云且喜爆竹一聲除舊梅花萬點增新師云咄咄咄應爆竹復喝一喝。

佛事

挂鐘板

二上座迴超卓聲應響隨鏗鏘協合勿于那畔躲根好向這邊安著佛祖聽令遵行龍象橫趨直過過不過敲板一下鐘一下喝一喝。

禮鄴鄰聚雲師太舍利塔拈香

平山常拱峙积水益悠洋重疊峰巒擁循環日月光設利那至止福蔭遠隆昌那裡是福蔭遠隆處聳雙徑峰頭在在聯芳續燄普陀岳畔永永熏聞瑞香山高水杳知音富地闊天空識鑑饒為憶本源旋故里無勞鼓喙肆虛張今日法孫遠遠到來畢竟有何實據良久云紫茸蘋藻隨心獻煉臂剗腸任意量。

禮灼然和尚並外祖祇園主塔拈香

一直如矢一清如水破衲單瓢終身行履此是先師讚揚和尚之語一直如鉤一曲如絃豁開九有劈破三玄此是小姪光顯和尚之詞即今開山師祇園主共聚同瑩(幻敏)萬里歸來畢竟有何表白良久爇香云二諦矢心恢重誓三生悲願勿輕忘。

禮聚雲祖塔拈香

龍屋灣狻猊濟濟鷲峰嶺鷲鷲紛紛翠屏紫極恒拱護青山綠水互環旋師翁神足遍大地兒孫鼻孔解撩天茲逢中元佳節要與師翁打筭飯錢作麼生打筭嚮良久爇香云兜那婆爇傾肝膽畢力迦熏透頂門。

禮九峰汾陽般若四維懋谷眾法兄和尚塔拈香

同源法乳誼若金珂生聚阿蘭若逝共窳堵波四七二三侶孰剩孰為多惟冀勿忘夙誓振厥末代沉痾今則法弟遠別歸來媿其無物堪陳白雲朵朵莊點赤心片片殷勤但拈旃檀作供卻指明月為燈最喜竹苞松茂益欣桂秀蘭馨流水常存今古脈草花木樹總知音那裡是知音處爇香云六木森排山點供四維羅列海潮文。

鑑堂上座封龕

闔闔從方便捲舒任自由乘時應候去辭樓謝殿周雖爾辭謝了了箇裡猶剩關頭且道是何關頭嚮以手掩龕云檻外草芊紫露罩室中龕倩白雲封。

起龕

登山不礙高入林何嫌密高密林山水無適非所自那裡是意適處熏風拂拂滿庭芳信步迢迢劈箭急。

舉火

四大盡皆空唯空無不通空通隨互換雪火一爐紅紅爐雪點快乘機正是薪傳燄續時以火炬畫○云薪傳燄續無窮已重輪寶鑑滿天輝。

挂真

將真以換假弄假卻成真真假洵煥發衣鉢自繩繩繩繩衣鉢何紀極永鎮如如不動尊。

起骨

師拈二塊骨云一人歸兩聚如是彼得三三一共給我法法盡安恬兩兩恒
蔭覆在在悉周圓何所圓乃投骨二瓶云八萬四千付廣莫三百六日應周
天。

常樂院入塔

造化本無情幻現諸山水動靜實悠悠吾人尋至止在在樂常安互應有終
始作麼是互應終始邊事入塔云溪環萬派匯真源安列千峰輝妙旨。

優曇院入塔

創建阿蘭若旋築翠堵波波恬恒鎮靜境肅益安和何得鎮靜安和去乃入
塔云蒼松翠竹行行秀嫩桂幽芝鬱鬱多。

安位

新堂安舊主殿閣轉清涼舉日乾坤闊推窗日月光室裡香煙盛庭前奕葉
芳良久畫○云優曇曇蔭馨香永法雨雨滋沛澤長。

正知大德起龕

應正遍知意幽玄收來放去樂恬然無端驚醒莊周夢水綠山青任縱觀那
裡是縱觀處畫○相云一輪杲旭隨西指百道神光腦後看。

舉火

生緣九九有零著緇七七餘數行藏去住端嚴動止安閒優裕群黎樂樂欽
從眾姓依依拱護園林妙相維新撒手翛然蛻去山僧今既到來特為大德
安措作麼生安措擻下火炬云丙丁童子洵縱橫遍體金光齊透露。

安位

師指位云離其所離幻上何妨立幻遣其所遣空中更不容空既離幻又脫
空箇中消息與誰同乃安位云百靈拱聚香煙永萬行莊嚴蘭桂崇。

起骨

去住等空花往來如電拂百煉出紅爐千般推具足那裡是具足處乃投骨入瓶云收歸寶藏任營為萬億須彌光煬煬。

入塔

天地氤氳萬物化生乾坤闔闢永鎮一靈長成枝葉覆蔭雲仍箇中永作主大地正知音作麼生是知音底道理捧骨入瓶云不響谷聲隨應感無陰陽地總維新。

觀井耆德入塔

生于宦室家幼入緇儔侶精潔護毘尼性直而言矢依吾信受行全終復全始今朝四大分特請為直指且道指歸何所捧骨入塔云厚載厚持洵意安福餘蔭遠靡他自。

安位

適入于彼又安于此彼此恬然何莫非爾既然如是畢竟歸重阿誰乃安位云熏風拂地快承當榕樹參天須薦取。

睿珍上座舉火

謂爾是法門中人咫尺之間因甚不歸祖刹謂爾非法門中人曇華室裡多年親承挂搭到而今是非去住休論量山僧箇裡自然有賞有罰那裡是賞罰分明處攬下火炬云紅爐爍盡萬緣灰桐柏山頭新桂發。

起骨

師拈骨云這一片那一片東也有西也有八萬四千竟落誰其中一段屬吾手既屬吾手今當為爾一一分割作麼分割擲投骨入瓶云從教虛空粉碎也腊月蓮花開九九。

讚偈

高峰三老和尚讚(紫溪請)

鶴髮[髟/令][髟/令]蠶眉峻峙據座威儀形容節次肘頭動露玄機腳底談宣妙義拄杖直指撐天拂子英風蓋地多少俊又衲僧從教腦門擊

碎不擊碎徒虛棄而今公案紫溪圓奕葉聯芳增耀麗匪特祖武克繩卻
乃遺謀燕翼咦不是冤家不是兒桂秀蘭馨薪傳億祀

金山圖讚(尚有德居士請)

昔賢解帶鎮護今上運寶莊嚴襄成殊勝佛國益光海印法筵山水布若
棋局日月轉如彈丸樓閣籠雲匝地竹樹嵌石參天亭塔巍峨壯麗欄楯
錯落蜿蜒宸翰仁風浩浩御題聖澤淵淵洋裡龍舟競渡就中僧侶宜潛
可是迦文化跡適當慈氏舒權去來卓爾旋復因果於焉圓滿如何是圓
滿功德響唳點綴嚴華淨土境若行若坐任翛然福海壽山恒鞏固擎天
砥柱億千年

鑑堂上座讚(體宗請)

住茲四十餘載生齒七十零三紛華了無少事濟眾卻有多般直紹單傳
開人天之正眼重新梵苑廣檀信之福田塵尾輝揚獅象裘棒頭落點薪
燈傳噫嘻哉只是之謂因該果海果徹因緣

又讚(覺宗請)

隨緣欣快活任性適逍遙插草從心建持竿信手標千山拱伏圖畫錦萬
派回環達海潮于中現出靈雲面箇裡掀翻投子橈鳳麟濟楚龍象英豪
咦塵柄高揮意願足優曇開建智光昭

祝郡侯金公大護法

四海仰雍熙慈膏沛露滋仁山臻履吉壽域衍昌期兄弟榮華袞叟童獻
紫芝適邀仙子屈野外益添杯

寄郡侯朱公大護法

嘉禾叨樾蔭枳水益併幪曩任靈峰記夙勤平麓功三生願有準萬姓福
無窮權應現甘棠英榮黃閣風

祝馬司君

嘉平喜嶽降樹噴適芳英萬壽輝紫極九重耀朝庚大椿疇可量蟠果獻
為評山海壯華祝籌添奕世榮

示紫溪法姪孫

荷擔箇事志非輕行解冥符捍法城信手弘功溥濟世紫溪柳蔭允芳榮

示胡先貴寰名璣號祥蔭

美石含璋越萃精圓通真諦果因成金剛妙應恒周遍普蔭群靈在處禎

示劉朝佐漢卿名璣號碩蔭

道法原非分外求敬之如在玉瑩周箇中恒具金剛體萬德莊嚴碩蔭悠

示蔡永貴九鼎名玘號普蔭

四相皆空般若明菩提智果普芳英從教透徹本來面佩玉玲瓏蔭世榮

示劉顯雲榮衢名璣號崇蔭

耄耄頤齡間世瑛頻將妙應演無生誦持永遠崇功課蔭覆雲仍覺果新

示黃起鳳騰霄名[璣-品+其]號繩蔭

一念繩真念念周聞持信受任優遊超然直步長生上撒手逍遙玉樹稠

弔悟徹耆德

拂拂金風勢漸低西歸隻履遽相催瑤階切忌頻耽著回首閻浮度世師

弔冰壺上座

法道垂秋憶傑人傑人繼逝慟予心薪傳燄湧爐配雪電影光騰火煉冰
界外乾坤空泡沫壺中日月映幽林我來欲究西宗旨符兆九華容更新

弔淨修大德

金風凜冽起人思倏聽哀鴻聲遍知杖拂高捲安養界重來振理本伽黎

弔樂居士

善行優隆蔭世長桂蘭馥蔚永芬芳蓮池勝友親和合撒手逍遙極樂邦

聯芳

囑祖堂監院

挈笠攜瓶已有年登堂入室洵當然株株嫩桂競時茁朵朵寒梅鬥雪鮮
果熟馨香功濟濟因周秘密行綿綿祖庭擔荷宗傳永鐵脊持撐禎兆聯

囑兆堂藏主

不先不後慣當頭洵屬吾宗正敲鑪養翼脩翎經幾載還拳報掌歷多秋
心源密付乾坤闊性地穩持藏海周賓主唱酬迴卓犖金鑰碩展兆禎悠

囑德堂上座

一言為重勝千觔氣概天然迴出群入室曾親須進步陞堂演化正芳芬
立功立德洪宗譜崇古崇英耀祖君獅象麟龍隨蹴踏寶華煥彩任敷芸

囑憲堂知眾

杯渡乘篙汎普航穿山涉海任施張直收曲取隨拈弄暗縱明擒信展揚
二桂榮敷光祖室五峰秀發耀宗綱吾今親授匪虛也棠棣聯芳蔭永昌

囑觀堂知客

幼歲曾將大器期殷殷拭望已多時門庭振起分權實道脈親承應扣基
鬧市場間尋法友笙歌叢裡覓良知就中識得主中主豎拂拈槌任所之

囑曉堂書記

予昔曾遇蕭侯寺山水人情悉信心紫霧晚凝北渡口玉溪曉映東山森
寶鏡堂堂懸藻鑑金光朗朗耀冰林吾將付囑匪輕授法化宣時貫古今

囑杲堂掌教

明明杲日耀東頭照徹乾坤不記秋萬卉芬敷雲靄靄千葩馥郁水悠悠
法化相承憑任運宗源繼起蔭優遊從今葉茂花爭豔方廣興隆紹續周

囑几堂知藏

梵院堂堂懸玉印法門砥柱汛雄奇遙傳鷲嶺千枝遠直接曹源萬派枝
紹續有由原有據昭彰無隱妙無私几雲雲几隨收放一顆圓明任意施

囑燦堂上座住峨眉山

峨眉鼎構已多年幾度逢渠洵有緣入室不須重勘驗酬恩那用展粗拳
持竿持鋤垂方便立主立賓應化權法道洪宣憑碩燦一花五葉永芳傳

囑耀堂上座

繩持厚重正可思法道弘彰擬稱時光耀人天輝祖室顯揚嫡脈立綱基
永傳普化明宗緒繼起承先育嫩枝五葉一花頻燦爛芬敷碩發任榮施

代囑立堂法姪

單傳原不立言詮參訪曾經幾法筵雖未三登與九上雅從百煉及千研
安心更擬銅頭露勵志遠須鐵硯穿節候乘時興變動弘彰兩化洵宜然

代囑茂堂法姪

桐山嫩桂茁多年蒼翠而今茂更鮮雲覆蔭隆鋪界地雨滋澤澍注人天
昂提從教如龍躍動變應知似虎旋代囑由吾親驗實揮揚六度顯冥權

代囑容也法孫

寶藏玲瓏護法海玉潭淵湛育真龍本源授受匪虛也應量弘知祖道隆

代囑玉堂法姪

吾師初創慶忠剎委任慈兄歷多年授受無虛宜猛發原原本據應當然
寶花盈室天花燦玉葉滿堂一葉宣洪敷法化乘時也從教直旨利人天

代囑果堂法姪

執侍吾兄歷有年三呼三喚應當然臨行未獲分囊袋別後方知覓庫錢
始終一念追師範出入多般意本源報恩弘化從予授果滿因周遍界傳

代囑體宗法孫

溪頭常樂信悠然道脈傳持是幾年遞代相乘源有據一光應滿百千圓

代囑覺宗法孫

優曇灼燦臨江境馥郁馨香意可人繼啟承心輝祖室繽紛花雨潤宗親

囑朱曇馥居士

應現王臣護佛臣靈山親囑洵當人而今碩發曇華燦桂馥蘭馨遞代綦

囑況柄衡廣化居士

昔日維摩談不二而今廣化悟原一一三二四任收除法法弘宣宣秘密

辭世別郡侯施公

一見喜知音依依德愛勻承顏方數度別意重千鈞爵祿祈褒尚振宗仰
鑑親臨行奚贈囑在在頌鴻仁

辭世遺偈

幻空空幻兩交馳幻證幻修電影揮幻去幻來空幻夢幻生幻滅幻原離
龜毛繩繫虛空髻兔角拴沌眉鐵樹花開香噴噴冰河燄發火離離唵

絨

鑑 紹

嗣法門人性濟法孫空鐸曾孫法 捐貲刊刻

銓 紀

緒

竺峰敏禪師後錄卷下終(後附塔銘行狀)

竺峰敏禪師塔銘(有序)

欽定乙丑會魁

賜進士出身翰林院侍讀四明仇兆鰲頓首撰

粵自西旨東流宗分五派于中權實兼用棒喝齊施轟晴空之霹靂舞當場之太阿臨濟一宗稱獨盛焉迨十二傳得徑山杲開懸河之口施掣電之機說盡人間禪病斷除末世疑網臨濟宗風為之一振又十四傳得聚雲真博搜群集提挈五宗紹將墜之緒衍不盡之燈臨濟宗風為之再振普陀別公係出聚雲唱其宗風于海上予自史館給假旋里日與交遊因得探其源流康熙癸未翠華南幸予與別公同迎駕于吳門會別公奏請振宗寺額引及竺峰禪師并詳奏其行道始末上為嘉歎久之予退而詢其由來始知竺峰禪師別公諸父行也現住嘉禾楞嚴于是渴慕師名正欲叩其淵源乃師又齎御額西還誠令人可望而不可即矣予還史館條經數載今夏師之門人狀師平生行業托別公為之价紹請銘于予按狀師西蜀豐陵人姓徐氏世業儒師生而穎異十歲薙髮侍慶忠老人能機辯善偈頌圓具後掌記室廿有一載而忠順世師遂繼其席以守為創缺者補之傾者修之土木瓦石拮据維勤以怒為慈頑者治之懦者扶之凡聖賢愚勸誘匪懈尋遷郡之方廣主浙之楞嚴譽望日隆法化廣衍震雷霆之棒喝施妙密之鉗錘入其門者咸獲妙證叩其室者俱契真詮凡夫冠裳名教之倫接其音容承其色笑者莫不虛往實歸末季之世大振臨濟宗風舍師其誰歟迨晚年復歸振宗奉睿藻之光華戴天恩之眷注直令法社梵宮騰輝煥彩佛日同化日以爭麗宗風偕仁風以並扇也猗歟盛哉丁亥三月朔日偶示微恙真俗問候應對如常初十日書囑偈數章十二日卯時沐浴更衣集眾訓誡援筆書偈別郡主施公復書遺偈云幻空空幻兩交馳幻證幻修電影揮幻去幻來空幻夢幻生幻滅幻原離龜毛繩繫虛空髻兔角杖拴混沌眉鐵樹花開香噴噴冰河發火離離噴擲筆趺坐而逝茶毘煙飛五色旋結不散起骨數齒不壞得黃金瑣子骨三莖舍利無數餘骸重如金石鬚髮堅若琉璃嗚呼非師之白業清淨烏能有此距生于崇禎戊寅十二月十五日亥時世壽七十僧臘六十五坐道場度弟子一百二十餘人嗣法弟子三十三人語錄八卷附藏流通師之行業昭著服其化者類能傳述予安得不為之銘銘曰。

浮屠設教	肇自西乾	法行震旦
化衍三千	五宗分派	浪起滹沱
雙徑承之	流遍支郡	氣鬱而蒸
旋起聚雲	廣注法雨	化為甘霖
爰有慶忠	開厥振宗	傳者維師
德重道隆	赤肩擔荷	幾四十載
兼攝方廣	弘開藏海	道行兩浙
聲達九重		
聖藻光鋌	煥彩梵宮	法幢摧折
寶珠夜沉	巴臺月落	黯淡翠屏
不遷不變	惟黃金骨	高豎翠堵
鎮茲山麓		

竺峰禪師行狀

師諱幻敏字竺峰，豐陵徐氏子。世業儒，師生而穎異。六歲讀孔孟書，能記善解。十歲與萬峰善禪師同薙髮，作沙彌。事慶忠老人，時門下學徒雲集，咸推二沙彌有機辯，且善偈頌，聲振一時。師兼沉默寡言，識者知其必成大器。一日，忠指燈命師作偈，師應聲曰：「光如閃電，虛空可徹。未來作燈，是銅是鐵。」時三目和尚見之，徵曰：「是銅是鐵？」師曰：「火裡波浪起。」忠異之，問：「汝名甚麼？」師曰：「幻敏。」忠曰：「幻敏以前，師曰：『海底青天外。』」忠曰：「幻敏以後，師曰：『佛法永無窮。』」忠曰：「甚麼處見？」師曰：「靈峰山下。」在安期日，日期解後如何？師曰：「虛空大地，日曰落在甚麼處？」師頓足曰：「有足頓，無足頓，箇甚麼？」師曰：「和尚也莫太認真。」忠大笑。一日閱經，次忠曰：「眼中常見如是經典，只這便是為復別有。」師曰：「和尚直須恁麼會。」忠曰：「離卻紙墨，道將一句來。」師曰：「東邊風也，不多。」忠曰：「者小師尋受具于崇聖，再參五雲機，益迅捷，遂自五雲歸省。老人忠見曰：『聞汝慣打人。』」師曰：「和尚也須仔細。」忠曰：「汝走路穿甚麼？」師曰：「草鞋。」忠曰：「獐牙生也。」未師翹足，忠曰：「那箇嚮？」師曰：「問者話作麼生？」忠曰：「三空說汝，掌他要將汝來處治。」師曰：「早與他說過了也。」忠曰：「作麼生說？」師曰：「盜一賠九。」忠曰：「吾助汝遠來善。」曰：「童真汝名童行，後值除夕，師獻席燈，忠書偈囑曰：『無根樹上九燈傳，果繫橘金枝葉鮮。稍稍借力油燈火，照開新舊樂人天。』」天命掌記室，執侍座下，廿有一年。康熙戊申歲，忠示寂，眾舉師繼席，冰兢自持，克己惠眾，舉揚大法，朝暮不倦。老人之中興振宗也。惟經樓甫成，土木之功肇始，師則每事身先，造殿造塔，三年之內煥然一新。尋退居郡之石鼓寺，請同門普門顯禪師輪繼住持。若曰：「祖庭公所非一人等擅之地耳。」乃顯師三年後亦謝去，眾議仍延師返堅，請乃就時當地方風鶴狼煙四起，都人士聚散無常，禪衲子去來匪定，師之挺身守此良多苦心焉。迨乙丑丁卯間，海宇昇平，縉紳向化，緇衲雲興，法席之盛較慶忠老人初創時猶或過之。丙子兼攝郡之方廣，丁巳齋慶忠老人舍利，南下寓居普陀，壬午主嘉禾楞嚴司徒杜公太守袁公倡先持衛，合郡紳士咸相皈禮，提唱元音，宗風蔚起。師之接人一以真實，鉗錘辛辣，處愈令人痛快難忘也。癸未春，今上南巡駐蹕蘇州普陀別菴，禪師迎駕命題，應制之際，因得從容詳奏師始末，上聞而嘉歎，遂御書振宗禪寺額，欽賜還蜀。次年千歲亦睿書藏海慈波額，賜楞嚴皆師之盛德，感召千載一時非偶然也。自敕黃臨忠郡治平古剎，重頒新綸，慶忠祖塔御題妙光遠邇，欣瞻緇素，景從伐鼓敲鐘，無虛日朝參暮請，無寧晷。師年近古稀，老而益壯，誠為道忘軀乃爾也。無何丁亥三月朔日，偶示微恙，本郡文武官宰縉紳故舊競來問候，師應對如常。于初十日書囑偈數章，十二日五鼓沐浴，集眾援筆書偈，別郡侯施主復書遺偈云：「幻空空幻兩交馳，幻證幻修電影揮。幻去幻來空幻夢，幻生幻滅幻原離。龜毛繩繫虛空髻，兔角杖拴混沌眉。鐵樹花開香噴噴，冰河燄發火離離。唳書畢復諄誠眾于卯時，趺坐而逝。荼毘煙飛五色，旋空蓋頂起骨數齒，不壞得黃金瑣子骨三莖，舍利無數，其餘骨殖重如金石。」

鬚髮堅似琉璃建塔于慶忠祖塔之右師生于崇禎戊寅十二月十五日亥時卒于丁亥三月十二日卯時住世七十僧臘六十五坐道場度弟子百人嗣法弟子三十三人嗣法居士十八人語錄八卷附楞嚴大藏流通弟子不敢揚師之美謹就師之平實履踐應世因緣彷彿大概為如是云耳。
門人性濟謹狀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